

연구보고 09-R08

#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책임연구원 :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방은령 (한서대학교 · 교수)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가출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함. 따라서 청소년 가출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밝히고,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 예방책과 대응책을 살펴보며,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들의 비교연구 및 가출청소년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가출 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 내용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음.
  -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
  - 국내외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현황
  - 청소년 가출 관련 실태조사
  - 가출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 정책제언
-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제도권 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가출 초기이거나 가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함.

-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일부 영역에서 다른 가출자나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과 또 다른 특성을 보였음.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방임이나 학대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정도가 높았음. 가출 후의 상태도 다른 유형의 가출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열악하여 건강, 경제적 상황, 가족들의 태도, 학교 다니기 등의 상황이 가출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탈행동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한 경험, 가출 후 폭행과 같은 피해경험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들은 가출생활에서 겪는 어려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정에 복귀할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가출자들에 비해 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 또한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잠시 활용할 뿐이었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가출 경험자 및 만성가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가족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재혼가정 출신의 만성가출자들은 다른 가족구조를 지닌 청소년들이나 다른 가출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는 낮고, 학대 및 방임 정도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한편 조손가정 출신의 가출청소년들은 재혼가정의 청소년들과 더불어 보호자로의 방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고 또래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출청소년 및 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됨. 또한 현재 정부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으로 CYS-net을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쉼터와 상담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중복될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연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3. 정책 제언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들이 도출되었음.
  - 가출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재정립
  - 가출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대상의 확대
  - 가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정책의 확대
    - 가정 및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 실시
    -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 및 성인 지지망 형성 지원
    - 가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 가족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가출청소년 초기사정 및 사례관리의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 보호체계 안으로의 진입을 통한 자립 기반의 확대
    - 청소년쉼터 내 시설, 설비 보완 및 프로그램 개선
    - 보호시설의 24시간 보호체계로서의 기능강화

- 중장기 보호 및 지원 시설의 확충을 통한 고연령 장기 가출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확대
- 현장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현 정책 재검토

#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6
1)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	6
2) 국내외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현황	7
3) 청소년 가출 관련 실태조사	7
4) 가출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8
5) 정책제언	8
3. 연구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13
1) 가출청소년의 개념	13
2) 가출청소년의 유형	14
2.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특성	17
1) 청소년 가출의 실태	18
2) 청소년 가출의 특성	26
3.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1) 개인적 측면	32
2) 환경적 측면	34
4. 가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41
1) 건강 상의 문제	41
2) 비행 및 범죄 관련 피·가해 경험의 증가	43
3) 교육 기회의 상실	46
III. 국내외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및 기관 현황	
1. 국내 정책 및 기관 현황	51
1)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51
2)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57

3) 시사점 .....	64
2. 국외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 .....	66
1) 국외 가출청소년 정책 사례 .....	66
2) 국외 가출청소년 정책을 통한 시사점 .....	87

#### IV. 청소년 가출 관련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95
1) 조사대상 .....	95
2) 조사도구 .....	98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	101
2. 조사 결과 .....	103
1) 일반 및 쉼터 청소년의 가출 실태 .....	103
2) 가출유형별 가출실태 .....	123
3) 가출유형과 관련요인 .....	149
4) 소결 .....	167

#### V. 가출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1. 조사개요 .....	173
1) 조사대상 .....	173
2) 조사방법 및 절차 .....	174
2. 조사내용 .....	175
3. 조사결과 .....	176
1)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일반적 특성 .....	176
2) 현재의 쉼터 입소 과정 .....	179
3) 가출경험 .....	182
4) 쉼터에서의 생활 .....	197
5)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 .....	205
6) 사회에 대한 기대 .....	208
7) 귀가에 대한 계획 .....	212
8) 소결 .....	21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221
2. 정책제언 .....	228
참고문헌 .....	247
부 록 1 .....	253
부 록 2 .....	264

## 표 목차

<표 II-1> 가출 청소년 신고 현황 .....	18
<표 II-2>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 .....	19
<표 II-3> 청소년 가출경험 여부 .....	22
<표 II-4> 가출에 대한 인식 .....	26
<표 II-5> 연도별 초등학교 시기의 첫 가출 비율 .....	28
<표 II-6> 청소년 보호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	31
<표 II-7> 청소년들의 주요 가출 원인 .....	34
<표 II-8> 가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울 때 .....	41
<표 II-9> 가출 전·후의 문제행동 경험 .....	44
<표 II-10> 가출 전·후의 문제행동 경험 (일주일에 3번 이상) .....	44
<표 III-1> 청소년 쉼터설치 현황 .....	56
<표 III-2> 청소년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소득 수준 .....	57
<표 III-3> 청소년 쉼터의 유형 .....	59
<표 III-4> 청소년 쉼터의 정원 .....	61
<표 III-5> 독립 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모듈 .....	70
<표 III-6> 호주 정부의 예방과 조기 개입 정책 .....	82
<표 III-7> Roofs for youth 프로젝트 일정보표 .....	86
<표 IV-1> 조사대상(일반 청소년) .....	95
<표 IV-2> 일반 및 쉼터 청소년들의 지역 크기별 가정 경제적 수준 .....	96
<표 IV-3> 일반 및 쉼터 청소년들의 지역 크기별 부모의 학력 수준 .....	97
<표 IV-4> 가출 충동 .....	104
<표 IV-5> 가출 경험 .....	107
<표 IV-6> 가출 횟수 .....	108
<표 IV-7> 재가출한 이유 .....	108
<표 IV-8> 작년 한 해 동안의 가출 경험 .....	109
<표 IV-9> 첫 가출 시기 .....	110
<표 IV-10> 첫 가출 기간 .....	111
<표 IV-11> 첫 가출 후 가정 복귀 이유 .....	111
<표 IV-12>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 .....	112

<표 IV-13> 가출 횟수 및 기간 .....	113
<표 IV-14> 가출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중복응답) .....	116
<표 IV-15> 가출 전과 비교한 가출 후 개인 상황 .....	118
<표 IV-16>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중복응답) .....	119
<표 IV-17> 가출 후 일해 본 경험 및 일한 곳 .....	120
<표 IV-18> 학교 중단 시기 및 주된 이유 .....	121
<표 IV-19> 가출 중인 청소년들의 이후 계획 .....	122
<표 IV-20> 가출유형과 첫 가출시기 .....	124
<표 IV-21> 가출유형별 가출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중복응답) ..	125
<표 IV-22> 가출 충동 및 유형별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	126
<표 IV-23> 가출 유형별 청소년 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	127
<표 IV-24> 가출 유형별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28
<표 IV-25> 청소년쉼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기 싫은 이유 ..	129
<표 IV-26> 가출 충동 및 유형별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	130
<표 IV-27> 가출 유형별 청소년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	131
<표 IV-28> 가출 유형별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31
<표 IV-29>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기 싫은 이유 ..	132
<표 IV-30> 가출 충동 및 유형별 청소년전화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	133
<표 IV-31> 가출 유형별 청소년전화 이용에 대한 만족도 ..	134
<표 IV-32> 가출 유형별 청소년전화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34
<표 IV-33> 청소년전화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기 싫은 이유 ..	135
<표 IV-34> 가출 유형별 가출 전·후의 개인 상황 .....	138
<표 IV-35>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중복응답) .....	141
<표 IV-36> 가출 유형별 가출 후 일해 본 경험 및 일한 곳 ..	142
<표 IV-37> 가출 여부 및 유형별 일탈 및 가해경험 .....	144
<표 IV-37> 가출 여부 및 유형별 일탈 및 가해경험 .....	145
<표 IV-38> 가출 전·후 일탈 및 가해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 ..	146
<표 IV-39> 가출 여부 및 유형별 피해경험 .....	148
<표 IV-40> 가출 전·후 피해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 .....	149
<표 IV-41> 가출의 제 1원인 .....	150
<표 IV-42> 가출유형과 가족지지 .....	152
<표 IV-43> 가출유형과 학대 .....	153

<표 IV-44> 가출유형과 방임 .....	154
<표 IV-45> 가출유형과 가정형편 .....	155
<표 IV-46> 가출유형과 가족구조 .....	156
<표 IV-47> 가족유형과 양육환경 .....	158
<표 IV-48>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양육환경 .....	160
<표 IV-49> 가출유형과 가정환경에 대한 공변량 분석 .....	160
<표 IV-50> 가출유형과 가정환경에 대한 공변량 분석 .....	161
<표 IV-50> 가출유형과 교사지지 .....	162
<표 IV-51> 가출유형과 친구지지 .....	163
<표 IV-52> 가출유형과 또래동조성 .....	163
<표 IV-53> 가출유형과 친한 친구의 일탈 정도 .....	164
<표 IV-54> 가출유형과 자존감 .....	165
<표 IV-55> 가출유형과 우울·불안 .....	166
<표 V-1>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	173
<표 V-2>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내용 .....	175
<표 V-3>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 특성 .....	176

## 그림 목차

[그림 II-1] 가출 경험 여부 .....	20
[그림 II-2] 지난 일 년 간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 .....	21
[그림 II-3] 최초 가출 시기 .....	23
[그림 II-4] 첫 번째 가출 기간 .....	24
[그림 II-5] 두 번 이상 가출 시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 .....	25
[그림 II-6] 가출 횟수 .....	29
[그림 II-7] 가출 이유 .....	35
[그림 III-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도 .....	52
[그림 III-2] 1388 청소년전화 모형 .....	54
[그림 III-3] Portland 홈리스 청소년 연속체 .....	72
[그림 III-4] 2005~2006 영국 홈리스 청소년들의 지원 개입 유형 .....	79
[그림 III-5] 홈리스 학생을 위한 경로 .....	84
[그림 IV-1] 가출 충동의 이유 .....	105
[그림 IV-2] 가출의 이유(중복응답) .....	114
[그림 IV-3] 가족유형과 가정의 경제수준 .....	158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의 가출은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사회라면 어디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4년 조사(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따르면, 청소년의 79.2%가 가출 충동을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고된 가출 청소년만도 1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 자체가 신분노출을 꺼려하며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들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가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의 실태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경험을 조사한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근거로 매년 약 7만 명 정도의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향초, 2009). 이상과 같은 규모의 추정치는 청소년의 가출이 단지 청소년 중 극히 일부분의 개인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출을 선택한다. 2007년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가출 충동을 느꼈던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족, 학교, 친구, 새로운 도전, 심리적 요인, 비행 등 다양한 요인을 가출 충동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족요인은 청소년 가출문제와 따로 떼

어놓고 보기가 어렵다. 쉼터 실태조사에서 가족을 가출충동의 제 1요인으로 꼽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3%에 달했으며, 제 2요인으로 꼽은 경우도 36.9%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시작된 가출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출소년들은 일시적으로 해방감 및 자유, 모험심, 또래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느끼기기도 하지만(Raleigh-Duroff, 2004; Wingert, Higgitt, & Ristock, 2005),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고, 그에 따라 건강악화, 폭력, 범죄, 약물남용, 성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문제행동에 빠지기가 쉬우며 사회적인 냉대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김향초, 2009). 이러한 경험은 개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형성·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이고 장기화된 가출로 인해 가출이 습관화된 청소년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는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지금까지 가출 연구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가출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가출을 억제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들이 될 수 있으나, 이들이 처한 상황과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가출 억제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강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족으로부터의 심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끝에 생존의 위협을 느껴 가출한 이들이나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방임이나 가족해체, 만성적인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이들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과 특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가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 및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가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행경로에 관한 연구,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 쉼터 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경은, 문성호(2008)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학술지 28종에 수록되어 있는 청소년 가출 관련 논문 54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가출 원인을 규명한 연구가 전체 54편 가운데 16편(29.6%)으로 가장 많았고, 가출로 인한 문제가 18편(33.3%), 임상실천 및 쉼터와 같은 대책에 관한 연구가 19편(24.1%), 기타 1편(1.9%)순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선행연구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가출 연구의 비교적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가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는 가출에 따른 문제나 대책 연구가 점점 더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경은, 문성호(2008)는 이러한 청소년 가출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점들은 본 연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가출요인들 간의 상호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종속 변인 뿐 아니라 매개 변인이나 중재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청소년 쉼터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지원체계 조직과 관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질적, 양적 연구의 혼합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

구를 혼합하여 가출 관련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밝히고, 현재 국내 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 예방책과 대응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 가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가출의 예방책 및 대응책은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가출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아래 이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출유형을 유목화한 후 각 유목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제언도 함께 이루어졌다.

## 2. 연구내용

### 1)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청소년 가출에 대한 개념과 유형 및 청소년 가출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를 살펴보았다.

○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개인적 요인(성별, 나이, 자기통제성, 적응유연성, 비행여부 등); 가정 요인(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전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질(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서적 지지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 등); 또래 요인(동성친구와의 친밀도, 또래 규범의 압력 정도, 또래의 비행 정도 등); 학교 요인(학교 성적, 교사와의 관계, 학교 내 교우관계 등) 간의 상호작용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 가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적인 성장기회의 상실, 정규교육 기회의 상실, 근로현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비행으로의 연계, 범죄의 피해 가능성 증가, 사회의 냉대와 배척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국내의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현황

(1) 국내의 정책 및 기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 가출청소년 지원 정책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가출예방 및 청소년쉼터 지원 및 평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가출청소년 지원 기관으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았다.

(2) 국외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 3) 청소년 가출 관련 실태조사

(1) 청소년 가출 실태는 일반 및 쉼터 청소년들의 비교와 가출 유형별(무경험자, 일회성가출, 장기가출, 반복가출, 만성가출)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 및 쉼터 청소년들은 가출 충동과 경험을 주로 비교하였고, 가출 유형별로는 첫 가출시기, 가출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 보호시설 이용실태, 가출 전·후 개인상황의 변화, 생활비 해결방법, 가출 후 일해본 경험 및 일한 곳, 일탈행동 및 가·피해경험을 비교하였다.

(2) 가출 관련 요인으로는 가출의 제 1원인, 가정환경, 교우 및 교사관계, 심리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 4) 가출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가출 후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쉼터의 입소 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 가출 경험(가출 동기 및 배경, 가족환경, 재가출의 이유, 가출 후의 생활), 진로 및 미래에 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당면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 5) 정책제언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1) 문헌고찰, 2) 설문조사, 3) 심층면접조사, 4)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과 같은 네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1)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가출실태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련 정책 및 기관·지원 프로그램 등이 분석되었고, 청소년 가출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심층 면접지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또한 조사결과의 깊이 있는 분석 및 해석과 이를 토대로한 정책제언이 제시되었다. 문헌고찰에 활용된 자료와 매체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각종 통계자료, 학술지, 일반서적, 인터넷 문서 등이 포함된다.

## 2)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9,751명과 쉼터 청소년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가출 관련 문항과 가출 전·후의 심리 및 환경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존감, 우울·불안, 학대·방임 경험, 사회적 지지원 정도, 또래 동조성 정도, 본인 및 친한 친구의 일탈 행동 경험여부, 청소년보호시설 인지 및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남·녀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쉼터 입소과정, 가출경험, 쉼터생활, 학업 및 진로 문제, 사회에 대한 기대, 귀가 계획 등 가출에 따른 전반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질문을 단위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분석내용은 질문에 따라 피면접자의 반응을 범주화하여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피면접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적인 접근(descriptive approach)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 4)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구성, 면접조사를 위한 쉼터 청소년들과 접촉하는 방법 및 이들의 특성에 대한 논의, 경험조사의 결과 해석, 관련 정책 제언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특성
3.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가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 가출 대책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그의 원인과 특성 및 그에 따른 유형분석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개괄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실태와 특성, 가출의 원인 및 가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례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 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 1) 가출청소년의 개념

가출 소년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견해상의 차이는 여전하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몇몇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Welsh(1995)는 가출청소년에 대해 “부모 허락 없이 집을 떠난 지 48시간 이상이 되어 가족에 의해 신고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Baker(2003)는 사회사업사전에서 “자신들의 요구나 희망과는 반대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가정을 떠났거나 혹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였다. 미국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에 따르면 “친척 및 안전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고 다른 안전한 대체 거주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21세 미만의 청소년”을 노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준호, 박정선(1993)은 가출에 대해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정기

간 이상 안정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할 때에는 학자마다 그 연령대를 규정하는 것이 다소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인 경우가 주요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만 18세가 고등학교 졸업연령이며 연령이 그 이하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은 24세까지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한다면, 가출청소년에 포함되는 연령대가 좀 더 상향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출 기간 역시 최소 하룻밤에서 48시간까지 학자에 따라 다소 정의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만을 가출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지녔다고 할 수도 있는, 돌아갈 집이 없는(homeless)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정의로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을 가진 가출청소년들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부모의 동의 없이는 근로가 불가능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돌아갈 집이 없거나 법적 보호자의 허락 없이 최소 하룻밤 이상 무단 외출한 이들을 가출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이들의 경우 근로나 학업 등의 조건에서 가출로 인해 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 2) 가출청소년의 유형

가출의 유형은 가출의 원인과 형태, 횟수와 집단의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가장 고전적인 가출 유형의 구분은 가출 목적에 따라 탈출형(running from)과 추구형(running to)으로 나눈 Homer(1973)의 구분을 들 수 있다. 탈출형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는 유형인 반면 추구형은 쾌락과 모험을 즐기

기 위해 집을 떠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omer의 모델은 다양한 가출 동기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가출유형을 단순히 양분화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harlin & Mor-Barak, 1992). 이후 Miller와 그의 동료들(Miller, Miller, Hoffman, & Duggan, 1980)은 문제의 주요 원인이 부모와 자녀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출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가출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는 ‘희생자’, ‘추방자’, ‘반항자’로 분류하였고, 가출의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는 ‘도망자’, ‘떠난자’, ‘이민자’로 분류하였다.

미국의 가출청소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NNRYS)에서는 가출청소년을 가출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 버려진 청소년, 길거리 청소년, 보호체계 청소년으로 유형화하고 있다(채봉균, 2002). 가출청소년(runaway youth)은 하룻밤 이상 집을 나와 지낸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집 없는 청소년(homeless youth)은 말 그대로 집 없이 길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버려진 청소년(throwaway youth)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집에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을 말하며,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은 장기간의 가출 이후 거리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청소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체계 청소년(system youth)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주정부의 보호 관리 하에 있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그 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나 친지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집밖의(out-of-home) 청소년과 집에서 살긴 하되 부모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감독되지 않는(unsupervised) 청소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분으로 유형 간에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가출 청소년 중에는 이중 여러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 특성에 맞는 유형화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예로써, 한국청소년개발원(1992)은 가출 인원 에 따라

단독으로 감행하는 개인적 가출, 또래들과 함께 하는 집단 가출, 한 사람의 가출 후 또래들이 줄지어 가출하는 연쇄적 가출, 한 청소년이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재가출로 구분하고 있다.

홍봉선, 남미애(2007)는 가출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의 가출, 즉 시위성 가출, 유희성 가출, 방랑성 가출, 추방성 가출, 생존형 가출로 구분하였다. 시위성 가출은 가족이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가출하는 것이며, 유희성 가출은 또래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충동에 따른 가출을 의미한다. 방랑성 가출은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 떠돌며 살기위한 가출이며, 추방성 가출은 가족들의 무관심과 방임 등에 의해 가정으로부터 떠밀려 나온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생존형 가출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생존을 위해 도망쳐 나온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이용교, 홍봉선, 윤현영(2005) 등은 가출청소년을 노숙형, 거부형, 탐색형, 전환형, 안정형, 치료형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노숙형 가출은 장기 가출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며 보호시설에 대한 지식이나 이용동기가 떨어지는 유형이다. 거부형은 구속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여 가출한 경우로 보호시설의 규칙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탐색형은 자립과 재활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귀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태도를 정립할 기회가 필요한 유형이다. 전환형은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청소년으로 언제든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필요성이 낮다. 안정형은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 생활하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 경우로 안정적인 거주지와 보호가 제공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치료형은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남용이나 인터넷 중독, 성격장애, 행동장애, 우울증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형이다.

이와 비슷하게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에서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 및 쉼터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단기, 중장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

우는 갈등가정 청소년과 해체가정 청소년으로,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노숙청소년과 배회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갈등가정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을 의미하며, 해체가정 청소년은 가정이 보호기능을 상실하여 집에서 내몰린 청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노숙청소년은 장기간의 가출 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며 보호시설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배회성 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절되지는 않았고, 거리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있는 집단으로 포괄적으로는 일반 청소년 집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가출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 구분은 각 유형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체가정 청소년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보다 자립을 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며, 갈등가정 청소년으로 일시적인 가출인 경우에는 가족 간의 관계 개선과 함께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이 우선시된다. 또한 장기가출로 인하여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나 장기 시설로의 입소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일시 또는 단기 쉼터 등을 통해 먹거리와 잠자리, 응급치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출의 원인과 가출 이후의 생활에 따른 유형 구분은 가출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2.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특성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가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유동적이고 신분의 노출을 꺼리다 보니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포함

되는 범위도 전문가들마다 달라 청소년 가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가출 실태에 대한 파악은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므로 이 절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나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가출의 전반적인 실태와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한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 가출의 실태

우선 가출청소년에 대한 공식자료는 대부분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기초한다(김향초, 2009).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청에서 게시하는 청소년 통계<sup>1)</sup>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출 청소년으로 신고된 사례는 매년 1~2만 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 <표 II-1>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약 13,000명에서 19,000명까지 이르렀으나 2006년은 약 9,000명, 2007년은 약 1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핏 보기에 2006년 이후 가출 청소년의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5년까지는 가출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0세 미만이었으나 이후 실종아동법이 시행되어 9세에서 13세까지는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가출청소년의 연령이 상향조정된

<표 II-1> 가출 청소년 신고 현황

연도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46,632	41,329	50,621	61,319	50,099	60,499	63,142	46,149	42,269	45,045
청소년	19,320	15,316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9,390	12,240

청소년 범위: 2005년 이전(9~20세 미만),  
2006년 이후(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14~20세 미만)  
출처: 통계청(2008) 청소년통계.

1) 통계청 <http://www.nso.go.kr>(검색일: 2009.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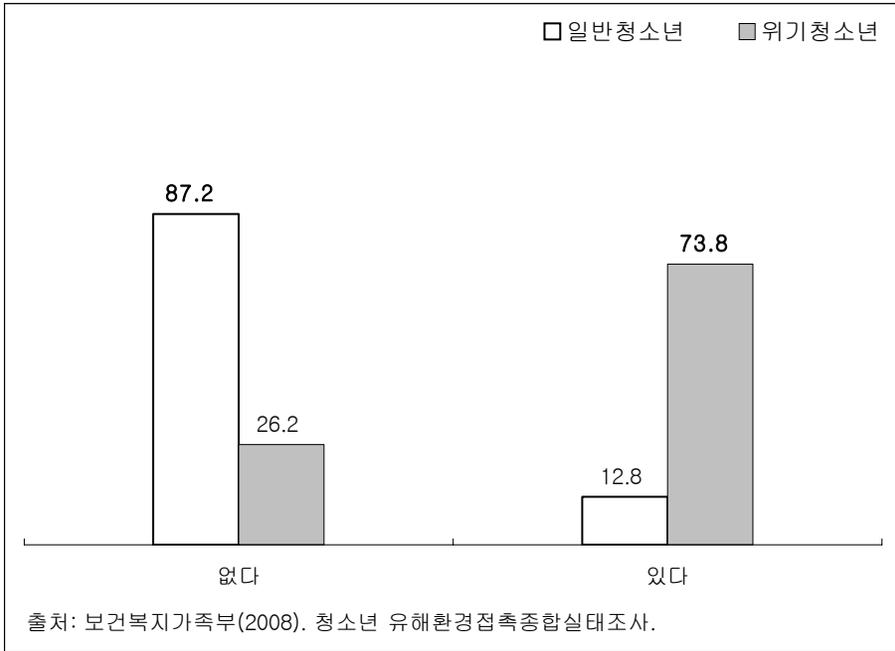
〈표 II -2〉 청소년 컴퓨터 입소 청소년 현황

구분	이용실적					보호기간					
	총계	13세 미만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총계	15일 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2005년	33,945	3,718	15,804	12,905	1,518	33,945	6,104	5,528	8,294	4,952	9,067
2006년	194,093	21,331	70,023	83,969	18,770	194,093	24,260	24,163	59,098	37,690	48,882
2007년											
연인원	228,083	13,380	86,051	105,863	22,789	228,083	31,768	25,596	58,374	59,881	52,464
실인원	15,278	779	6,460	6,887	1,152	15,278	7,095	1,389	2,306	2,649	1,839

출처: 통계청(2008) 청소년 통계.

데에 따른 현상이다. 또한 이 수치는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건수에 기초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가출청소년까지 포함된다면 실제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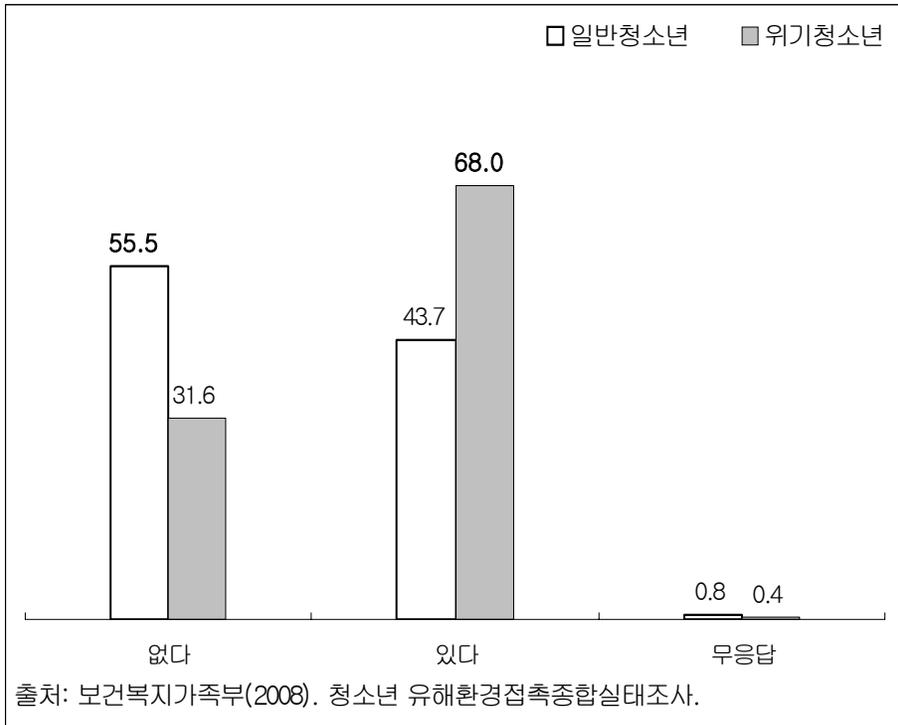
실제 가출청소년의 규모가 가출로 신고 접수된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자료 중 하나는 청소년 컴퓨터 이용자 현황이다(〈표 II-2〉). 〈표 II-2〉에 따르면 청소년 컴퓨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2007년 한 해만 해도 22만여 명에 이르러 가출 신고된 수의 18배 이상이다. 물론 청소년 컴퓨터 이용자가 모두 가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컴퓨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이용자의 79.4%만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가출 경험이 2007년 한 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컴퓨터의 조사는 가출 청소년의 규모가 신고된 규모에 비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림 II -1] 가출 경험 여부

또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한 2008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4,716명의 일반청소년 중 가출<sup>2)</sup>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8%에 달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73.8%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1])<sup>3)</sup>. 한편 같은 조사에서 실시한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가출 경험자 중 일반청소년은 43.7%, 위기청소년

- 2) 이 조사에서는 가출을 “집을 떠날 목적으로, 하루이상 외박한 경우를 말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나 다시 들어올 생각으로 떠난 무단외박, 여행 등”으로 정의하였다.
- 3) 국가청소년위원회(현재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가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 각각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에 따르면 각 연도마다 일반청소년의 가출경험비율은 9.9%와 10.9%, 12.1%로 나타났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67.9%와 67.1%, 59.2%로 나타났다.



[그림 II -2] 지난 일 년 간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

은 68.0%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중단연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도 가출여부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표 II-3>). 2004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학생 2,844명을 대상으로 2007년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마다 응답자(무응답자 제외) 중 1.4~1.7%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가출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5%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2007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마다 응답자 중 1.9%~4%정도(무응답자 제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

〈표 II -3〉 청소년 가출경험 여부

단위: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학년	--	초 4	초 5	초 6	중 1	
있다	--	48 (1.7)	45 (1.7)	37 (1.4)	39 (1.6)	134 (5.5)
없다	--	2,796 (98.3)	2,662 (98.3)	2,634 (98.6)	2,472 (98.4)	2,291 (94.5)
전체	--	2,844 (100.0)	2,707 (100.0)	2,671 (100.0)	2,511 (100.0)	2,425 (100.0)
학년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전체
있다	139 (4.0)	121 (3.8)	103 (3.3)	94 (3.0)	55 (1.9)	338 (12.1)
없다	3,310 (96.0)	3,067 (96.2)	3,020 (96.7)	3,027 (97.0)	2,903 (98.1)	2,464 (87.9)
전체	3449 (100.0)	3,188 (100.0)	3,123 (100.0)	3,121 (100.0)	2,958 (100.0)	2,8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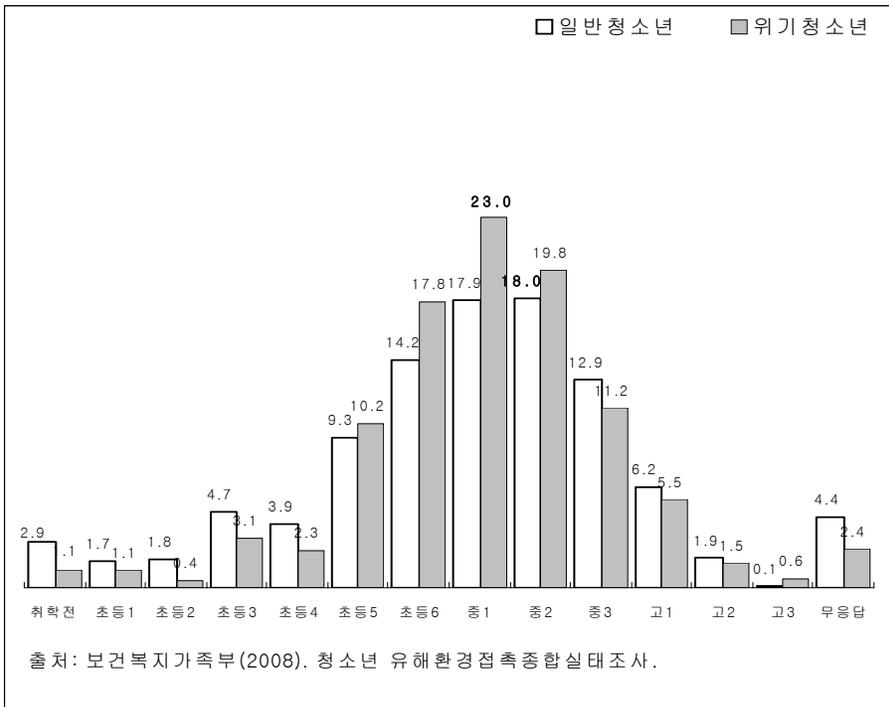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

까지의 가출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12.1%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 경험에 있어서 중2 집단에서 나온 약 12%라는 수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종합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서 나온 수치(12.1%)와 매우 흡사한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고등학생 수는 약 4백만이며, 이 수치에 가출 비율인 약 12%를 대입해보면 적어도 약 48만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한 번 이상의 가출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수치이며, 학교에서 중도 탈락된 청소년들까지 포함한다면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 비율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에 발생하는 청소년 가출비율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의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자료

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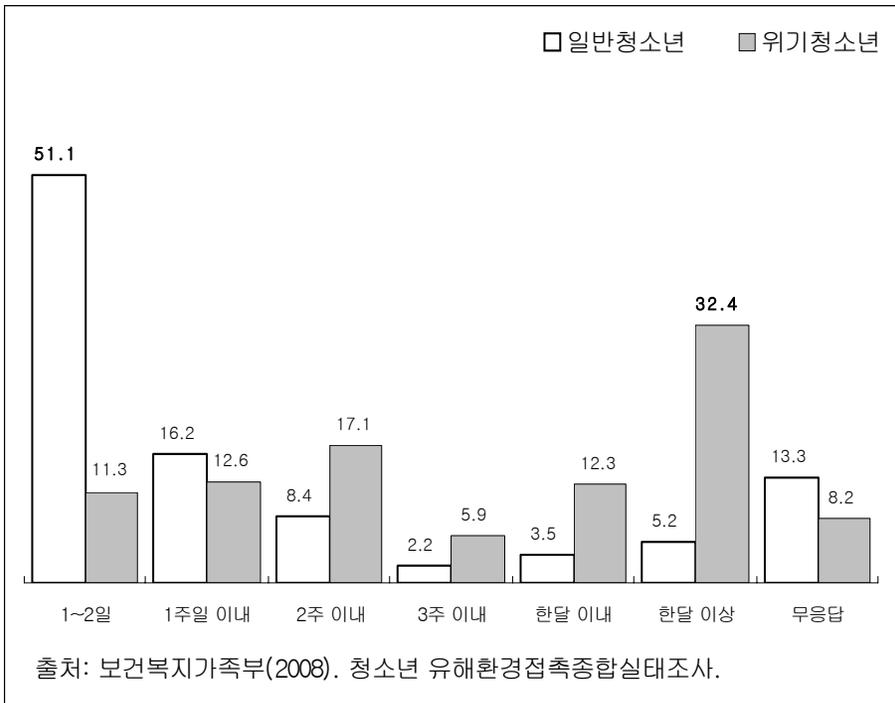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첫 가출 시기를 비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첫 가출비율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1, 2학년 시기는 본격적으로 가출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23%, 중학교 2학년 때 19.8%가 첫 가출을 하였으며,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8%가 중학교 2학년 때, 17.9%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가출을 하였다. 중학교 1, 2학년 때의 이러한 수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첫 가출 시기에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점은 일반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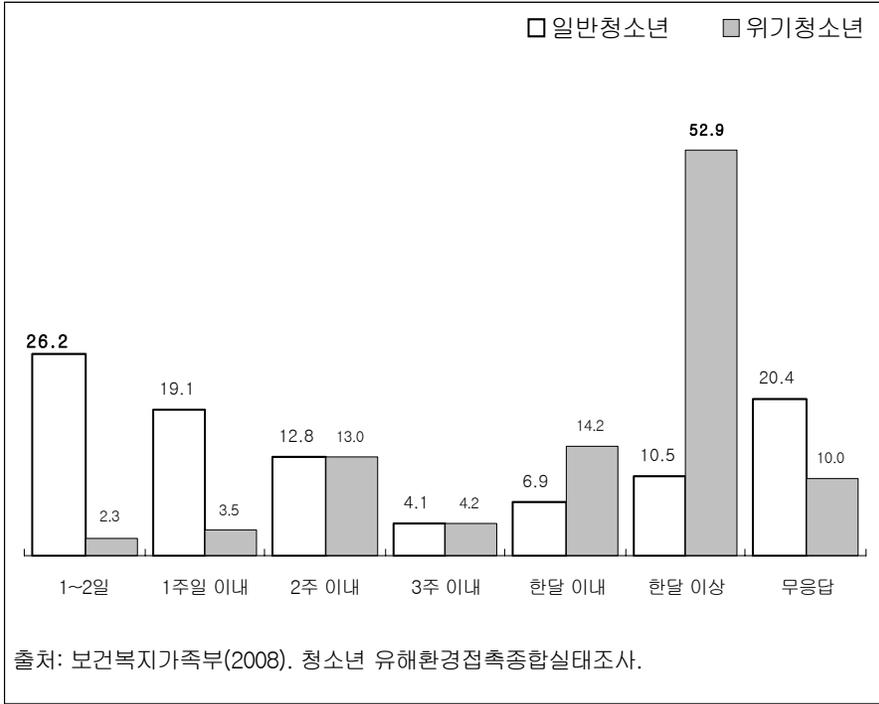
[그림 II-3] 최초 가출 시기

의 38.5%, 위기청소년의 36%가 초등학교 시기에 가출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출에 대한 예방교육이 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가출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첫 번째 가출기간 및 두 번 이상의 가출 중 가장 오래된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청소년은 '1~2일'이 가장 많다(각각 51.1%와 26.2%)고 응답한 반면, 위기청소년은 '한 달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각각 32.4%와 52.9%)으로 나타났다([그림 II-4], [그림 II-5]). 위기청소년의 상대적으로 긴 가출 기간은 이들의 가출이 일반청소년의 일시적 가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에 따라 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두 번 이상의 가출



[그림 II-4] 첫 번째 가출 기간



[그림 II -5] 두 번 이상 가출 시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

시 ‘한 달 이상’ 가출했다는 응답이 52.9%로, 첫 가출시 ‘한 달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32.4%)에 비해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반청소년의 경우도 가출기간이 ‘1~2일’이라는 응답이 첫 가출에서는 51.1%이던 것이 이후의 가출에서는 26.2%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상의 가출기간에서는 응답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재가출은 장기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종합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 나타난 가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표 II-4>와 같다.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가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54.9%)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가출을 할 수도 있다(53.5%)고 응답하는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약 37.4%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

〈표 II -4〉 가출에 대한 인식

(단위: %)

	사례수 (명)	응답			무응답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일반 청소년	14,716	54.9	26.6	15.2	3.3
위기 청소년	1,597	45.8	30.1	20.9	3.3
일반 청소년	14,716	53.5	23.7	19.4	3.4
위기 청소년	1,597	44.6	33.9	18.0	3.4
일반 청소년	14,716	37.4	29.7	29.5	3.4
위기 청소년	1,597	42.5	37.8	16.0	3.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정착종합실태조사.

은 현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29.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가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다소 혼란스럽다. 한편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응답이 45.8%, 불가피한 경우에 가출을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44.6%로, 일반 청소년들의 응답수치보다 약간 낮기는 하였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출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42.5%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0%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 2) 청소년 가출의 특성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의 특징으로는 저연령대 가출의 증가, 가출의 만성화,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1) 저연령대 가출의 증가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첫 가출은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중학교 1, 2학년 시기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가출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컴퓨터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컴퓨터이용자 중 48%가 첫 가출이 13세 이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시컴터를 이용하는 이들 중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형 청소년(57.6%)의 경우는,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집에 들락거리는 배회형 청소년(26.8%)에 비해 13세 이하에 가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출연령이 낮은 경우 거리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38.5%, 위기 청소년의 36%가 초등학교 시기에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는 2002년과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가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였는데 각 연도별 초등학교 가출 비율은 <표 II-5>와 같다. <표 II-5>에 따르면 특히 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초등학교 시기의 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 청소년들의 가출 시작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출에 대한 예방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김향초(2009)는 과거에 비해 저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사춘기이며 사춘기의 시작연령이 낮아지다 보니 가출연령도 함께 낮아지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에 대한 보호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출한다면 그만큼 문제행동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저 연령대의 가출 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II -5〉 연도별 초등학교 시기의 첫 가출 비율

(단위: %)

구분	2002	2005	2006	2007	2008
일반 청소년	33.4	30.9	30.9	34.3	38.5
위기 청소년	22.0	27.2	26.3	31.2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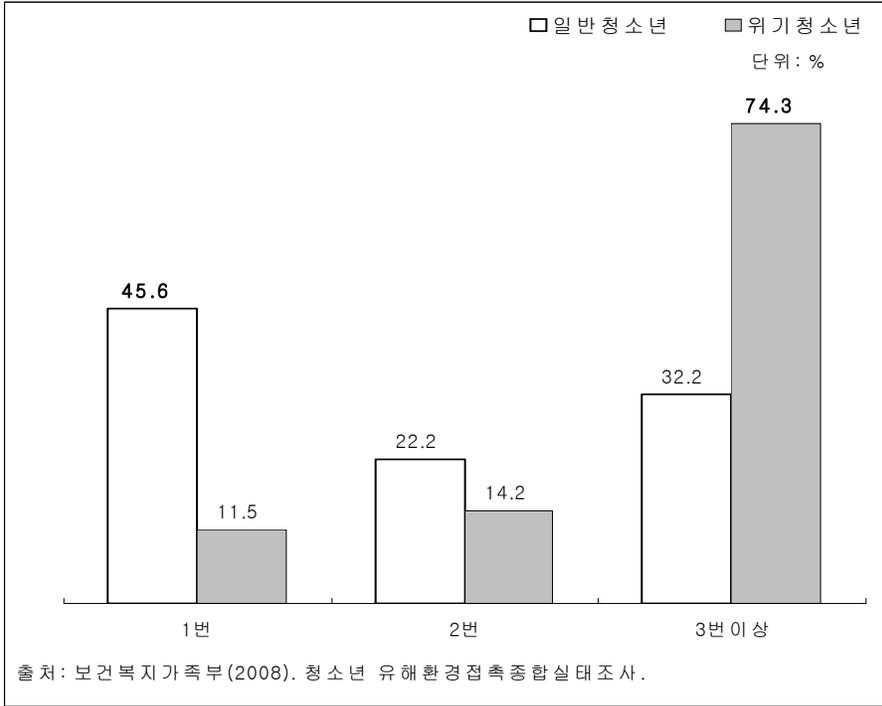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2, 2005, 2006, 2007).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2) 가출의 만성화

청소년 가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출의 만성화, 즉 가출의 장기화와 반복을 들 수 있다. 한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적인 가출을 하거나 재가출을 감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들은 각종 유해환경이나 비행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귀가 후 처벌을 두려워하다 보면 귀가를 미루게 되면서 장기가출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또한 가출 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은 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가출을 하기도 하며, 귀가 이후 엄격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가출했을 당시의 자유로움이 그리워 재가출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 청소년들의 가출 횟수를 조사한 결과, 3번 이상 가출한 경우가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32.2%,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74.3%로 나타났다([그림 II-6]). 이는 많은 경우,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거의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3번 이상 가출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가출의 반복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실시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서도 2004년과 2006년에 비해 3번 이하로 가출한 청소년의 비율(2004, 2006, 2007년에 각각 49.4%, 44.5%, 23.4%)은 감소한 반면,



[그림 II -6] 가출 횟수

6번 이상 가출했다는 응답(2004, 2006, 2007년에 각각 35.6%, 37.6%, 63.7%)은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반복가출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출이 반복되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출시 생존의 요령을 터득하고 가출에 따른 어려움에 익숙해짐에 따라 가출 기간도 함께 길어지면서 가출의 만성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던 [그림 II-4], [그림 II-5]에 따르면 첫 가출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일반 청소년은 5.2%, 위기 청소년은 32.4%이던 것이 두 번째 이상의 가출시 가장 오래된 기간에서는 각각 10.5%와 52.9%로 그 비율이 모두에게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가출 기간이 1~2일인 경우는 첫 가출시 일반 청소년은 51.1%, 위기 청소년은 11.3%이던 것이 두 번째 이상의 가출시 가장 오래된 기간에서는 각각 26.2%와 2.3%로 그 비

율이 모두에게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처럼 가출의 반복은 장기적인 가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가출의 만성화는 그 자체보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들로 인해 더욱 문제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업능력이 저하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김지혜, 안치민, 2006). 또한 가출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지위는 매우 낮아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으며,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각종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김지혜, 2005; 남미애, 홍봉선, 2007; 방은령, 2003).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가출은 반복화되고 장기화되기 쉬우며, 가출이 만성화될수록 가출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은 각종 부적응과 비행 및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 또한 가출의 만성화는 학업중단과 부적절한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방해한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의 만성화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

### (3)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쉼터를 위시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및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가출청소년들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 제공을 비롯하여 상담, 긴급구조, 취업정보 등 이들의 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가출 후 잠잔 곳을 묻는 문항에 일반청소년 0.4%, 위기청소년 5.8%만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전화 1388과 같은 청소년 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 중

2.4%, 위기청소년 중 31%만이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청소년 컴퓨터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 51.7%, 위기 청소년 27.9%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일반청소년 34.4%, 위기청소년 25.7%가 ‘알고는 있으나 장소 및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 47.0%, 위기 청소년 34.6%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일반청소년 38.9%, 위기청소년 29.2%가 ‘알고는 있으나 장소 및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 44.7%, 위기 청소년 34.8%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일반청소년 36%, 위기청소년 26.1%가 ‘알고는 있으나 장소 및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II-6>).

<표 II-6> 청소년 보호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잘 안다	알고 있으나 장소, 이용방 법을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청소년 컴퓨터	일반청소년	13.4	34.4	51.7	0.5
	위기청소년	45.5	25.7	27.9	0.8
청소년 상담센터	일반청소년	13.6	38.9	47.0	0.5
	위기청소년	35.4	29.2	34.6	0.8
청소년 전화 1388	일반청소년	18.6	36.0	44.7	0.7
	위기청소년	37.9	26.1	34.8	1.3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또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그 이유로는 보호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자

유로운 생활이 구속당하고 행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강제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될까봐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김향초, 2009).

그러나 청소년 보호시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장 생존에 필요한 도움 뿐 아니라 거리에서 직면하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 3.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가출의 원인은 크게 성격적 특성이나 정서적 문제와 같은 개인 내적인 측면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들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두 측면의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출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편의상 청소년가출의 주요 원인들을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적 측면

먼저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측면으로는 우울, 불안, 충동성, 자극 추구성향, 정서적 스트레스(김경희, 김지수, 김미진, 정승교, 2007; 배문조, 전귀연, 2002; 정혜경, 안옥희, 2001; 현은민, 2000), 자아개념 및 자존감(김경희 외, 2007; 배문조, 전귀연, 2002; 현은민, 2000), 문제해결행동의 양상(현은민, 2000), 정신병리(이종성, 곽영숙, 2001; van Wormer, 2003)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출충동 예측모형 연구(정혜경, 안옥희, 2001)에서는 반사회적 성격과 우울성향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대구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19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현은민, 2000)에서도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 및 통제성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음주·흡연 행동을 보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해결행동 역시 가출을 야기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등(2007)은 남녀 고등학생 1,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고 자극추구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극추구성향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극추구라는 심리적 욕구를 가출이라는 일탈로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출의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정신병리(이종성, 곽영숙, 2001; van Wormer, 2003)가 꼽힐 수 있는데, 이종성, 곽영숙(2001)은 청소년보호 시설에 수용중인 12~21세의 남녀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이 가출 이전에 다양하고도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들에게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MMPI),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 등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임상수준을 보인 이들은 K-YSR의 경우 95명(83%), SCL-90-R의 경우 42명(36%), MMPI의 경우 70명(69.3%)으로 나타났다. 임상수준을 보인 이들은 크게 주의력결핍장애를 비롯한 행동장애군, 불안/우울과 같은 정서장애군,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화 장애군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영옥(2001)은 청소년 1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경계선 성격특성이란 충동조절능력과 좌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고 정체성의 문제를 겪으며, 부정적 대인관계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성, 물질남용, 금전지출 등과 관련하여 자기손상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2) 환경적 측면

가정, 학교, 친구 등 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가출발생 요인이 되기도 하는 동시에 가출을 막는 보호요인이 되기도 한다.

### (1) 가족요인

청소년들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족은 특히 청소년 가출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써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가족을 가출충동의 제 1요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3%이며, 제 2요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40.2%로 나타났다(<표 II-7>). 또한 가출충동의 제 1요인과 2요인 중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경우는 심리적 요인인데, 심리적 요인이란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가족요인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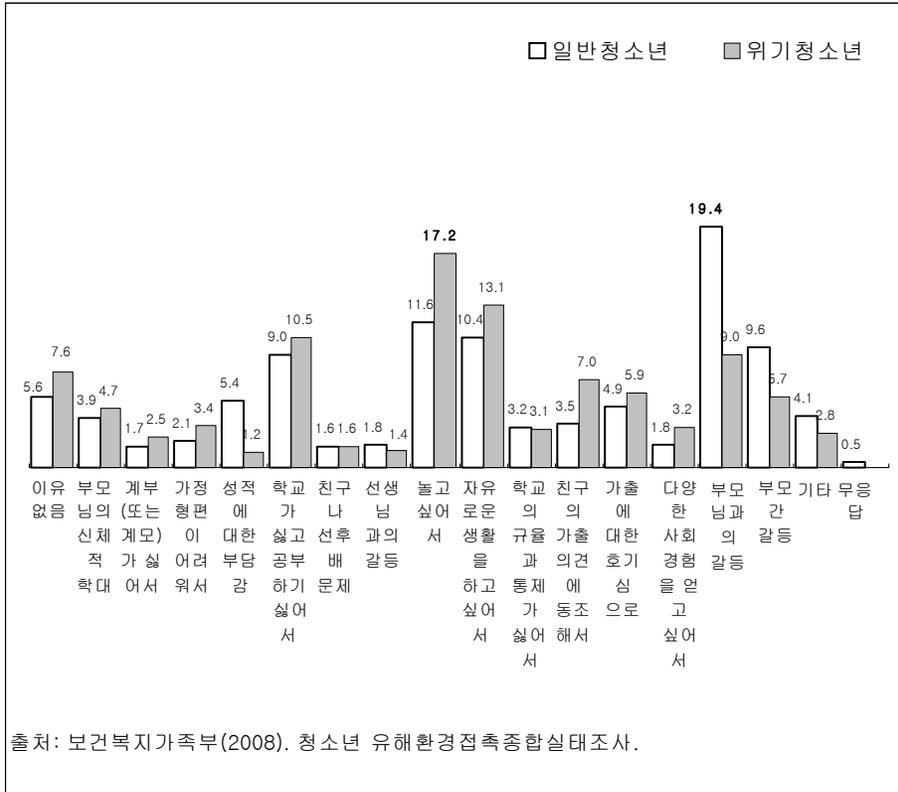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는 부모님의 신체적 학대, 계부나 계모가 싫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

<표 II-7> 청소년들의 주요 가출 원인

(단위: %)

		가족요인	학교요인	친구 및 이성친구 요인	새로운 도전	심리요인	비행요인	기타
06년	1순위	62.6	6.9	4.1	2.5	18.1	.8	5.1
	2순위	37.4	15.8	5.6	9.6	26.2	2.4	2.9
07년	1순위	63.0	5.7	5.7	6.3	15.9	1.7	1.7
	2순위	40.2	6.5	8.8	11.4	29.9	1.6	1.6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그림 II-7] 가출 이유

부모와의 갈등, 부모 간 갈등 등 가족이 가출 요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일반청소년의 경우 36.7%, 위기청소년의 경우 25.3%를 차지하였다([그림 II-7]). 비율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에 비해 크게 뒤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족과 청소년 가출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일련의 선행연구 역시 가족요인은 가출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배문조, 전귀연(2002)이 대구지역 25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 부모의 거부적 태도 및 아동학대, 부모간의 갈등 등 부정적인 가족요인이 많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경기지역 고등학생 610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한 정혜경, 안옥희(2001)의 연구에서도 역시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부모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가출충동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가출충동 예측모형에서 주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은 가출 충동을 높일 뿐 아니라 실제 가출의 빈도를 높이기도 한다. 배문조, 전귀연(2001)은 가족응집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가 가출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낮은 가족응집력과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비가출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일회성 및 상습적 가출집단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 역시 비가출집단보다 상습적 가출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이 가출 충동 및 가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현은민(2000)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집단, 그리고 소득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가출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고 만족하지 못할수록 가출충동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부적응적인 대처행동을 함으로써 실제 이들의 가출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은 청소년들의 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가출을 감소시키거나 종결시키는 보호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출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연구(최태은, 2007)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이들의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적응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가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가출 이전의 위치로 회복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이 청소년 가출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변혜정, 민가영(2007)은 10명의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가족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출 이후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가 있고 그에 따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출이 일주일 이내로 일시적이었으며 이들에게 가출은 한 때의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출 이후의 생활에서도 가족적 자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달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명적”인 행동을 삼가고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정, 특히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가출을 “치명적 손실”이나 “급격한 지위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여 가출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가출의 끝은 크게 두 가지, 즉 중단된 학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기술을 익혀 미래에 대비하는 경우와 성매매 등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그래도 부족하나마 부모의 심리적 지원과 기대, 물질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은 그 질과 정도에 따라 청소년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가출 후 가정이나 친척집으로 복귀하여 재적응한 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현지, 2005)에서도 이들의 복귀에 원조를 제공했던 기관을 살펴 본 결과, 연구대상자 전원이 가족과 친구를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언급은 친척, 교사, 서비스 전문가들(각각 6명, 6명, 7명)보다 빈도가 높았다. 특히 가족과 관련하여 볼 때, 연구대상자 대부분의 가족은 구조적 결손이 있거나 역기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에게 충분한 정서적 의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족은 중요한 시기에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의 재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현지(2005)의 연구와 달리 정경은(2008)의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의 전환을 이루고 가출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지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가족관계가 워낙 역기능적이어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가족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 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가출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족이 주는 긍정적 지원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가출충동 및 행동은 감소하고 가출기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요인이 청소년 가출에 있어서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학교요인

앞서 언급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학교요인도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 학교공부에 대한 거부감, 교사와의 갈등, 학교 규율 및 통제에 대한 거부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이러한 학교요인을 가출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는 19.4%,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16.2%로 나타났다([그림 II-7]).

그러나 학교요인과 청소년 가출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학교요인과 가출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혜경, 안옥희(2001)의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18세 이하 가출 청소년 111명을 대상으로 단순가출과 상습가출 집단을 비교한 이은정(2000)의 연구에서는 첫 가출 이후 학교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상습적인 가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및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상습가출의 단초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청소년들의 가출의 주원인은 가정이며, 학교요인은 부수적인 원인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 (3) 친구요인

친구요인 역시 청소년 가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유해환경정착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친구나 선후배 문제에 의한 가출, 친구의 가출에 동조한 가출 등 친구를 가출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는 5.1%,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8.6%로 나타났다([그림 II-7]). 이와 비슷하게, 역시 앞서 언급한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서도 2007년에 친구 및 이성 친구를 가출의 제 1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5.7%, 제 2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8.8%로 나타나 가족이나 심리적 요인을 꼽은 비율에 비해 훨씬 낮았다(<표 II-7>).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출에 있어서 친구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듯 정혜경, 안옥희(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친구의 여부가 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친구요인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 대구지역 25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배문조, 전귀연, 2002)에서는 비행또래가 많을수록 가출충동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지적하였다. 이은정(2000)의 연구에서도 첫 가출 이후 알게 된 또래의 비행정도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친구 관계의 질보다는 사귀는 친구의 유형이 청소년 가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사귀는 친구의 비행과 가출 경험의 정도는 청소년들의 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친구는 청소년들의 가출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현지(2005)의 연구에서 가출 경험이 있던 연구대상자들 전원은 가정이나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로 가족 뿐 아니라 친구를 언급하였다. 이들의 재가출을 방지하고 가정 및 사회복지에 있어서 친구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조건적인 지지의 근원이며, 비밀 공유자”인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친구는 가출을 감행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가출과 그에 따른 위험을 막는 보호요인도 됨을 보여주었다. 친구가 이들에게 가출의 요인이 될 때에는 친구의 비행정도와 가출 경험 여부가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요인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소결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 학교, 친구 등이 청소년들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가족이나 친구, 교사, 기타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열악할 경우 청소년들은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가출기간 및 횟수가 감소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청소년 가출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할 경우 자신들을 지원해 줄만한 또 다른 체계를 찾아 자신의 공간 밖으로 나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지(2005)는 그의 연구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으로부터의 지지와 보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지와 보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4. 가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가출은 가출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차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이 절에서는 가출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건강상의 문제

경제 및 자립적 활동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은 가출을 할 경우 아무래도 숙식문제에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가출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1.6%와 27.2%가 “잠잘 곳이 없을 때”를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였으며, 18.4%와 12.6%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를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였다(<표Ⅱ-8>). 또한 가출 생활 중 가장 어려운 때에 대한 응답을 비율 별로 보면, “잠잘 곳이 없을 때(31.6%)”가 1위였으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18.4%)”는 “용돈이 없을 때(24.6%)”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표 Ⅱ -8> 가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울 때

(단위: %)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	잠잘 곳이 없을 때	용돈이 없을 때	외롭거 나 불안할 때	범죄피 해를 당할 때	아플 때	가족이 찾지 않거나 가족이 보고싶 을 때	아르바 이트 구하기 어려울 때	절도, 성매매 강요	기타
1 순위	18.4	31.6	24.6	8.4	1.2	3.2	3.2	6.9	1.0	1.5
2 순위	12.6	27.2	21.1	9.7	1.4	8.3	5.4	10.6	2.4	1.4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11.4%가 아파트 옥상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가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숙식 해결임을 보여주었다.

가출청소년들이 숙식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를 보일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윤현영, 권순중, 황동아(2007)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의 저체중 비율은 6.6%인데 반해 가출 청소년의 저체중 비율은 34%에 달하며, 특히 14세 이하 가출청소년의 저체중 비율이 42.7%인 것으로 나타나 가출 청소년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직장 채용검사에 의한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5.1%가 빈혈, 피부질환, 간질환 등으로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인적자원부(2004)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질검사에서 주의자가 1.08%인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남녀 가출 청소년들은 숙식해결을 위해 혼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숙식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 그에 따른 성관련 질환에 감염될 위험도 높다. 남미에(1998)의 연구에서 여자 가출 청소년 190명에 대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2%가 성관계를 경험하였으며, 22.6%가 성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의하면 가출 전·후 이성과 성관계 경험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출 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5%였으며 가출 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가출 전·후 성관련 질환에 걸린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가출 전 질환이 있었던 청소년은 6.6%였으나 가출 후에는 11.3%로 증가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가출이 장기화되면 건강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출한 상황에서는 각종 질병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들은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신체상의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서도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미애(1998)의 연구에서 여자 가출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3%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산만한 행동을 하거나, 우울 및 대인기피 경향, 강박적 사고 및 행동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살펴 본 결과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11.1%에 불과하였으며, 53.2%는 부정적으로, 35.8%는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가출 후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응답은 61.4%로 나타났으며,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31.1%로 나타나 가출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이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가출 이후에 나타난 문제로만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가출 이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 경우가 많아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정신적 문제는 가출 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비행 및 범죄 관련 피·가해 경험의 증가

가출청소년은 학교나 가정 등으로부터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만큼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기회가 많아진다.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서는 가출 전·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이전에도 문제행동 경향을 보였지만 가출 후 그 경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에서 보듯이 가출 후 문제행동 경험비율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

<표 II -9> 가출 전·후의 문제행동 경험

(단위: %)

	폭행	돈 뺏기	절도	흡연	음주	약물	성인 유혹 업소 출입	음란 매체	혼숙	성 관계	성매 매	성질 환
가출 전	41.4	37.9	48.1	59.2	63.3	7.9	18.7	43.5	26.0	23.5	5.8	6.6
가출 후	48.0	52.5	55.6	73.3	72.7	9.1	25.1	41.7	39.1	35.9	11.3	11.3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이 있는 성관련 문제행동 및 흡연에 있어서는 가출 전에 비해 가출 후의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출 후에는 과반수 이상이 돈 뺏기와 절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각 문제 행동의 빈도에 있어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출 전보다 후에 더 높아져 가출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표II-10>).

김지혜(2005)는 285명의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의 비행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가출 기간과 비행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출 기간 자체가 이들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가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적 방임이나

<표 II -10> 가출 전·후의 문제행동 경험 (일주일에 3번 이상)

(단위: %)

	폭행	돈 뺏기	절도	흡연	음주	약물	성인 유혹 업소 출입	음란 매체	혼숙	성 관계	성매 매	성질 환
가출 전	4.2	5.1	4.0	37.2	19.1	.9	2.5	3.8	3.1	3.2	1.2	.3
가출 후	8.6	14.6	11.3	53.4	28.5	1.8	5.3	6.6	9.9	7.1	2.3	1.2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범죄 피해, 부당한 노동조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 경험과 비행집단과의 교류 등이 증가하면서 점차 비행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비행 집단과의 교류는 그 영향력이 매우 강력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첫 가출 이후 알게 된 또래의 비행정도가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은정(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가출청소년들은 비행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로써, 최근 보도자료(매일신문, 2009.4.1)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가출청소년을 감금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연성진, 민수홍(2004)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경험 청소년 중 25.4%가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고 24.7%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 중 25.6%는 금품 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42.1%는 심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추행이나 강간의 피해경험이 있는 이들이 21.1%로 나타나 가출청소년들의 범죄 피해 경향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가출 후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일반청소년의 경우 5.0%, 위기청소년의 경우 17.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16.5%가 아르바이트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7.2%는 일터에서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각각 7.5%와 6.6%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이 앞선 연구들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가출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요약하자면 청소년들은 가출 이후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보호와 감독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동시

에 범죄나 비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들의 삶은 일반적인 발달궤도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이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 3) 교육 기회의 상실

가출청소년들은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 학업에 대한 생각은 뒷전으로 미루기가 쉽다. 따라서 모든 가출청소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가출을 전후하여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김지혜(2005)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 285명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86명(30.2%)이었으며, 대안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 31명을 포함, 199명(69.8%)은 정규학교를 중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331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정익중, 2006)에 따르면, 이들 가출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39.4%, 다니지 않은 이들은 60.6%였다. 이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6년 당시 통계청 자료(통계청,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각각 99.9%와 99.7%였으며 학업중단비율은 중학교 0.7%,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각각 1.2%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학률 및 학업 중단 비율과 비교할 때 가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에 따르면 첫 가출 직전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는 6.6%, 학교를 자퇴한 상태는 17.5%인 반면, 74.7%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출하기 이전에 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재학 비율을 김경준 등(2006)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재학비율(39.4%)에 비추어 볼 때, 학업 중단 비율은 가출 전보다는 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가출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에 의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학업중단 기간 역시 장기화되면서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결국 가출로 인한 교육기회의 상실은 이들의 취업능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실업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모든 가출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경준 등(2006)의 연구에서 39.9%는 복학 경험이 있거나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은 복학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이 귀가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해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이 각각 2.6%, 10.1%, 교사의 차별대우라는 응답은 각각 4.3%, 4.1%, 친구들의 편견이라는 응답이 각각 5.6%, 1.9%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복귀 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의 비율이 각각 12.5%와 16.1%로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들이 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복귀 뿐 아니라 복귀 후 학교적응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Ⅲ. 국내외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및 기관 현황

1. 국내 정책 및 기관 현황
2. 국외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



### Ⅲ. 국내외 청소년 가출 관련 정책 및 기관 현황

#### 1. 국내 정책 및 기관 현황

##### 1) 가출청소년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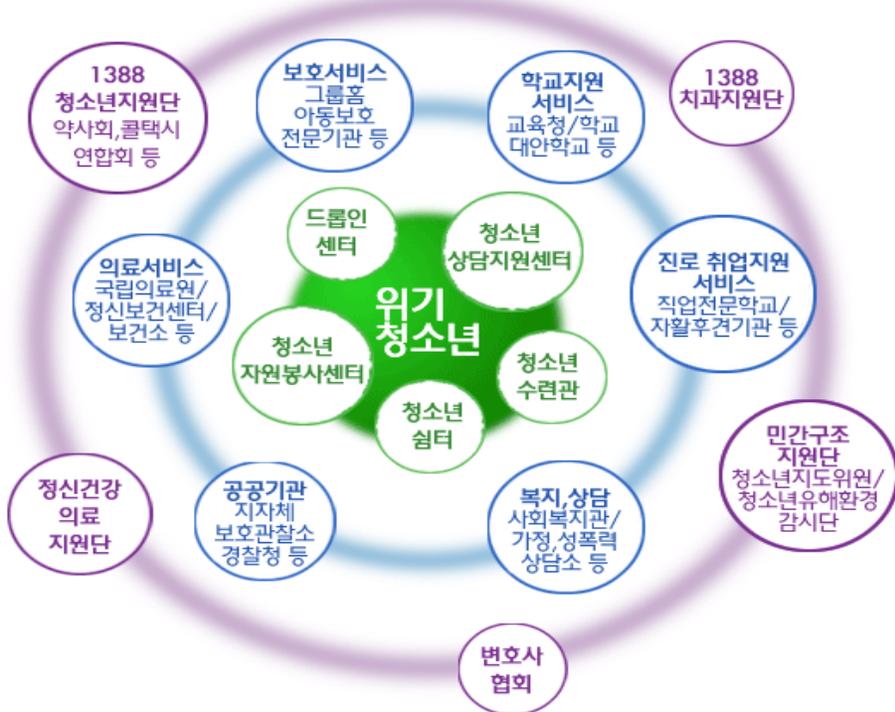
국내 가출청소년 지원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며, 주요 관련 정책은 크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가출예방 및 쉼터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sup>4)</sup>.

#####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허브(HUB)역할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상담을 통해 의뢰된 요구 및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Ⅲ-1]). 이곳에서 실시하는 지원내용으로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원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를 포함한다. 즉 가출 청소년이 상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는 그 청소년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YS-net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기개입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과 보다 많은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구조서비스, 일시 보호 서비스, 학습·자활·직업훈련·의료 등의 연계

4) <http://www.mw.go.kr>; <http://1388.kyci.or.kr>(검색일: 2009. 5. 21)

○ 청소년위원회 지원기관 ○ 지역사회 연계기관 ○ 민간단체 연계기관



[그림 III-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도

자료: <http://1388.kyci.or.kr>(검색일: 2009. 5. 21)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청소년 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안은정(2008)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영국의 위기청소년 정책인 커넥션즈 사업 간의 비교연구에서 CYS-net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지원센터는 시·도와 시·군·구로 나누어 설립되어 있긴 하지만, 그 성격에 차이가 없으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자원의 확보 및 내부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저자는 먼저 시·도 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 상담센터의 역할을 나누어 전자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청소년동반자 연수훈련 및 관리 등을 전담하는 한편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은 후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로는 얼마나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2007년도의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 2007)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경우 도움 요청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상담센터와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38.6%와 40.4%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센터와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장소 및 이용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31.8%와 28.6%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안다는 응답은 29%와 30.3%에 지나지 않아 기관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능)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과 일대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서적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숙식·교육·의료·보건·법률·여가·직업훈련·취업 등의 생활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학습체험·체육·문화체험·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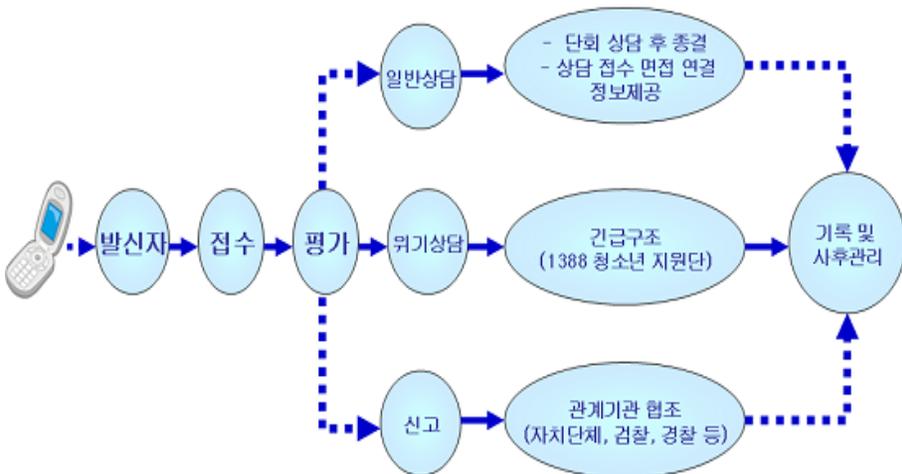
그러나 청소년 동반자로 일하는 상담전문가는 500여 명 정도로 그 규모가 작다. 뿐만 아니라 이 중 86%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주당 12시간 근무에 월 70만 원 정도의 질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국민일보, 2008. 10. 26). 최근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동반자 프로그램에 23억 원을 배정, 청소년동반자가 800명 정도 더 충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으나(파이낸셜 뉴스, 2009. 3. 23), 양적인 확대에

앞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가출 청소년 전문가보다는 이제 막 현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초보자들이 동반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동반자는 가출청소년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전화 1388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전화를 걸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43개 지역에서 전문상담사와 연결이 되어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



[그림 III-2] 1388 청소년전화 모형

-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폭력, 가출, 학대 등의 위기 상황에서 긴급구조가 필요하다면,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구조 및 보호 서비스 활동도 가능하다([그림 III-2]).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도의 자료(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는 이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음 시사한다. 즉,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 잘 안다는 응답은 30.3%였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40.4%, 알고는 있으나 장소 및 이용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역자원의 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특히 심야시간대의 긴급구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청소년 가출예방 및 청소년 쉼터 지원 및 평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청소년 쉼터 지원정책은 가출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원정책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직면한 위기상황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일상생활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홍보, 민간협력사업 추진,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쉼터는 일시 쉼터 9곳, 단기 쉼터 45곳, 중장기 쉼터 25곳으로 총 79개소이다(<표 III-1>).

또한 정부는 2005년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맞추어 2006년 29개소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는 전년도에 평가를 받은 쉼터를 제외한 2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쉼터에 대한 평가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아 정부의 지

〈표 Ⅲ-1〉 청소년 쉼터설치 현황

지역	일시	단기	중장기	계
서울	2	6	5	13
부산	1	2	1	4
대구	-	2	1	3
인천	1	2	2	5
광주	1	2	1	4
대전	2	2	1	5
울산	-	2	1	3
경기	2	13	3	18
강원	-	2	2	4
충북	-	2	1	3
충남	-	2	1	3
전북	-	1	1	2
전남	-	2	1	3
경북	-	2	1	3
경남	-	2	1	3
제주	-	1	2	3
계	9	45	25	79

원을 받는 모든 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아쉬운 상황이다. 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각 쉼터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 (5)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및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제도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별지원 대상은 가출이나 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학교·사회복귀가 필요

〈표 III-2〉 청소년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소득 수준

지원 종류	가구별 소득수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	최저생계비의 120/100	555,656	941,182	1,231,923	1,519,017	1,785,453	2,054,623
2	최저생계비의 150/100	694,570	1,176,478	1,539,904	1,898,772	2,231,817	2,568,279

1: 생활지원, 건강지원

2: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기타지원

한 청소년, 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과 같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이다(〈표 III-2〉).

그러나 현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사업이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를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 쉼터거주 청소년 등 가구의 소득인정과는 거의 무관한 상태에 놓인 가출청소년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직접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폐지하려는 쪽으로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개선책이 통과된다면 가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현장에서 가출 청소년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두 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청소년 쉼터

우리나라의 청소년 쉼터는 1992년 YMCA 청소년 쉼터가 설치·운영되

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쉼터는 일시 보호시설로 가출 청소년들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상담을 통해 이들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고 학교적응을 돕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후 가출 청소년의 예방 및 선도를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청소년 쉼터 지원을 시작하였고, 단기 쉼터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법적 정의는 “가출 청소년의(대상) 일시적인(보호기간) 생활지원과 보호(서비스), 가정·사회로의 복귀(단기목표),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중장기 목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시설 유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전국의 청소년 쉼터는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고 있다. 각 유형별 쉼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5)</sup>.

일시쉼터는 2009년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기지역에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과 일정한 곳에 설치된, 이른바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라고도 하는 고정형 쉼터로 구분된다. 일시쉼터의 운영목적은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하며,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쉼터의 표적대상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끊어지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 및 배회 청소년, 이른바 “거리 청소년”이며, 일시쉼터의 성격은 보호보다는 시설이용의 측면이 더 강하여 일반 청소년들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의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시쉼터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1) 청소년의 가출 및 가출 장기화의 예방을 위해 사회성 향상지원, 정서지원, 거리상담과 같은 조기개입, 2)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음식 및 피복 제공, 위생 및 의료 서비스, 휴식 제공, 거리위험대처 교육 등과 같은 현장지원, 3) 청소년을 사회체계와 연

5) 청소년 쉼터에 대한 설명은 2009년 청소년 쉼터 운영지침(보건복지가족부, 2009)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결하기 위하여 취업, 진로,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각종 서비스 정보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 교육과 같은 연계활동 등이다.

단기쉼터는 2009년 현재 전국에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들을 주 대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기쉼터의 운영 목적은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쉼터의 표적대상은 가족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가출

<표 III-3> 청소년 쉼터의 유형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기간	24시간 이내 일시 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 보호	2년 내외의 중장기 보호
이용 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 특별지원 가출 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 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 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 공 등	- 가출청소년 문제해 결을 위한 상담·치 료서비스 및 예방활 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지 를 위한 가출 청소 년 분류, 연계·의 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 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을 대상으로 전환 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 이동형: 차량 - 고정형: 청소년유동 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출처: <http://www.mw.go.kr>; (검색일: 2009. 5. 27)

청소년이다. 단기쉼터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쉽고 가출청소년 밀집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입소 정원은 25명 내외로 하되 남녀 청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며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1) 의식주 제공, 의료 및 법적 지원, 정서 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등과 같은 보호 2) 가족상담 및 지원, 귀가지원과 같은 가정복귀 지원, 3)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 및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지원을 포함한다.

중장기쉼터는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 자립 의지와 동기가 있거나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을 주 대상으로 2009년 현재 전국에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장기 쉼터에서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치위치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쉽고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거지역이어야 하고 입소정원은 7~10명 이내로 하되 남녀 청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하며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1) 의식주 및 경제생활관리, 건강관리, 문화체험활동과 같은 기초생활 관리 서비스, 2) 직업능력평가, 취업 준비 및 훈련, 취업지도와 같은 직업지원서비스, 3) 검정고시준비,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지원, 개인학습지도, 학비지원과 같은 학업지원서비스, 4)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별사례관리, 사례회의와 같은 상담서비스를 포함한다. 중장기 쉼터는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기관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으로 학업 및 생활지원, 상담 서비스 등은 이를 위한 보조영역이라 할 수 있다.

쉼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쉼터 생활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경우 8.9%의 청소년만이 전혀 또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25.9%, 다소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65.2%로 나타났다. 일시쉼터

〈표 Ⅲ-4〉 청소년 쉼터의 정원

정원(명)	쉼터유형			합계
	일시	단기	중장기	
1-4	0(0)	0(0)	0(0)	0(0)
5-9	0(0)	3(6.8)	17(68.0)	20(26.0)
10-14	3(37.5)	15(34.1)	7(28.0)	25(32.5)
15-19	2(25.0)	23(52.3)	1(4.0)	26(33.8)
20 이상	3(37.5)	3(6.8)	0(0)	6(7.8)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10.5%만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과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각각 23.1%, 65.4%로 나타났다.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의 동시 수용인원은 〈표 Ⅲ-4〉와 같다. 중장기쉼터의 경우는 5~9명 정도의 정원을 가진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 쉼터의 경우는 15~19명 정도의 정원을 가진 곳이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인원수로 환산해 보면,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에서의 동시 수용이 대략 1,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지어 2007년 한 해 동안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모두 228,08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는 17만 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그러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중장기 쉼터는 모두 25곳이며, 수용인원은 250명 내외로 이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출이 만성화되고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은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그룹홈에 들어간다 하여 그 곳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sup>6)</sup> 이들을 위한 전문적 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6) 청소년 중·장기 쉼터와 그룹홈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룹홈과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그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그룹홈 거주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해 왔으며 경제적 문제나 부모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문제로 그룹홈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정규학교에 다니고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은 반

일선 쉼터관계자들은 쉼터 운영의 어려운 점들로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의 연계 부족, 쉼터 근무자의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을 꼽고 있다. 단기 쉼터는 3~6개월이라는 거주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이곳에 적응하여 어느 정도 생활의 틀이 잡힌 청소년들 중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이들은 몇 개월 후 중·장기 쉼터로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중·장기 쉼터라는 새로운 환경에 또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곳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리로 되돌아가 생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쉼터 관계자들은 단기와 중·장기 쉼터의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쉼터 간의 상이한 규칙이나 목표, 운영 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혼란을 막아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쉼터 근무자의 낮은 처우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2007년 쉼터근무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56.6시간으로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하여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게다가 월 숙직이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0.8%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금의 측면을 보면, 직원 연봉의 평균은 1,343만원(소장 및 부장의 평균 연봉은 약 1,447만원, 과장·선임·상담원의 평균 연봉은 약 1,350만원, 행정원·조리원의 평균연봉은 약1,175만원)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4인 기준 가족 최저생계비(약 월 1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문제 및 돌발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쉼터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노동강도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노동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열악한 처우는 직원의 이직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쉼터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5.3개월로 2

---

면,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오랜 방임과 가출로 인하여 학교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고 문제행동의 정도도 높아 보다 집중적인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년이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을 직접 상대하는 실무자들의 높은 이직률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초보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은 컴퓨터 운영방식이나 청소년들과의 관계 형성 및 지도에서의 미숙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초보실무자들에 대한 빈번한 연수 및 훈련에 따른 비용을 높여<sup>7)</sup>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특성 파악과 대처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모두 146개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안전망의 관문을 표방하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수행의 허브(HUB)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가출청소년을 비롯한 위기 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별도의 공인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직영하거나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지원, 위기지원 및 자활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상담지원업무로는 청소년 및 부모상담, Help Call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지원 등이 포함되며, 위기지원업무로는 긴급구조와 보호시설·의료·법률 서비스 연계,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활지원업무로는 진로지도, 직업능력 향상 및 소개와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특히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하여금 1388 청소년지원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7) 물론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연수도 필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비용은 초보자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 구조나 일시보호 업무 영역 등에서 가출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활동하는 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더구나 업무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지원센터와 쉼터 간 가출청소년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국내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과 보완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일부 만성적인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위한 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출 초기이거나 가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디서 어떠한 지원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상담센터와 청소년 전화에 대해 아는 청소년이 1/3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거리생활을 하는 등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가출청소년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자립생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낮추고 노숙자나 범법자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가출자나 가출 위험군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보호체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출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장 실무자들의 경우 노동강도는 높은데 비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

원 평균 임금이 4인 기준 가족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더더욱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들을 상대하는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를 곳곳에 배치하고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실무자들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이들이 가진 오랜 경험이 전문적 지식으로 변화되고 쌓이는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재정리와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으로 CYS-net을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CYS-net과 CYS-net 수행의 허브(HUB)기관을 맡고 있는 상담지원 센터의 경우, 가출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이다 보니 가출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가출청소년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쉼터와 상담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중복될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에 따라 가출청소년 및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대상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대상 선정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는 원가족의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가출청소년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외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sup>8)</sup>

서구의 몇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의 가출예방 및 이들을 위한 대책을 수집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외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sup>9)</sup>

### 1) 국외 가출청소년 정책 사례

#### (1) 미국의 가출청소년 정책

미국에서는 1980년에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출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지지 서비스 공급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틀이 제공되었다. 특히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전환적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홈리스 청소년을 위해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즉 기술 습득, 직업 훈련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1974년에 제정된 가출청소년법을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으로 개정한 것인데, 이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려져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은 가출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가족에 기초한 서비스와 길거리에 기초한 서

8) 이 절은 외부 집필자(정경은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

9) 우선 외국에서는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가출청소년, 즉 runaway youth보다는 홈리스(집없는) 청소년이라는 homeless youth를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가출관련 정책을 살펴볼 때, 가출 외에 청소년 홈리스 관련 정책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이해를 도울 수 있기에 본 절에서는 가출과 홈리스에 관한 정책을 함께 고찰하고 있다.

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향초, 2002; The Runaway and Homeless Act 참고). 가정에 기초한 서비스는 사례관리, 가족상담, 생활능력 향상 및 자녀양육 관련 훈련,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리에 기초한 서비스는 거리에서의 위기조정과 상담, 거주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개, 생활변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 각종 질병·성·폭행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예방활동 등을 포함한다.

개정된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비스 수혜 연령을 21세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며 성인으로써의 독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전환적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가출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각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예로써 뉴욕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시의 청소년지역사회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DYCD)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여 비주거 프로그램과 주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프로그램의 범위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편 지원받는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의 주된 목표는 가출 예방과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는 것이며, 정부의 자금지원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드롭인센터, 위기쉼터, 거리 아웃리치, 생활전환서비스 및 생활전환주거시설 등이다.

첫 번째, 드롭인센터는 우리나라의 일시쉼터와 유사한 곳이며 이곳에서는 홈리스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상담, 중재, 건강, 정신 건강서비스, 물질남용치료와 관련한 지역자원 연계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시설은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 활동하는 지역코디네이터들의 중요한 목표는 건강하게 발달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족들을 돕는 것이다. 또한 공공교육기관

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출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 쉼터 프로그램(Crisis Shelter Program)은 우리나라의 단기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핵심 프로그램은 음식·쉼터·의복을 포함한 응급서비스, 수급서비스, 개입상담, 건강지원, 교육서비스, 주거 시설 원조, 법률 원조, 레크리에이션 활동, 물질남용교육과 예방, 이동서비스, 폭력 개입과 예방상담, 가족 중재 등이다. 세 번째, 거리아웃리치는 드롭인센터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한 거리 아웃리치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밤에 주로 모인다고 알려져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집중제공하고 있다. 거리아웃리치 담당자는 가출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고, 자원·자료·의뢰를 제공하며, 청소년을 그들의 가정, 또는 쉼터나 기타 안전한 환경으로 데려다 준다. 아웃리치 서비스는 일주일에 7일,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전환적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sup>10)</sup>은 다른 기관으로의 의뢰, 지지 서비스, 현장 상담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협동적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일시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가족과 재결합할 수 없지만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지적 환경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즉 최대 18개월까지 전환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곳의 핵심적인 프로그램 요소는 접수/오리엔테이션(Intake/Orientation), 사정(Assessment), 상담(Counseling),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비밀보장, 퇴소/사후서비스, 보안과 안전이다. 또한 음식·쉼터·의복을 포함한 응급서비스, 권리(수급권) 서비스, 의료와 정신 건강 케어, 치과진료, 기본기술테스트, 면제 시험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개인·집단을 위한 장기간 상담, 독립생활과 생활기술 훈련, 고용기술 훈련, 고용준비와 훈련 등도 핵심 프로그램 요소에 포함된다. 또한 HIV테스트와 교육, 주거 시설 원조, 레크리에이션 활동, 물질남용교육과 예방, 폭력 개입과 예방상담, 부모역할 기술 훈련, 주거시설 밖으로의

10) 전환적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에는 생활전환주거시설 제공이 포함되며, 비주거 생활전환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동 프로그램과 서비스, 퇴소 전 영구주거시설 입주를 위한 주거시설 원조와 의뢰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자립적 요소가 강조되면서 뉴욕주의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Th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OCFS), 복귀서비스 파트(Division of Rehabilitative Services)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들과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독립 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4개의 모듈과 각 모듈마다 2개의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자원개발, 이동기술, 고용기술, 자금관리, 주택 및 가정 관리, 건강한 삶, 미디어 인식, 부모되기 기술 등의 총 8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뉴욕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전환적 독립생활 프로그램의 유형에 있어서도 지지적 주거(supported residence), 집단 주거(group residence), 비주거(non-residential)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 2007). 지지적 주거 서비스는 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파트 등의 독립된 공간에 살면서 전문가의 밀착된 감독을 받는 형태이며, 집단 주거 서비스는 20여명의 청소년들이 같은 주거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비주거 서비스는 거주시설에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서 거주 서비스 이외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청소년 홈리스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Pope(2009)는 청소년 홈리스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하우스 모델(Housing Model)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은 단지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쉼터를 나온 이후에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지 선택에 실패하며, 15%의 청소년들이 6개월 이상을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 지원을 요구하고

〈표 III-5〉 독립 생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모듈

모 듈	주 제	내 용
모 듈 1	-지역사회 자원 개발 (Developing Community Resources) -이동 기술 (Transportation Skills)	- 개인적 쟁점(issues)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지역사회 자원 규명 -지역사회 건강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배우기 -스케줄과 지도를 보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중 교통과 친숙해지기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감 배우기
모 듈 2	-고용 기술 (Employment Skills) -자금관리 익히기 (Learning to Manage Money)	-일의 세계에서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직업 진입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학습 -다양한 구매방법 공부하기 -일주일 단위의 예산 관리 방법 익히기
모 듈 3	-주택 및 가정 관리 기술 (Housing & Home Management Skills) -건강한 삶 (Healthy Living)	-거주지 선택 시 고려할 점 배우기 -임대와 관련된 비용 작성하기 -인간의 생식과정 재검토하기 -성교육 관련 용어 정의 및 재검토 -성행동 남용 문제 검토
모 듈 4	-미디어 인식 (Media Awareness) -부모되기 기술 (Skills for Parenting)	-미디어 소양에 대한 핵심 구성 배우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다양 성 살펴보기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기본적 핵심 기술 익 히기 -아동 발달의 다양한 단계 이해하기

있기 때문이다(Pope, 2009). Pope가 소개하고 있는 청소년 하우스 모델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근간한 서비스로써, 구체적인 옵션의 목록이 나와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 의존이나 거리생활로부터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점진적 준비와 관련하여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하우스 모델은 공동생활가정(Community-based group homes)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가정(Host home)<sup>11)</sup>→주거지 공유(Shared Houses)→감독형아파트(Supervi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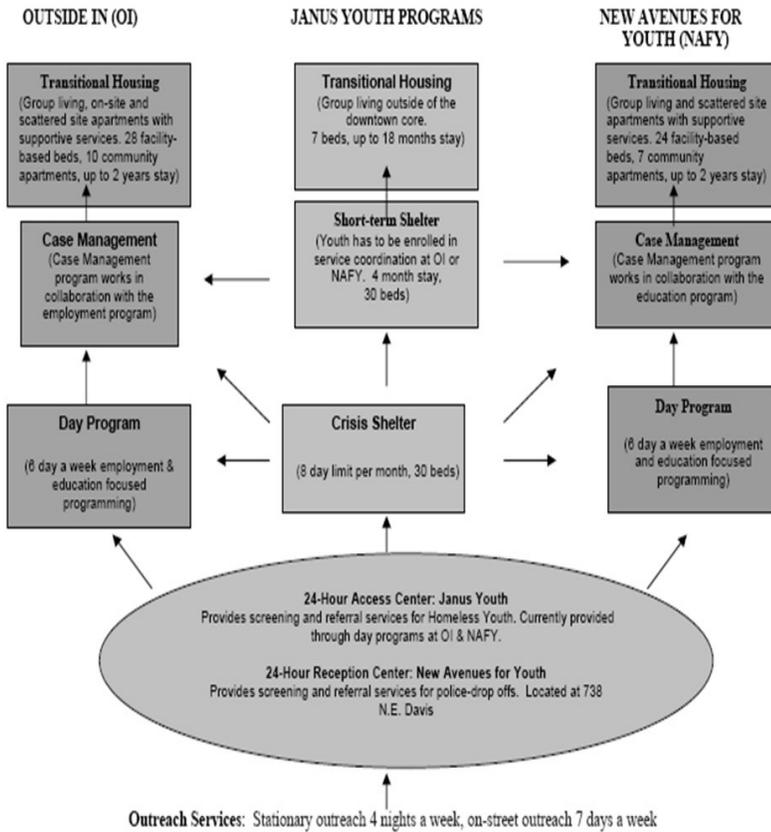
11) 여기서 말하는 공동가정은 우리나라의 group home과 매우 비슷한 개념이다.

Apartroups)→흩어져 있는 아파트(Scattered-Site Apartroups)→자기 스스로 임대한 주거(Own lease)의 순서로 체계적인 주거지원을 강조하고 있다<sup>12)</sup>. 모델에 이어 주거 청소년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장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와 연결하며, 청소년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특별하고 시간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개발 (2) 청소년을 위해 현존하거나 혹은 새롭게 개발된 주류사회 내에 적절한 주거지 사전에 마련하기, (3) 청소년을 지역 보호 계획의 연속체와 실행과정 안에서 적절한 거주지의 소비자로써 통합하기, (4) 청소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곳에 주택 자원 제공하기, (5) 청소년의 재능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홈리스 청소년의 특별한 욕구에 대해 집주인 교육시키기 등이다.

미국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흩어져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가 [그림 III-3]의 포틀랜드 모델(Potland Model)이다. Multnomah County와 그 지역에 있는 개별기관 세 곳과의 협력모델인 포틀랜드 홈리스 청소년 연속체는 최선의 실천을 행하는 매우 우수한 국가적 모델이다. 모델을 수립하기 전에는 비영리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개별기관 중 하나인 Potland's Outside In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서비스 전달체계와 결과가 통합되지 못하면서 대두되는 책임성 결핍 등의 문제로 인해 1998년 County 지원의 홈리스 청소년 서비스들이 재설계되면서 자료 수집체계가 공유되고 서비스가 통합되는 형태를 지닌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연속체가 만들어졌다. 2003년 그 연속체는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수정하였다. 현재, 홈리스 청소년 서비스 연속체는 거리로부터의 안전, 기본적 욕구 충족에 대한 지원, 청소년들이 거리를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세 기관들은 다음에 언급되는 것들을 통합하였다.

12) 이 부분은 미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Pope가 주장하는 주거모델은 아직 시행 전인 모델이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Portland Homeless Youth Continuum



[그림 III-3] Portland 홈리스 청소년 연속체

- 집중된 분류 과정: 모든 파트너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분류
- 모든 기관에게 적용할 수 있고 시스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집중 데이터베이스
- 목표, 방법,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최고의 실천 철학
- 중독과 정신 건강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의 포괄적인 연속체

연속체의 기본적인 목표는 (1) 13~2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별과 의뢰 서비스 및 거리로부터 안전한 장소 제공, (2) 지지적 교육과 고용 서비스를 지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의 전환, (3) 청소년의 경제 자립과 독립적인 삶 성취 지원, (4) 연속체를 통해 알콜과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의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이용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속체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는 음식이나 쉼터와 같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 건강관리, 사례관리와 멘토링, 교육, 직업훈련, 노동경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County는 홈리스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소로 위기개입, 거절 없는(24시간 가능한) 안전한 긴급 거주지 제공, 욕구구명을 위한 사정과 선별, 집·학교·직업 훈련·기관들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멀티시스템 서비스,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가능한 알콜과 약물 치료, 시스템(예: 경찰, 아동복지)에 의해 조정되는 성적 학대 상황, 홈리스 청소년을 서비스로 이끄는 아웃리치, 위탁 서비스와 쉼터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제공하고 있다.

포틀랜드 홈리스 청소년 연속체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서비스가 모델이라는 우리 속에 갇혀있거나 과거의 지침들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새롭고 희망을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든 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프로그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 (2) 영국의 가출청소년 정책

영국 홈리스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75%가 35세 이하로 과거에 비해 청년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등 청년 혹은 청소년 홈리스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의 홈리스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이들에 대한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홈리스 주거지원과 사회적 포섭 연구모임, 2004). 1980년대에 거

리의 홈리스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1990년부터 노숙자 대책(the Rough Sleepers Initiative)을 시작하였다. 이 대책은 아웃리치 서비스를 확대하고, 호스텔 숙소의 확대 뿐 아니라 호스텔 생활과 독립생활의 중간단계 형태인 ‘move on’ 단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재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책으로 런던의 경우 노숙자의 규모를 전체의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데까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996년에 개정된 주거법은 홈리스들에게 2년까지 임시주거지의 제공, 사회공공주택으로의 등록, 이들을 위한 상담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노숙자 우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숙자에 대한 아웃리치와 재정주(再定住) 지원, 호스텔 제공, 야간쉼터(Night Shelter), 민간 주택이나 주택협회의 영구주택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노숙자 대책실의 노숙자 지원전략으로는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침상 수를 늘리고 영구주택을 확보하며, 회전쉼터(rolling shelter)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전쉼터는 런던의 빈건물을 활용하여 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숙자가 건물로 진입하는 1단계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문가를 포함한 아웃리치 팀, 즉 CATs(Contact and Assessment Teams)를 개설, 사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고, 알콜·약물·정신 장애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 50인을 채용한 특별팀을 설치하였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젊은 층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연락을 중개하는 긴급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정보시스템 모니터를 개발하여 호스텔의 결원 정보와 장기 노숙자의 데이터베이스인 ‘아웃리치 안내서’를 연결시키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홈리스주거지원과 사회적 포섭 연구모임, 2004).

보다 최근인 2005년 3월에는 청소년 홈리스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홈리스 전략은 ‘지속적 공동체’, ‘안정된 가정’, ‘삶을 변화시키는 것’ 등인데, 지방정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홈리

스가 된다는 인식 아래 정부, 지역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핵심전략은 (1) 조기 규정과 개입을 통해 홈리스가 되기 쉬운 청소년의 예방, (2) 보다 확장된 지원 욕구를 충족하고 거주지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거주지에 있는 청소년과 홈리스 청소년의 지원, (3)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확보)하기 위하여 임시 거주지와 고정 거주지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의 전환 관리 등이다.

영국정부가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서비스들은 지난 5년 동안 법률적, 정책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보다 주목할 것은 국가적 수준에서 홈리스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영국의 4개 지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sland) 중 3개 지역(England, Scotland, Wales)에서 우선필요집단(priority need groups)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책과 법률의 변화가 청소년의 거주지원과 기타 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홈리스 청소년들이 언급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Quilgars, Johnsen, & Pleace, 2008).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영역으로 예방 서비스, 일시적/전환적 거주 서비스, 지지적 독립 주거지 서비스, 건강 서비스, 교육·고용·훈련 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특히 예방서비스의 영역 가운데 가족중재는 최근에 눈에 띄게 확장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전문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전문가의 참여와 관련된 예로는 Swansea's BAYS project를 들 수 있다. Swansea에서는 16~21세 청소년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여 이들 청소년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하고 거주체계를 지원하며, 홈리스 청소년 예방을 위해 학교와 연계를 맺는다. 또한 16~17세에 해당하는 홈리스 청소년들 중 아동보호 법률이 필요한 아동으로 간주되는 청소년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주거에 대한 사정을 받게 된다. 한편 18~21세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기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세밀한 지식을 지닌 거주지 선택(Housing Options)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가족중재의 예로는 Edinburgh's Amber project와 Lambeth's Family Support Service를 들 수 있다. Amber project는 14~24세 홈리스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게 약 6~8주에 걸쳐 제공되는 예비 중재 서비스이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의뢰되면 지원 코디네이터는 초기사정을 통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청소년과 부모 둘 다 중재에 동의한다면 전문적 중재자가 개별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하는 대화하기를 돕고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향상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 ① 초기개입 서비스

영국에서 홈리스 청소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기에 초기개입 서비스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초기개입 서비스로는 가족 중재와 학교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적 프로그램은 홈리스 및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목표로 홈리스의 험난한 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개선, 사회공공 주거지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오해 타파, 범죄와 관련된 전형적인 위기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집을 떠난 후 이용 가능한 주거형태 및 도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와 관련된 청소년의 책임감, 학교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갈등해결 기술 등을 교육한다. 또한 또래 교육(또래상담자 교육) 계획도 교사들과 청소년들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② 일시적/전환적 주거 서비스

#### ○ B&B(Bed and breakfast hotels)

B&B는 숙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리스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데, CLG(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조사에 따르면, 16~17세 청소년의 20%, 16~24세 홈리스 청소년의 12%가 B&B에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홈리스 청소년 정책은 B&B 사용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 가능한 지원의 부족, 착취의 위험, 교육실패, 조리시설의 부족 때문이다.

### ○ 호스텔 이외의 기타 주거지원

이 형태는 세 가지의 유형을 들 수 있는데, 1) 긴급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 2) 위탁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를 지원하고 단기나 중기 거주를 제공하는 호스텔 서비스 유형, 3) 특별한 주거시설 욕구와 관련된 전환 주거 서비스 유형이 그것이다(Pleace & Quilgars, 2003). 이러한 경우 주거 시설들의 규모는 크지만 지원이 약한 시설보다는 규모는 적으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적절한 생활기술 훈련, 입주 전에 공식적인 입주 교육, 거주 지속을 위한 실제적 교육,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Jones, Quilgars & Wallance, 2001; SCSH, 2005).

### ○ 집단 거주지(foyers)

집단 거주지는 원래, 교육·훈련·고용 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는 청소년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텔 유형의 주거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B&B를 축소하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일시적 거주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거주지는 보다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 지원이 있는 일시적 주거지(Supported lodgings)

지원이 있는 일시적 주거지는 최근에 국가적 전략 수준에서 촉진·확장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삶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 주거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적합한 장소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동요될 수 있다. 또한 기간이 지나치게 긴 거주지는 청소년의 동기와 그들의 인생을 진일보하게 하는 청소년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따라 move-on에 대한 전략을 개발 중인 지역이 많은데, 한 예로, Leicester 지역에서는 호스텔에서 3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생활한 사람이나 반사회적 행동들을 개선한 사람 등에게는 포상 점수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가 사회공공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주택을 제공하는데, 모든 신청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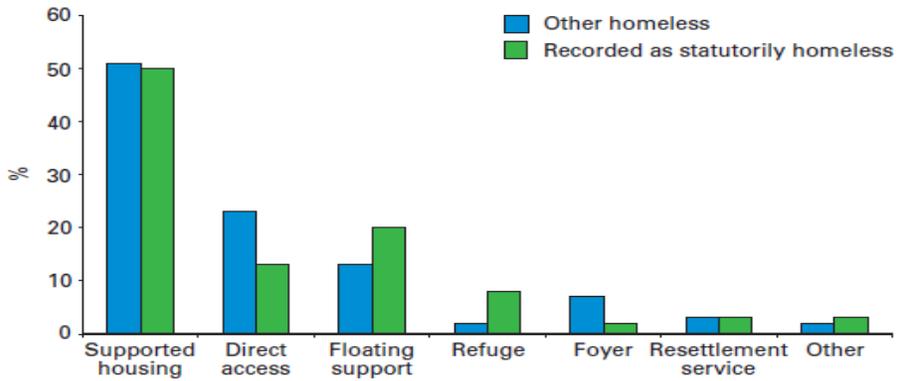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포상 점수가 부여된 개인은 선정자가 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

### ③ 제안정과 입주 지속 서비스

#### ○ 안정된 주거지로의 접근

청소년을 위한 move-on의 헌신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거주지로의 입주를 원하는 청소년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관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한 지방정부는 점수체계를 변경하였는데, 청소년이 지정된 임시 거주지에서 필수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성공적인 거주를 마친다면 아파트(flat)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공공주택의 부족은 개인 임대 분야를 고려하게 만드는데, 이 때 개인은 종종 좋은 지역의 질 좋은 거주지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주요한 문제와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유기간의 비보장성과 비양심적인 집주인으로부터의 보호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 및 선급금 문제, 집주인의 태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Edinburgh Cyrenians의 ‘Flatmates’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Cyrenians는 2006년에 Big Lottery에 의해 기금이 조성된 Flatmates 운동을 재개하였다. 이 운동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주지를 발굴하고 그곳에 함께 살 개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싱글룸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주거지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적 임대 영역(private rented sector: PRS)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PRS 자산을 선택할 때, 직원은 임대료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고 주택수당 수령인인 청소년이 주거지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 체계는 청소년이 살기 원하는 곳, 일터나 다니게 될 학교, 지원네트워크를 받을 곳과 거주자 간의 공통적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살 사람 간의 연결과정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동안 40명을 지원할 수 있다.



\* 출처: Quilgars et al., 2008. pp 71.

[그림 III-4] 2005~2006 영국 홈리스 청소년들의 지원 개입 유형

○ 거주 유지: 실용적인 사회적 지원

청소년이 정착된 거주지로 옮긴 이후 일정한 지원 기간 동안 실제적인 지원의 핵심은 거주 유지를 돕는 것이라는 데에 폭넓은 동의를 얻었고 (ODPM, 2003), 최근 이 분야에 대한 대책들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ODPM, 2005). 정부의 정책 지원 외에도 민간단체에 의한 다양한 아파트 지원이 있는데 Belfast's MACS 프로젝트와 Leicester's STAR(Supporting Tenants and Residents) 프로젝트가 한 예이다. MACS(Mulholland After Care Service)는 Greater Belfast에서 거주 문제를 지닌 16~25세 취약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들은 가정 설립에 있어 2년까지 일반적 정서 지지 뿐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계 제공 지원과 생활기술을 돕는다. Leicester 지역의 아파트 지원 서비스는 STAR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16~25세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가족, 여행자들에게까지 제공하고 있다. 60명의 직원이 6개의 지역 사무소로 나뉘어 일하며 MACS처럼 2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영국의 청소년 홈리스 정책 및 서비스들은 여전히 많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영국은 국가적 청소년 홈리스 계획을

전하는 새로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ondon, 2007). 다음에서 제시하는 것은 2006년 11월 14일 Ruth Kelly 차관의 발표 요약문이다.

-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홈리스 법령에 의거 16~17세 청소년은 B&B 이용 금지(2010년까지)
- 지역에 상관없이 홈리스의 약물치료에 대한 접근 향상
-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있는 주거계획 설립, 주거지 제공, 가족들과 함께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시설·조언·중재 서비스 제공

영국은 중앙정부가 홈리스 청소년의 국가적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각 시에서도 별도로 장기 플랜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Brighton과 Hove시 위원회는 2006년 11월에 청소년 홈리스 전략(2007~2010)을 수립하였으며, 그것은 보다 광범위한 홈리스 전략과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계획의 한 부분을 형성하였다. 홈리스 청소년들 발생의 원인과 주거의 필요성을 다루는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기초로 수립된 전략은 (1) 홈리스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2)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제공, (3) 청소년 홈리스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 (4) 노숙의 새로운 세대 예방, (5)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의 폭넓은 제공 등 총 5가지이다.

### (3) 호주의 가출청소년 정책

호주는 1970년대에 청소년 전업제 노동 시장의 붕괴를 시작으로 청소년 비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홈리스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책의 목적으로서 홈리스 예방이 도입되고 전략으로는 조기개입이 자리잡았다. 1982년 사회복지 상원상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Social Welfare)는 호주의 청소년 홈리스에 대해 보고하고, 이들의 경제 수입 지원과 청소년 위기 편의시설을 위한 자금

을 제안하였다. 1985년 모든 자치령(Commonwealth)의 위기 편의시설 프로그램은 지지 편의시설 지원법(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Program Act: SAAP Act) 아래 통합되었다.

1989년에는 인권과 평등 기회 위원회(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HREOC)가 “우리의 홈리스 아동(Our Homeless Children)”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부 홈리스 청소년을 제외한 대다수 홈리스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학교가 홈리스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조기개입과 예방 역량 설계를 강조하였다.

1995년 지역문제에 대한 하원상임위원회(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Community Affairs: HRSCCA)는 청소년홈리스 양상 보고서(A Report on Aspects of Youth Homelessness)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는 청소년 가출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을 강력하게 강조하며, 정책 구조와 서비스 전달 접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가족 중재와 상담, 가족 서비스, 학교에 기반한 전략과 고려사항 등 조기 개입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 범위를 규정하였다. 호주 정부의 예방과 조기 개입 정책을 살펴보면 <표 III-6>과 같다.

1996년 총리실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26개의 초기 개입 예비 프로젝트를 감독하였으며, 예비 프로젝트의 결과로 호주 정부는 1999년 재연결 프로그램(The Reconnect Program)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홈리스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운동이었다. 현재 호주 전역에는 초기 개입을 위한 200여 명의 직원과 98개의 재연결 서비스가 있다. 대다수의 주와 정부는 2000년부터 학교에서 사회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청소년 홈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AP(The 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Program) 서비스는 10년 전과 비교해 초기 개입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표 III-6〉 호주 정부의 예방과 조기 개입 정책

게임 개요	홀리스/조기가출에 대한 예방과 게임	홀리스/조기가출을 초대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타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
가정 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청소년-가족 관계 (여) 상담, 중재, 연락을 통해 가족 관계에 게임</li> <li>• 목표: 가정유지/통합</li> <li>• 이용대상: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정보 제공, 기술 개발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li> <li>• 목표: 홀리스, 조기가출을 예방하는 보호요인 실제</li> <li>• 이용대상: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 (여) 청소년과 일반적으로 복지나 핵심대상 밖의 사람들</li> </ul>
특별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가족 연계, (여)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 내 성적 학대에 대한 게임</li> <li>• 목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아동에 대한 웰빙과 안정성 증가</li> <li>• 이용대상: 가장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과 청소년, (여) 아동보호 프로그램,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정보제공, 기술개발, 지역사회 인식</li> <li>• 목표: 사회 문제 예방을 돕거나 웰빙 창조를 돕는 보호요인 실제</li> <li>• 이용대상: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이나 사회복지 핵심대상 밖의 사람들</li> </ul>
상황적 수준에서 일반적인 보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주거, 수입 지원, 고용, 교육, 건강과 같은 영역들에 서 개별적 요구에 대응</li> <li>• 목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홀리스나 홀리스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 원조</li> <li>• 이용대상: 위기 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홀리스/조기가출을 예방하는 사회적 정책과 자원의 개발</li> <li>• 목표: 홀리스/조기가출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이고 외적인 요인 다루기</li> <li>• 이용대상: 관리와 통합의 측면</li> </ul>
사회적 정책과 서비스 전달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수입 지원, 고용, 교육,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 개별적 요구에 대응</li> <li>• 목표: 기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청소년 지원 (여) 고용 지원</li> <li>• 이용대상: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위험 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 내용: 사회적 문제나 관련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과 사회적 정책의 개발, 사회적 안녕 창출</li> <li>• 목표: 홀리스/조기가출과 기타 관련 사회적 어려움 및 외적 요인 다루기</li> <li>• 이용대상: 관리/통합 측면</li> </ul>

호주 정부가 현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재연결 프로그램과 청소년보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연결 프로그램(The Reconnec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홈리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초기 개입 프로그램이다. 호주 정부는 홈리스나 홈리스의 위험에 처한 12~18세 청소년을 그들의 가정, 교육, 고용, 지역사회와 재연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재연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갈등을 줄이고 청소년과 학교 및 지역사회 간의 관련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정과 협력하면서 이 과정에서 초기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소년들이 생활공간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안전 등의 문제로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YHPP(The Youth Homelessness Pilot Program)는 가정과 청소년 간의 연결이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이 재연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재연결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생활 환경의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가정에 대한 중재는 가정 내 갈등을 다루고 대화를 증가시키며 가정의 역량을 향상시켜 가정 재통합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 형성,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의 참여 증가 등의 지역사회 역량 형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었다.

재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성과, 시간 경과에 따라 성과가 지속되는 정도, 청소년 홈리스의 초기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향상에 있어 재연결 프로그램이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 재연결 서비스에 의해 사용된 전략들의 효율성,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 등도 평가를 받게 된다.

○ 중재를 통한 홈리스 예방

학교는 가정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이들의 행동변화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복지직원들은 초기 가정문제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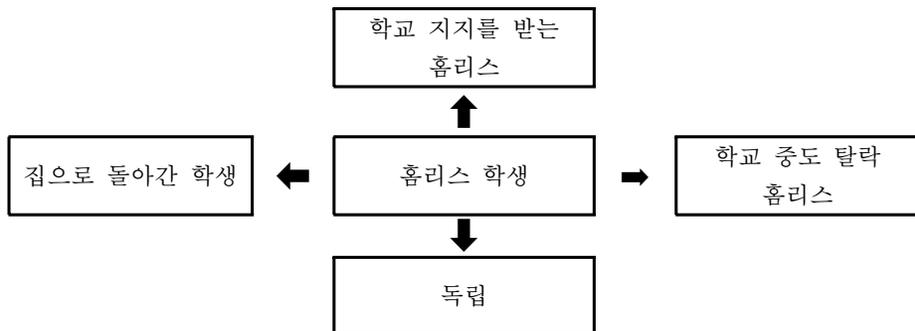
을 해결하고자 한다. 중재는 양쪽 당사자들이 중재과정의 기본 규칙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중재자의 공정성 또한 요구된다.

○ 가정으로 돌아가기

학교 내에 포괄적인 종교적 보호 프로그램(pastoral care program)이 있는 경우 청소년이 집에서 가출했거나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당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 팀의 누군가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이 태도나 행동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정 폭력 및 성적 학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갈등 중재가 더욱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문제 행동을 극복하고 자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홈리스

최근 홈리스 학생 가운데 60~70%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립적 주



[그림 III-5] 홈리스 학생을 위한 경로

거형태로 이동하여 살고 있다. 학교들은 홈리스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파트타임 등록을 허가하고, 학생들의 숙제를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보충 학습시간을 할애한다. 일부 학교는 학생의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 개별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 독립적으로 살기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입을 얻게 되면, 다음 단계로서 좀 더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임대를 하거나 하숙을 하기도 하고, 또래

들과 함께 개인적 임대 주거지로 이동하거나 장기 지원 주거지로 이동하기도 한다. 홈리스 학생이 독립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 지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청소년 개인의 성숙성 정도이다. 주거지를 관리하고 임대비를 지불하며 스스로 요리와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등 성숙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삶의 전환이 성공적이다. 이러한 삶의 기술 부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지원금 수혜 여부이다. Centrelink는 가정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지원금을 받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보다 손쉽게 생활전환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성적학대나 가정폭력, 또는 부모가 청소년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가정 내 재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주택 가격의 적절성이다. 주거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홈리스 청소년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 현장에서의 초기개입

효과적인 초기개입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의 협력을 요구한다. 초기개입이 효과적인 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안녕과 다학문적 성취에 우선순위를 두는 총체적 철학을 지닌 학교
- 교육적 성취를 강조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적이고 보호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좋은 리더십이 있는 학교
- 위기청소년과 홈리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의 영역을 규칙적으로 감독하고 충족시키는 잘 조직화된 능동적인 사회복지 팀이 존재하는 학교
- 교사들이 소집단 학생들과 강한 장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는 강력한 종교적 보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학교
-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과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
- 학생들을 위해 직업적이고 학문에 기반한 선택사항들을 포함하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존재하고 파트타임 등록을 인정하는 학교

② 청소년 주거지 마련 프로젝트(Roofs for Youth Project)

Roofs for Youth Project라는 청소년보호 프로젝트는 대도시 Perth에서 개인적 임대 주거지에 진입하려는 16세~21세의 홈리스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소년에게 부동산의 개인적 임대에 관한 책임과 권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개인적 임대 주거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청소년이 개인적 임대 자산을 유지하는 비율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그곳에서 탈락되는 청소년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역시 목표에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입주 전 적절한 훈련을 통해 청소년이 개인적 임대 계약을 확실하게 지

<표 III-7> Roofs for youth 프로젝트 일정표

단계	기간(월)	내용
1	1~2	훈련 자원의 개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형성
2	3~9	훈련 패키지 전달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참여 개인적 주거지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을 최소 3개월 이상 지원 형성 평가
3	10~12	추후 훈련 참여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평가 최종 보고서 준비 훈련 자원에 대한 마케팅 지속적인 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 단체들과의 논의

속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은 YACWA(Youth Affairs Council of Western Australia)가 책임을 지지만 프로젝트의 일상적 관리 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YACCOMM(Youth Accommodation Coalition)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003). 프로젝트의 일정표는 <표 III-7>과 같으며, 훈련은 적절한 주거 공간 찾기(Finding a Home), 적절한 장소 신청하기(Applying

for a Place), 입주하기(Moving In), 살아가기(Surviving)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Youth Affairs Council of Western Australia, 2004). 이 프로젝트의 성과지표와 목표달성 정도는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 주거를 획득하는 등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청소년의 수, 6개월 이상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성공적인 주거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로 측정된다.

## 2) 국외 가출청소년 정책을 통한 시사점

지금까지 국외 여러 국가들의 가출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국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출’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 ‘홈리스’ 청소년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개념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가출은 “가출”이라는 청소년의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가출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홈리스는 청소년의 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문제에 집중하여 보다 다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가출청소년, 즉 가출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가 훨씬 강하여 부모에게서 버려졌거나, 쫓겨났거나 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가출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한계, 즉 집을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고전적인 시각과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출에 대한 대응으로 가정으로의 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홈리스 청소년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집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시각이 더 강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대응을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가출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출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가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시대에 그들을 대표하지만 청소년의 행위에 주목하지 않고 보다 이들이 처한 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에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확대·실시되어야 한다. 국외의 사례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사후 개입 보다는 조기 개입 및 예방에 대한 사업에 보다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개입에 관련한 정책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쉼터의 실무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전개해 온 아웃리치 사업을 일시 청소년 쉼터의 역할로 규정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일시쉼터는 총 5개에 불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청소년 쉼터에 배정되어 있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을 청소년쉼터의 실무자들의 몫으로 넘겨져 버리기에, 가출청소년들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가출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가출예방교육, 또래상담자 훈련, 가족 중재, 아웃리치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것은 아웃리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웃리치의 경우도 그 노하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보니 주로 진행되는 사업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단기 아웃리치이거나 거리 이동 상담에 국한되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가출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껍이나 어려워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아웃리치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출청소년 또는 위험군 청소년들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만나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해 아웃리치 시간의 조정 등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는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문제 등과 같이 가족적인 요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과 가족 간의 초기 중재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당면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가출 예방 및 조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아웃리치를 전담하고 조정하며, 아웃리치에 대한 교육, 학교의 가출예방 교육, 가족 중재 교육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이 만 9~24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청소년 쉼터의 주된 서비스 대상은 만 9~19세의 청소년이다. 만 19세라는 연령의 의미는 청소년 쉼터의 기능 중 보호기능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청소년 연령인 19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인 경우는 법에 따라 성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다른 법들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중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경우 이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자립을 하지 못한 청소년에 더 가깝고, 성인들과 함께 서비스를 받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들을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청소년들이 만 21~25세까지(미국 21세, 영국 25세, 호주 21세: 호주의 민간기관 25세) 청소년 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연령 폭을 확대하고, 특히 자립이 필요한 초기 성년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환 생활을 강조하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국의 경우는 홈리스라는 용어 사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크고, 성인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홈리스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주거형태도 그들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쉼터의 유형은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되고 있지만, 외국의 전환생활과 유사한 형태의 쉼터는 중장기 모형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상식적으로 3~6개월간의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후 1년간 중장기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가지고 가출 청소년에게 자립에 대한 요구를 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너무 짧다.

되도록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은 아동양육시설, 특히 공동생활가정과 연계<sup>13)</sup>하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정으로 주거 욕구와 자립욕구를 명확히 측정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형태를 개발하고 이 부분에 정부의 의지, 또는 지역의 기업이나 기부자들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의 확보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량이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ottrell, 1983, 오정수, 류진석, 2009 재인용). 가출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가출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활동하게 되면 지역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출청소년의 예방에서부터 집을 나온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의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웃리치 활동과 상담을 위한 숙련된 자원봉사자의 모

13) 만 14세 이하이지만 장기나 만성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집, 가족증제를 위한 다양한 자원 제공,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돌아가서는 안 되는 가정을 지닌 청소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안정된 주거지의 확보 및 보장, 다양한 주거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헌신(집이 없는 청소년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 하는 등), 청소년의 멘토, 노동현장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이 주택, 보건, 교육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시스템이라 보건과 교육 뿐 아니라 주택을 지원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는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민간의 협력과 민간차원의 사회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발굴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호주는 국가적 프로젝트(예, reconnect program)를 수행하는 등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인다. 우리나라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이나 자립의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개발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택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IV. 청소년 가출 관련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 결과



## IV. 청소년 가출 관련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

조사대상 청소년은 총 10,253명이며, 이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청소년 총 9,751명(전체 응답자의 약 95%)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다른 한 집단은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총 502명(전체 응답자의 약 5%)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청소년의 성별을

〈표 IV-1〉 조사대상(일반 청소년)

구분		남자		여자		총	
학교급별	학년	명	%	명	%	명	%
초등	4학년	471	50.1	469	49.9	940	100.00
	5학년	452	49.7	457	50.3	909	100.00
	6학년	478	50.9	461	49.1	939	100.00
중등	1학년	708	61.0	453	39.0	1,161	100.00
	2학년	589	47.3	656	52.7	1,245	100.00
	3학년	561	21.0	538	49.0	1,099	100.00
고등	1학년	584	26.0	489	44.0	1,043	100.00
	2학년	662	57.5	489	42.5	1,151	100.00
	3학년	480	38.0	784	62.0	1,264	100.00
일반 청소년		4,985	51.1	4,766	48.9	9,751	95.1
쉼터 청소년		258	51.4	242	48.2	500	4.9
총		5,243	51.1	5,008	48.9	10,251	100.00

쉼터 청소년 중 무응답자 2명 제외

살펴보면 남학생 4,985명(51.5%), 여학생 4,766명(48.9%)이 조사에 응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788명(28.6%), 중학생 3,505명(35.9%), 고등학생 3,458명(35.5%)이 조사에 응했다. 한편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모두 684명이 설문에 응했으나 이중 부실한 응답을 한 182명을 제외하고(14) 총 5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이들의 성별은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남자 258명(51.4%), 여자 242명(48.2%)으로 나타났다(<표 IV-1>).

이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표 IV-2>), 일반 청소년과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지역크기별로 40~46% 청소년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약 26%만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 일반 및 쉼터 청소년들의 지역 크기별 가정 경제적 수준  
단위: 명(%)

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								Total
	매우 못 산다	2	3	보통 수준	5	6	매우 잘 산다	무응답	
서울	12 (0.78)	67 (4.36)	189 (12.30)	624 (40.60)	422 (27.46)	151 (9.82)	48 (3.12)	24 (1.56)	1,537 (100.00)
일광반역	22 (0.69)	172 (5.37)	483 (15.08)	1,408 (43.96)	790 (24.66)	206 (6.43)	88 (2.75)	34 (1.06)	3,203 (100.00)
시군	44 (0.88)	207 (4.13)	688 (13.73)	2,266 (45.22)	1212 (24.19)	397 (7.92)	130 (2.59)	67 (1.34)	5,011 (100.00)
쉼터	62 (12.35)	106 (21.12)	140 (27.89)	130 (25.90)	36 (7.17)	16 (3.19)	5 (1.00)	7 (1.39)	502 (100.00)

14) 쉼터 청소년의 경우 부실한 설문지의 발생 비율이 일반 청소년의 설문지에 비해 높은 것은 한편으로는 자료 수집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쉼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쉼터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설문지 이해력이나 성실성 등이 낮고 그러한 경향이 설문지를 부실하게 응답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쉼터 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 부모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표 IV-3>),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는 대졸(41.83%), 어머니는 서울을 제외하고 고졸(48.73%)의 학력수준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울의 경우는 어머니

<표 IV-3> 일반 및 쉼터 청소년들의 지역 크기별 부모의 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아버지 학력 수준					Total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무응답	
서울	55 (0.54)	450 (4.39)	768 (7.49)	190 (1.85)	74 (0.72)	1,537 (14.99)
일 광역시	167 (1.63)	1,242 (12.11)	1,376 (13.42)	245 (2.39)	173 (1.69)	3,203 (31.24)
반 시·군	255 (2.49)	2,012 (19.62)	2,066 (20.15)	358 (3.49)	320 (3.12)	5,011 (48.87)
쉼터	107 (1.04)	251 (2.45)	79 (0.77)	14 (0.14)	51 (0.50)	502 (4.90)
계	584 (5.70)	3,955 (38.57)	4,289 (41.83)	807 (7.87)	618 (6.03)	10,253 (100.00)
구분	어머니 학력 수준					Total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무응답	
서울	65 (0.63)	606 (5.91)	668 (6.52)	122 (1.19)	76 (0.74)	1,537 (14.99)
일 광역시	180 (1.76)	1,611 (15.71)	1,077 (10.50)	138 (1.35)	197 (1.92)	3,203 (31.24)
반 시·군	264 (2.57)	2,558 (24.95)	1,655 (16.14)	187 (1.82)	347 (3.38)	5,011 (48.87)
쉼터	75 (0.73)	221 (2.16)	80 (0.78)	12 (0.12)	114 (1.11)	502 (4.90)
계	584 (5.70)	4,996 (48.73)	3,480 (33.94)	459 (4.48)	734 (7.16)	10,253 (100.00)

의 학력 수준도 대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각각 2.45%와 2.1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 내용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가출 관련 문항과 가출 전·후의 심리 및 환경요인으로 자존감, 우울·불안, 학대·방임 경험, 사회적 지지원 정도, 또래동조성 정도, 본인 및 친한 친구의 일탈 행동 경험여부, 청소년보호시설 인지 및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출 관련 문항

가출 관련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는 지금까지의 가출 경험 여부, 가출 시기 및 기간, 가출 이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출과 관련한 문항들은 주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와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2007)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 (2) 가출 전·후의 심리 및 환경요인 문항

가출 전·후의 심리 및 환경요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존감

가출 전·후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자존감에 관한 문항은 심리척도 핸드북(고려대학교 부석 행동과학 연구소, 2000)에 수록되어 있는, 1965년에 제직된 Rosenberg의 척도를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를 비롯하여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

(전혀 아니다-아닌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응답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② 우울·불안

우울·불안 척도 역시 가출 전·후로 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심리상태로 가정하여 본 설문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문항은 표준화 척도인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sup>15)</sup>중 우울·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우울·불안 척도는 “외롭다고 느낀다”, “잘 운다”, “걱정이 많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의 정도를 평가하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 ③ 학대·방임 경험

가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가정되는 가정 내 학대 및 방임 여부에 관한 문항은 이애령(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학대적 양육태도 5 문항(예: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심하게 때린다)과 방임적 태도 6문항(예: 부모님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두신다)을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로 수정하여 질문하였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 양육태도에 관한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닌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응답범위는 11점에서 44점까지이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이나 학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사회적 지지원 정도

가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가정되는 사회적 지지원의 정도에 관한 문항은 “Dubow와 Ulman(1989)의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지지척도와 Harter(1985)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척도를 종합하여 김명숙(1994)이 개

---

15) K-YSR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모두 119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장점은 표준화된 척도라는데 있다. 즉 각 척도에 대한 백분위 점수 및 표준 점수가 제시되어 있어 설문응답자들이 규준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발”(김세원, 2003 재인용)하고 김세원(2003)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가족지지(예: 우리 가족은 서로 도와준다), 교사지지(예: 나는 선생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 친구지지(예: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세 개의 하위 척도가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닌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응답점수범위는 8점에서 32점까지이며, 전체 척도의 응답점수범위는 24점에서 96점까지이다. 사회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또래동조성 정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정되는 또래동조성 관련 문항은 김선남(1994, 심리척도핸드북, 2000, 재인용)의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성향 측정 도구 중 또래동조성 8문항(예: 속마음으로는 원치 않을 때에도 친구들이 시켜서 또는 친구들과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닌 편이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응답점수범위는 8점에서 32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지각한 자신의 또래동조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⑥ 본인 및 친한 친구의 일탈 행동 경험여부

가출 전후에 나타나는 본인 및 친한 친구의 일탈 행동 경험 여부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음주, 흡연, 무단결석, 성관계, 폭력, 금품갈취 등에 대한 본인의 피·가해 경험여부를 가출 전·후로 나누어 각각 묻는 문항이 각 영역 당 총 11개씩이며, 각 문항은 모두 3점 척도(없다-가끔-자주)로 구성하였다. 친구의 일탈경험 여부에 관한 질문 역시 3점 척도의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⑦ 청소년보호시설 인지 및 경험 여부

청소년보호시설 인지 및 경험여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집중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 사용한 문항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출 청소년들과 특히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쉼터, 상담센터,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일반 초·중·고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는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본 연구원에서 마련한 표본절차에 따라 표본 추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누졌으며, 1차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30일에서 2009년 7월 24일까지였으며, 추가보완조사인 2차 조사는 2009년 8월 17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였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모집단은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08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조사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12개 시도별로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지역별로 나누는 뒤 층화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를 할당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계열별로 나뉘어 있음을 고려하여 12개 지역별×2개(일반

계·전문계) 계열별 층화(two way: 24 sector)로 나눈 뒤 층화지역별 학생 수 비례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할당표본수에 따라 추출학교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이 조사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층화지역별로 할당된 학교를 추출할 때에는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즉,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12개 지역별로 초등학교 리스트를 정렬한 후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 수를 누적,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전교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을 결정한 다음,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를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하였다.

추출된 학교에서는 1개 학년만을 추출하였다. 학교추출 순으로 첫 번째는 제일 아래 학년(초등학교의 경우는 4학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 두 번째는 그 다음 학년(초등학교의 경우는 5학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학년), 세 번째는 제일 고학년(초등학교의 경우는 6학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3학년), 네 번째는 다시 제일 아래 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학년을 추출하였다. 학급을 선발할 때에는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때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였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총 9,751부(초4, 940부; 초5, 909부; 초6, 939부; 중1, 1,161부; 중2, 1,245부; 중3, 1,099부; 일반고1, 345부; 일반고2, 334부; 일반고3, 385부; 전문고1, 698부; 전문고2, 817부; 전문고3, 879부)가 회수되었으며, 총 회수율은 114.3%였다. 또한 원표본율은 39.7%, 대체

표본율은 60.3%로 나타났으며, 대체 이유로는 모의고사 및 시험으로 인한 거절, 신중플루 발생, 폭우로 인한 접근 불가능, 학교 선정시점에서 교장선생님의 부재 등이다.

쉽터 청소년의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2009년 7월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등록된 전국의 쉽터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69 곳에서 2009년 7월 27일부터 2009년 8월 14일의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발송 및 취합은 우편을 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684부였으나 이중 부실하게 작성된 182부는 제외하고 총 502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3.0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주로 사용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 집단 간 평균비교 등이다.

## 2.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크게 두 부분, 즉 가출 실태와 가출 및 관련요인 간의 관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가출실태는 일반(초·중·고) 및 쉽터 청소년의 가출실태와 가출 유형별(무경험자, 일시가출, 반복가출, 장기가출, 만성가출)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일반 및 쉽터 청소년의 가출 실태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가출 실태를 알아보려고 일반 청소년과 쉽터 거주 청소년들의 가출 충동 및 경험, 가출 전후의 생활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가출 충동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약 42.91%로 나타났다. 이중 쉽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81.9%가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 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표 IV-4〉 가출 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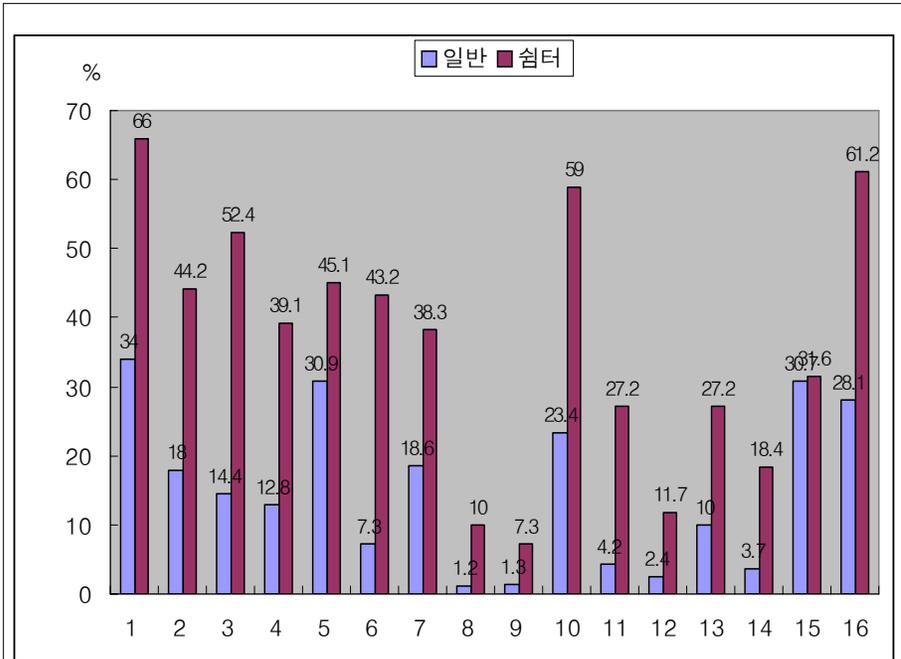
(단위: 명(%))

	성별			학교급별			컴퓨터	Total
	남자	여자	무응답	초등	중등	고등		
전혀 없다	3,068 (58.52)	2,646 (52.84)	2 (100.0)	2,145 (76.94)	1,834 (52.33)	1,647 (47.63)	90 (17.93)	5,716 (55.75)
가끔 있다	1,671 (31.87)	1,870 (37.34)	0 (0.00)	531 (19.05)	1,338 (38.17)	1,497 (43.29)	175 (34.86)	3,541 (34.54)
자주 있다	292 (5.57)	354 (7.07)	0 (0.00)	61 (2.19)	224 (6.40)	212 (6.13)	149 (29.68)	646 (6.30)
항상 있다	118 (2.25)	94 (1.88)	0 (0.00)	15 (0.54)	53 (1.51)	57 (1.65)	87 (17.33)	212 (2.07)
무응답	94 (1.80)	44 (0.88)	0 (0.00)	36 (1.30)	56 (1.60)	45 (1.30)	1 (0.20)	138 (1.35)
계	5,243 (100.0)	5,008 (100.0)	2 (100.0)	2,788 (100.0)	3,505 (100.0)	3,458 (100.0)	502 (100.0)	10,253 (100.0)

초등학생(21.8%)보다는 중·고등학생(각각 46%와 51.1%)이 가출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들의 6.38%는 가출충동을 자주 느끼거나 항상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표 IV-4〉).

이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면([그림 IV-1]), 일반 청소년의 경우 가출 충동의 이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모님이 싫어서(34%)’이며, ‘부모님이 나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이유(30.9%)가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공부가 부담되어서(30.1%)’,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28.1%)’와 ‘친구와 놀고 싶어서(23.4%)’가 그 뒤를 이었다. 컴퓨터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충동을 느끼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싫어서(66%)’였다. 그 다음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61.2%)’, ‘친구와 놀고 싶어서(59%)’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비율은 31.6%로

16) 가출 충동이유에 대한 질문은 각각의 세부 항목이 가출 충동의 이유가 되었는지를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물어 보았으며, 본문에 명시된 비율(%)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이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싫음
2. 부모님(보호자)들이 서로 자주 싸움
3.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림
4.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관심이 없음
5. 부모님(보호자)이 나에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함
6. 가정 형편이 어려움(경제적으로 어려움)
7. 부모님(보호자)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음
8.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성추행(성폭행)
9.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성추행(성폭행)
10. 친구들과 놀고 싶음
11.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함
12. 학교 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힘
13.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함
14.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음
15. 공부가 부담됨
16.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음

[그림 IV-1] 가출 충동의 이유

일반 청소년(30.1%)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응답순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소 낮았다(쉽터 청소년 10위, 일반 청소년 3위). 또한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응답비율(12.8%)을 보인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쉽터 청소년에게서 높은 응답비율(39.1%)을 보였다. 그 외에도 쉽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부모님들이 서로 자주 싸움(44.2%)’,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림 (52.4%)’,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43.2%)’ 등과 같은 가족관련 사항으로 쉽터 청소년들이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출 충동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가출 경험

실제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표 IV-5>, 전체 10,253명 중 1,193명(11.6%)이 1회 이상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학생의 경우는 7.9%, 쉽터 청소년의 경우는 약 83.3%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자(9.4%)보다는 남자(13.8%)의 경우가,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초·중·고 각각 3.0%, 8.1%, 11.8%)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일반 학생 중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7.9%)을 2008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인구(총 5,783,512명)에 대입해 보면, 약 45만여 명이 1회 이상 가출을 경험해 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출 비율을 포함한다면 가출 비율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2008)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품행과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가 약 0.8%(15,049명)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에 초·중학교 학업중단자가 포함된다면 그 수치는 다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치도 47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 2장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가정된 48만 명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IV-5> 가출 경험

단위: 명(%)

	초4		초5		초6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다	15(3.18)	1(0.21)	15(3.32)	7(1.53)	35(7.32)	11(2.39)
없다	456(96.82)	468(99.79)	437(96.68)	450(98.47)	443(92.68)	450(97.61)
계	471(100)	469(100)	452(100)	457(100)	478(100)	461(100)
	중1		중2		중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다	58(8.19)	20(4.42)	54(9.17)	41(6.25)	69(12.30)	41(7.62)
없다	650(91.81)	433(95.58)	535(90.83)	615(93.75)	492(87.70)	497(92.38)
계	708(100)	453(100)	589(100)	656(100)	561(100)	538(100)
	고1		고2		고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80(13.70)	51(11.11)	102(15.41)	43(8.79)	75(15.63)	57(7.27)
	504(86.30)	408(88.89)	560(84.59)	446(91.21)	405(84.38)	727(92.73)
계	584(100)	459(100)	662(100)	489(100)	480(100)	784(100)
	쉽터		무응답	계		무응답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다	220(85.27)	197(81.40)	1(50.00)	723(13.8)	469(9.4)	1(50.00)
없다	38(14.73)	45(18.60)	1(50.00)	4,520(86.2)	4,539(90.6)	1(50.00)
계	258(100)	242(100)	2(100)	5,243(100)	5,058(100)	2(100)

가출 횟수는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약 33.6%(401명)가 1회에 그친 반면 2회는 18%(215명), 3회는 12.6%(150명), 4회 이상은 28.3%(338명)로 나타났다(<표 IV-6>). 일반 초·중·고 청소년의 경우는 가출 경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약 46%)이 1회성 가출인데 비해 쉽터 청소년들은 가출 경험이 1회인 경우는 가출 경험자의 10.5%에 지나지 않아 쉽터 청소년들의 가출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재가출한 이유를 살펴보면(<표 IV-7>), 가출 후 자유로운 생활이 그림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쉽터 청소년들의 경우 '있을 곳(집)이 없어서'가출했다는 응답도

<표 IV-6> 가출 횟수

단위: 명, %

	사례수(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기타	무응답
전체	1,192*	33.6	18.0	12.6	28.3	2.7	4.8
남자	723	32.1	19.4	13.0	28.6	1.8	5.1
여자	469	36.0	16.0	11.9	27.9	4.1	4.1
초등학생	84	53.6	19.0	10.7	7.1	-	9.5
중학생	283	42.8	25.8	11.7	14.5	1.4	3.9
고등학생	408	46.8	21.1	13.5	14.2	1.0	3.4
쉼터	418	10.5	9.6	12.7	55.7	5.7	5.7
계	1,193	33.6	18.0	12.6	28.3	2.7	4.8

\* 무응답 1명 제외

<표 IV-7> 재가출한 이유

단위: 명(%)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쉼터
부모님이 때리고 욕해서	3(30.0)	11(12.2)	25(20.0)	39(17.33)	120(32.7)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4(40.0)	7(7.8)	10(8.0)	21(9.33)	37(10.1)
부모님들이 싸워서	1(10.0)	5(5.6)	14(11.2)	20(8.89)	21(5.7)
있을 곳(집)이 없어서	0(0)	1(1.1)	1(0.8)	2(0.89)	18(4.9)
가출 후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워서	0(0)	22(24.4)	26(20.8)	48(21.33)	89(24.3)
학교가기 싫어서	1(10.0)	12(13.3)	20(16.0)	33(14.67)	34(9.3)
친구가 가출하자고 해서	0(0)	6(6.7)	3(2.4)	9(4.00)	18(4.9)
기타	1(10.0)	26(28.9)	26(20.8)	48(21.33)	30(5.2)
계	10(100)	90(100)	125(100)	5(2.22)	367(100)

<표 IV-8> 작년 한 해 동안의 가출 경험

단위: 명(%)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723	406(56.15)	317(43.84)
	여자	469	267(56.93)	202(43.1)
	무응답(설퍼)	1	0(0)	1(100.0)
학교	초등학생	84	39(46.43)	45(53.6)
	중학생	283	147(51.94)	136(48.1)
	고등학생	408	188(46.08)	220(53.9)
	설퍼	418	299(71.53)	119(28.5)
전 체	1,193	673(56.41)	520(43.59)	

4.9%나 나와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2008년) 가출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체 가출경험자 1,193명 중 약 56.4%(673명)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6.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표 IV-8>). 이중 일반 학생은 374명(3.65%)으로 이를 전국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적용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총 학생 인구(총 5,783,512명)의 3.65%인 약 21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일반 학생 중 약 21만 명 정도가 한 해에 1회 이상 가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면 한 해 약 22만여 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결과에 따라 일반 청소년의 경우 일회성 가출로 그치는 경우가 약 46%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중 약 10만 명 정도는 일회성 가출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 가출 시기를 보면(<표 IV-9>), 첫 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13~16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세 이전에 가출을 경험하는 경우도 8.6%(응답자 1,129명 중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도 예방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

<표 IV-9> 첫 가출 시기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쉽터	계
5세	2(2.38)	0(0)	0(0)	1(0.24)	3(0.25)
6세	0(0)	0(0)	1(0.25)	1(0.24)	2(0.17)
7세	2(2.38)	4(1.43)	2(0.50)	0(0)	8(0.67)
8세	6(7.14)	0(0)	1(0.25)	11(2.63)	18(1.52)
9세	5(5.95)	2(0.71)	1(0.25)	12(2.87)	20(1.69)
10세	17(20.24)	14(5.00)	7(1.73)	8(1.91)	46(3.88)
11세	18(21.43)	19(6.79)	10(2.48)	19(4.55)	66(5.56)
12세	17(20.24)	37(13.21)	14(3.47)	32(7.66)	100(8.43)
13세	4(4.76)	62(22.14)	13(3.22)	56(13.40)	135(11.38)
14세	0(0)	60(21.43)	32(7.92)	73(17.46)	165(13.91)
15세	0(0)	53(18.93)	88(21.78)	67(16.03)	208(17.54)
16세	0(0)	13(4.64)	115(28.47)	62(14.83)	190(16.02)
17세	0(0)	0(0)	66(16.34)	49(11.72)	115(9.70)
18세	1(1.19)	0(0)	28(6.93)	17(4.07)	46(3.88)
19세	0(0)	0(0)	5(1.24)	2(0.48)	7(0.59)
무응답	12(14.29)	16(5.71)	21(5.20)	8(1.91)	57(4.81)
계	84(100)	280(100)	404(100)	418(100)	1,186(100)

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첫 가출 기간을 살펴보면(<표 IV-10>), 나이가 어릴수록 가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약 80%, 중학생의 경우는 약 72%가 1~2일 이내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1~2일 이내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약 58%였다. 반면 쉽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첫 가출에서 1~2일 이내에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약 28%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났다. 또한 첫 가출이 한 달 이상 길어진 경우도 쉽터 청소년의 경우는 20%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쉽터 거주 청소년들의 가출이 일반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표 IV-10> 첫 가출 기간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쉼터
1~2일	67(79.76)	203(71.73)	238(58.33)	119(28.47)
3일 이상 ~ 일주일 이내	4(4.76)	52(18.37)	117(28.68)	125(29.90)
일주일 이상 ~ 한 달 이내	1(1.19)	16(5.65)	31(7.60)	86(20.57)
한 달 이상	-	5(1.77)	17(4.17)	84(20.10)
무응답	12(14.29)	7(2.47)	5(1.23)	4(0.96)
계	84(100)	283(100)	408(100)	418(100)

첫 가출 후 가정 복귀 이유(<표 IV-11>)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27.38%)’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25%)’라는 이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주요 이유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20.49%)’,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19.79%)’, ‘돈이 없어서(18.02%)’, ‘친구나 주위사람이 들어가라고 해서(15.90%)’의 순으로 응답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요 이유를 ‘잘

<표 IV-11> 첫 가출 후 가정 복귀 이유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쉼터
돈이 없어서	5(5.95)	51(18.02)	79(19.36)	136(32.54)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21(25.00)	18(6.36)	26(6.37)	28(6.70)
문제가 해결되어서	5(5.95)	21(7.42)	55(13.48)	17(4.07)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23(27.38)	58(20.49)	84(20.59)	27(6.46)
바깥생활이 위험해서	4(4.76)	6(2.12)	10(2.45)	12(2.87)
부모님, 경찰에게 붙들려서	11(13.10)	56(19.79)	75(18.38)	116(27.75)
친구·주위사람이 들어가라고 해서	8(9.52)	45(15.90)	43(10.54)	35(8.37)
아직도 가출 중	-	-	-	30(7.18)
기타	-	2(0.7)	-	10(2.39)
없음	-	-	-	1(0.24)
무응답	7(8.33)	26(9.19)	36(8.82)	6(1.44)
계	84(100)	283(100)	408(100)	418(100)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20.59%)’, ‘돈이 없어서(19.36%)’,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19.36%)’, ‘문제가 해결되어서(13.48%)’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돈이 없어서(32.54%)’와 ‘부모님·경찰에게 붙들려서(27.75%)’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반면 일반 청소년들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는 6.4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가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출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적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가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쉼터 청소년들의 가출 기간이 일반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길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가출이 일반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출 중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에 대한 물음에서(<표 IV-12>) 1~2일 이내로 짧다고 응답한 경우가 초등학생은 약 70%, 중·고등학생은 각각 약 57%와 42%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일주일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0%에 가까워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표 IV-12> 가장 오래 가출한 기간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쉼터
1~2일	59 (70.24)	162 (57.24)	171 (41.91)	28 (6.70)
3일 이상 ~ 일주일 이내	9 (10.71)	62 (21.91)	131 (32.11)	36 (8.61)
일주일 이상 ~ 한 달 이내	1 (1.19)	34 (12.01)	62 (15.20)	65 (15.55)
한 달 이상	-	13 (4.59)	30 (7.35)	284 (67.94)
무응답	15 (17.86)	12 (4.24)	14 (3.43)	5 (1.20)
계	84 (100)	283 (100)	408 (100)	418 (100)

<표 IV-13> 가출 횟수 및 기간

단위: 명(%)

	1~2일	3일 이상 ~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상 ~ 한 달 이내	한 달 이상	무응답
1회	262(62.38)	79(33.19)	17(10.49)	16(4.89)	27(58.70)
2회	84(20.00)	60(25.21)	37(22.84)	29(8.87)	5(10.87)
3회이상	59(14.05)	84(35.29)	91(56.17)	210(64.22)	5(10.87)
무응답	12(2.86)	7(2.94)	5(3.09)	25(7.65)	8(17.39)
Total	420(100)	238(100)	162(100)	327(100)	4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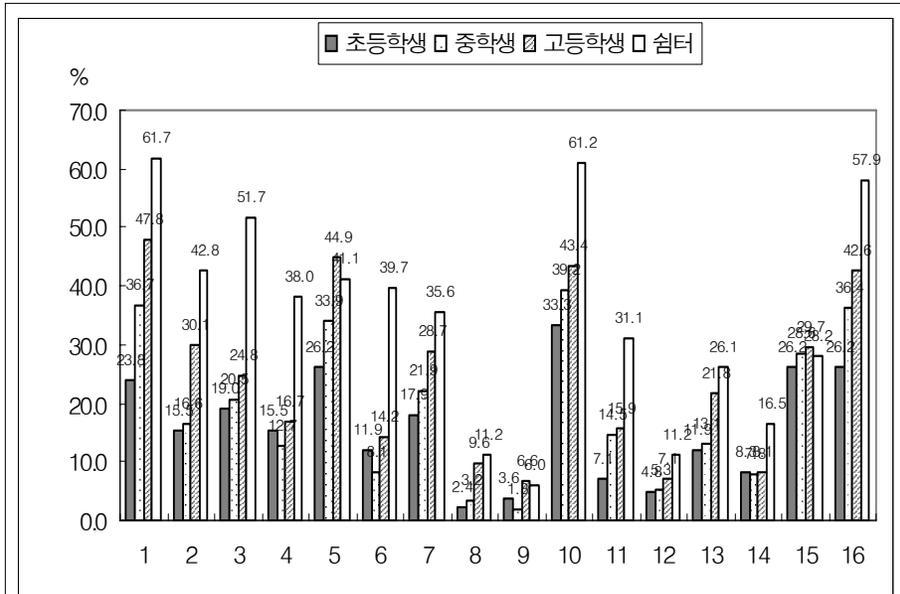
가출기간이 쉼터 청소년에 비해 짧았다. 반면,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68%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한 달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기간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 역시 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가출이 일반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가출이 1~2회로 그치고 있고 쉼터 청소년들에 비해 그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쉼터 청소년들은 가출이 보다 반복적이고 그 기간도 한 달 이상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의 가출 횟수와 기간을 종합하여 보면(<표 IV-13>), 가출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출기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출기간이 1~2일에 그친 경우 중 가출횟수가 1회라고 응답한 이들은 62.38%로 나타난 반면, 2회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34.05%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가출횟수가 1회로 그친 경우는 4.89%에 불과했으며, 97.09%가 2회 이상 가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들 가출의 이유를 살펴보면<sup>17)</sup>([그림 IV-2]), 초등학교의 경우 ‘친구

17) 가출 이유에 대한 질문은, 가출충동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싫음
2. 부모님(보호자)들이 서로 자주 싸움
3.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림
4.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관심이 없음
5. 부모님(보호자)이 나에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함
6. 가정 형편이 어려움(경제적으로 어려움)
7. 부모님(보호자)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음
8.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성추행(성폭행)
9.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성추행(성폭행)
10. 친구들과 놀고 싶음
11.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함
12. 학교 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힘
13. 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함
14.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음
15. 공부가 부담됨
16.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음

[그림 IV-2] 가출의 이유(중복응답)

세부 항목이 가출 충동의 이유가 되었는지를 4점 척도(전혀 아니다-아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물어 보았으며, 본문에 명시된 비율(%)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을 합산한 비율이다.

들과 놀고 싶어서(33.3%)'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쳐서', '공부가 부담돼서',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등의 이유가 26.2%로 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부모님이 싫어서'로 23.8%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39.2%)'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모님이 싫어서(36.7%)',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36.4%)',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서(33.9%)'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싫어서(47.8%)'가 가출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서(44.9%)',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43.4%)',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4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쉼터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이 싫어서(61.7%)'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61.2%)',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57.9%)',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서(51.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서'라는 이유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쉼터 청소년들에게서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쉼터 청소년에게서 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항목은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등의 항목이다. 일반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 사이의 이러한 응답 경향의 차이는 쉼터 청소년들이 직면한 열악한 환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쉼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 횟수 및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가출행동에 대한 반성은 낮은 경향과 함께 고려한다면, 이들 가출의 상당수가 탈출형 가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출 후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IV-14>), 일반 청소년 및 쉼터 청소년 모두에게서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친구가 준 도움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것은 힘들 때 위로를 해 준 것(1,193명 중 724명, 60.7%)이며, 그 외에 돈을 주

〈표 IV-14〉 가출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중복응답)

단위:%(명)

		가족	친구	친척	교사	가출 해서 만난 친구	경찰 관	보호 시설	기타	무응 답	사례수 (명)
돈을 주거나 꿔줌	전체	10.81	53.14	4.78	1.93	9.05	1.93	4.19	10.14	26.24	1,193
	초등학생	10.71	16.67	2.38	0.0	4.76	0.00	0.00	8.33	59.52	84
	중학생	9.90	47.35	8.53	0.0	4.95	1.41	0.35	9.54	36.04	283
	고등학생	9.07	58.58	4.11	1.23	5.39	0.25	0.74	7.84	28.19	408
	컴퓨터	13.16	59.09	6.46	4.31	16.27	4.31	11.00	13.16	11.00	418
힘들 때 위로해 줌	전체	11.40	60.69	4.61	5.11	8.63	1.68	8.21	7.54	18.61	1,193
	초등학생	23.81	32.14	5.95	4.76	4.76	0.00	0.00	4.76	38.10	84
	중학생	12.72	55.83	3.53	1.77	5.30	0.71	1.41	5.30	29.68	283
	고등학생	12.99	65.69	4.66	0.00	5.15	0.74	0.49	7.35	18.38	408
	컴퓨터	6.46	64.83	5.02	10.05	15.07	3.59	22.01	9.81	7.42	418
잠자리/ 먹을것 제공	전체	7.80	50.96	4.19	1.01	7.80	1.51	16.43	8.13	20.20	1,193
	초등학생	19.05	16.67	7.14	0.00	2.38	0.00	1.19	7.14	50.00	84
	중학생	10.25	47.00	3.53	0.35	3.53	1.06	2.12	8.83	32.51	283
	고등학생	7.84	62.25	3.68	0.74	6.13	0.49	0.98	7.35	19.36	408
	컴퓨터	3.83	49.52	4.55	1.91	13.40	3.11	44.26	8.61	6.70	418
필요한 정보 제공	전체	6.37	43.76	2.93	3.27	7.71	3.02	14.84	8.05	27.16	1,193
	초등학생	13.10	17.86	2.38	2.38	3.57	0.00	3.57	8.33	54.76	84
	중학생	8.83	42.05	2.83	1.41	4.59	1.77	1.41	8.13	40.99	283
	고등학생	6.13	53.68	2.45	1.96	5.15	0.49	1.23	6.37	29.41	408
	컴퓨터	3.59	40.43	3.59	5.98	13.16	6.94	39.47	9.57	10.05	418
일자리 소개	전체	2.35	23.05	1.09	1.26	4.78	0.59	4.86	17.35	50.13	1,193
	초등학생	5.95	7.14	1.19	2.38	0.00	0.00	0.00	11.90	71.43	84
	중학생	2.83	13.07	1.06	0.00	3.89	1.06	0.35	13.78	65.37	283
	고등학생	1.23	25.98	0.74	0.25	3.92	0.00	0.49	12.50	56.37	408
	컴퓨터	2.39	30.14	1.44	2.87	7.18	0.96	13.16	25.60	29.43	418

거나 꿰주고(1,193명 중 634명, 53.1%) 숙식도 제공하는 것(1,193명 중 608명, 51%)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거주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가출 후 만난 친구나 보호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는 컴퓨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출 후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보았을 때 친구의 도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도움은 학년이 내려갈수록 많았다. 한편 초등학생은 보호시설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었다.

가출 전과 비교하여 가출 후 상황이 어느 정도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IV-15>), 대부분의 경우 가출 전·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출 후 건강, 경제적 상황, 학교 다니기 등에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마음의 편한 정도, 자신을 대하는 가족·친구·주변사람들의 태도에서는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마음의 편한 정도,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가출 후 좋아졌다고 인식한 비율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비율보다 높았다. 마음의 편한 정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가출 전 이들의 갈등 상태가 최고조였던 동시에 가출 후 일시적인 해방감이 이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친구들의 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가출 후 친구들의 도움이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경제적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가출 후 나빠졌다고 인식한 비율이 좋아졌다고 인식한 비율보다 높아 가출 후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자신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일반 학생들은 가출 후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좋아졌다고 인식한 비율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쉼터 청소년들은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나빠졌다고 인식한 비율이 좋아졌다고 인식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쉼터 청소년들은 가출 후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쉼터 청소년들의 가출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단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가출이 길어지고 횟수도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표 IV-15〉 가출 전과 비교한 가출 후 개인 상황

단위:%

영역	변화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계
건강	나빠짐	8(9.52)	32(11.31)	45(11.03)	127(30.38)	212(17.77)
	달라진 것 없음	52(61.90)	207(73.14)	313(76.72)	210(50.24)	782(65.55)
	좋아짐	13(15.48)	20(7.07)	26(6.37)	73(17.46)	132(11.06)
	무응답	11(13.10)	24(8.48)	24(5.88)	8(1.91)	67(5.62)
마음의 편한 정도	나빠짐	14(16.67)	42(14.84)	67(16.42)	114(27.27)	237(19.87)
	달라진 것 없음	39(46.43)	155(54.77)	219(53.68)	148(35.41)	561(47.02)
	좋아짐	20(23.81)	61(21.55)	98(24.02)	149(35.65)	328(27.49)
	무응답	11(13.10)	25(8.83)	24(5.88)	7(1.67)	67(5.62)
경제적 상황	나빠짐	14(16.67)	39(13.78)	63(15.44)	140(33.49)	256(21.46)
	달라진 것 없음	47(55.95)	197(69.61)	292(71.57)	189(45.22)	725(60.77)
	좋아짐	11(13.10)	21(7.42)	29(7.11)	82(19.62)	143(11.99)
	무응답	12(14.29)	26(9.19)	24(5.88)	(1.67)	69(5.78)
전반적 생활	나빠짐	11(13.10)	33(11.66)	60(14.71)	130(31.10)	234(19.61)
	달라진 것 없음	46(54.76)	195(68.90)	255(62.50)	171(40.91)	667(55.91)
	좋아짐	15(17.86)	30(10.60)	69(16.91)	110(26.32)	224(18.78)
	무응답	12(14.29)	25(8.83)	24(5.88)	7(1.67)	68(5.70)
나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	나빠짐	6(7.14)	18(6.36)	23(5.64)	59(14.11)	106(8.89)
	달라진 것 없음	54(64.29)	208(73.50)	323(79.17)	261(62.44)	846(70.91)
	좋아짐	13(15.48)	32(11.31)	38(9.31)	91(21.77)	174(14.59)
	무응답	11(13.10)	25(8.83)	24(5.88)	7(1.67)	67(5.62)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	나빠짐	7(8.33)	27(9.54)	61(14.95)	142(33.97)	237(19.87)
	달라진 것 없음	44(52.38)	171(60.42)	240(58.82)	200(47.85)	655(54.90)
	좋아짐	22(26.19)	60(21.20)	83(20.34)	68(16.27)	233(19.53)
	무응답	11(13.10)	25(8.83)	24(5.8 )	8(1.91)	68(5.70)
나를 대하는 주변인들 의 태도	나빠짐	4(4.76)	23(8.13)	34(8.33)	99(23.68)	160(13.41)
	달라진 것 없음	55(65.48)	200(70.67)	311(76.23)	240(57.42)	806(67.56)
	좋아짐	14(16.67)	35(12.37)	39(9.56)	72(17.22)	160(13.41)
	무응답	11(13.10)	25(8.83)	24(5.88)	7(1.67)	67(5.62)
학교 다니기	나빠짐	10(11.90)	43(15.19)	65(15.93 )	156(37.32 )	274(22.97)
	달라진 것 없음	53(63.10)	187(66.08)	280(68.63 )	194(46.41 )	714(59.85)
	좋아짐	10(11.90)	28(9.89)	39(9.56 )	51(12.20 )	128(10.73)
	무응답	11(13.10)	25(8.83)	24(5.88 )	17(4.07 )	77(6.45)

〈표 IV-16〉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쉽터	계
아르바이트	2(2.38)	22(7.77)	51(12.50)	161(38.52)	236(19.78)
이전에 모아둔	41(48.81)	144(50.88)	217(83.19)	120(28.71)	522(43.76)
구걸	2(2.38)	4(1.41)	11(2.70)	36(8.61)	53(4.44)
성매매	0(0.00)	3(1.06)	7(1.72)	14(3.35)	24(2.01)
훔치거나 빼앗음	2(2.38)	11(3.89)	16(3.92)	86(20.57)	115(9.64)
친구, 선배의 도움	7(8.33)	71(25.09)	136(33.33)	177(42.34)	391(32.77)
기타	11(13.10)	40(14.13)	50(12.25)	84(20.10)	185(15.51)
무응답	26(30.95)	53(18.73)	39(9.56)	12(2.87)	130(10.90)
계	84(100.0)	283(100.0)	408(100.0)	418(100.0)	1,193(100.0)

라 할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서 보다 주목할 것은 가출로 인해 개인적 상황이 나빠진 경우가 각 상황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23%로, 적지 않은 경우에서 가출이 청소년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가출시 생활비 해결 방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IV-16〉), 초·중·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전에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었다.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쉽터 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과는 또 다르게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은 비율(14.8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로 번 돈(13.50)으로 생활비를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쉽터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훔쳐서 생활비를 해결했다는 응답비율(7.21%)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가출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높은 쉽터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탈 행동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출 후 일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표 IV-17〉)에서, 일반 청소년은 약 18%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데 비해 쉽터 청소년들은 약 53%가 '그렇다'고 응답해 이 역시 쉽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경제활동에

<표 IV-17> 가출 후 일해 본 경험 및 일한 곳

단위: 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쉼터
경험 여부	있다	15(17.86)	44(15.55)	82(20.10)	141(18.19)	221(52.87)
	없다	67(79.76)	231(81.63)	321(78.68)	619(79.87)	197(47.13)
	무응답	2(2.38)	8(2.83)	5(1.23)	15(1.94)	0(0)
	계	84(100)	283(100)	408(100)	775(100)	418(1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쉼터	계
일한 장소 (중복 응답)	주유소	1(11.11)	8(22.86)	15(21.43)	72(34.78)	96(22.91)
	슈퍼, 편의점	3(33.33)	10(28.57)	19(27.14)	60(28.99)	92(28.66)
	음식점	2(22.22)	10(28.57)	38(54.29)	119(57.49)	169(52.65)
	다방, 카페	0(0.00)	1(2.86)	4(5.71)	7(3.38)	12(3.74)
	PC방	1(11.11)	12(34.29)	21(30.00)	84(40.58)	118(36.76)
	당구장	0(0.00)	4(11.43)	10(14.29)	27(13.04)	41(12.77)
	만화방	1(11.11)	1(2.86)	6(8.57)	8(3.86)	16(4.98)
	호프집, 소주방	0(0.00)	3(8.57)	8(11.43)	30(14.49)	41(12.77)
	비디오방	0(0.00)	1(2.86)	6(8.57)	4(1.93)	11(3.43)
	노래방	1(11.11)	3(8.57)	11(15.71)	34(16.43)	49(15.26)
	단란주점, 룸싸롱	0(0.00)	4(11.43)	9(12.86)	18(8.70)	31(9.66)
	윤락가	0(0.00)	3(8.57)	9(12.86)	4(1.93)	16(4.98)
	전화방, 휴게텔	2(22.22)	2(5.71)	4(5.71)	1(0.48)	9(2.80)
	티켓다방	0(0.00)	2(5.71)	4(5.71)	5(2.42)	11(3.43)
	안마시술소	1(11.11)	2(5.71)	6(8.57)	1(0.48)	10(3.12)
	기타 유흥업소	1(11.11)	2(5.71)	8(11.43)	33(15.94)	44(13.71)
	계	9(100.0)	35(100.0)	70(100.0)	207(100.0)	321(100.0)

보다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출 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한 곳은 음식점(52.6%)이었으며 PC방(36.8%)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쉼터 청소년 207명 중에는 주유소에서 72명(약 37%), 슈퍼 및 편의점에서 60명(약 29%), 노래방에서 34명(약 16%), 기타 유흥업소에서 33명(약 16%), 호프집 및 소주방에서 30명(약 15%), 당구장에서 27명(약 13%) 등이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에서 일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 207명의 응답자 중 18명으로 약 9%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이 유해환경 및 그에 따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502명 중 가출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모두 27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54%에 달했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학년을 살펴보면(<표 IV-18>), 고

<표 IV-18> 학교 중단 시기 및 주된 이유

구 분	인원(명)	%
시기	초등학교 때	11 (3.99)
	중학교 1학년	25 (9.06)
	중학교 2학년	48 (17.39)
	중학교 3학년	46 (16.67)
	고등학교 1학년	109 (39.49)
	고등학교 2학년	32 (11.59)
	고등학교 3학년	5 (1.81)
	계	276 (100.00)
주된 이유	가출을 해서	108 (39.13)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20 (7.25)
	상급학교로 진학할 성적이 안 돼서	4 (1.45)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체적을 당해서	26 (9.42)
	다니기가 싫어서	87 (31.52)
	교사나 친구,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11 (3.99)
	기타	14 (5.07)
	무응답	6 (2.17)
	계	276 (100.00)

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그만두는 것(39.40%)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때 그만 둔 이들 11명(4%)을 포함하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시기에 그만 둔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약 47%(130명)에 달했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가출을 해서’가 39%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가 31.5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이 가출이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가장 꼽혔다는 사실은 가출이 청소년 학교 중단에 중요한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의 학업 중단은 이후 성인기의 실업 및 빈곤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 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들의 이후 계획을 살펴보면(<표 IV-19>), 가정복귀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의 15.8%로 나타났으며 ‘자립할 것’이라는 응답이나 ‘가능하면 자립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75.64%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의 강한 자립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출청소년 중 가정으로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정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정확한 사정을 통해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자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9> 가출 중인 청소년들의 이후 계획

	단위: 명(%)		
	일반	쉼터	전체
자립할 것이다	3	144	147(44.68)
가능하면 자립할 것이다	-	92	92(27.96)
반반이다	-	38	38(11.55)
가능하면 집에 들어갈 것이다	1	30	31(9.42)
집에 들어갈 것이다	2	19	21(6.38)
Total	6	323	329(100.00)

## 2) 가출유형별 가출실태

여기서는 청소년의 가출유형별 가출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가출유형은 가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무경험자, 일회성가출자, 반복가출자, 장기가출자, 만성가출자로 분류하였다. 무경험자는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일회성가출자는 가출 횟수가 1회이며 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비교적 짧은 경우를 포함하였다. 반복가출자는 가출횟수는 2회 이상이지만, 최장 가출기간이 일주일 이내인 경우로 단기 가출을 반복한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장기가출자는 가출 횟수는 1회이지만 최장가출기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가출 횟수는 적지만 가출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성가출자는 가출 횟수도 2회 이상이고 최장 가출 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가출 횟수도 다수이고 기간도 긴 경우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의 규모를 보면,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은 9,06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8.8%를 차지하였고, 일회성가출자는 341명(3.3%), 반복가출자는 317명(3.1%), 장기가출자는 33명(0.3%), 만성가출자는 456명(4.5%)으로 나타났다.

### (1) 가출유형별 첫 가출시기

가출유형에 따른 첫 가출시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20>에 따르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 첫 가출시기는 약 14.1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출유형에 따라 가출시기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 1095)=10.11, p<.01$ ). 사후검사로써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반복가출 집단의 첫 가출시기는 약 13.7세로 일회성이나 장기 가출 집단에 비해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가출집단의 첫 가출시기는 약 15.8세로 다른 가출집단에 비해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첫 가출기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긴 장기가출자의 경우는 비교적 가출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

<표 IV-20> 가출유형과 첫 가출시기

	<i>N</i>	평균 나이	표준편차
일회성	323	14.42	2.52
반복	305	13.70	2.42
장기	31	15.84	2.65
만성	440	14.01	2.27
계	1099	14.13	2.43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174.51	3	58.17	10.11**	반복<일회성 ·
집단내	6301.14	1095	5.75		만성<장기
계	225874.00	1099			

\*\*  $p < .01$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주일 이내의 단기가출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복가출자들이나 첫 가출이 일주일 이상인 장기가출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가출관련 요인이 다른 가출집단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특성을 좀 더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2) 가출유형별 가출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

가출 후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가출유형별 응답을 살펴보면,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비율은 <표 IV-21>과 같다. 모든 유형의 가출 청소년에게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각 도움의 영역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일회성 및 반복가출자 보다는 장기 및 만성가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성가출자들은 다른 가출자에 비해 가출해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반면, 가족의 도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이 만성화될 경우 가출 청소년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또는 그와 동시에, 보호시설에서 주

<표 IV-21> 가출유형별 가출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중복응답)

단위: %, 명

		가족	친구	친척	교사	가출 해서 만난 친구	경찰관	보호시설	기타	사례수 (명)
돈을 주거나 퀴즘	일회성	15.35	69.31	5.94	2.48	5.94	0.50	0.99	18.81	202
	반복	12.28	78.02	5.26	0.00	3.51	0.88	1.75	12.72	228
	장기	29.63	59.26	7.41	0.00	7.41	0.00	7.41	18.52	27
	만성	14.04	71.43	7.64	4.43	21.18	4.93	10.10	11.58	406
	계	14.37	72.31	6.60	2.67	12.51	2.67	5.68	13.79	863
힘들 때 위로해 줌	일회성	20.66	75.62	5.37	3.72	6.20	0.41	3.72	9.09	242
	반복	17.76	77.99	5.02	4.63	3.86	1.16	3.47	11.20	259
	장기	10.00	73.33	10.00	13.33	10.00	3.33	10.00	3.33	30
	만성	6.47	73.62	5.04	8.39	17.75	3.60	18.23	8.87	417
	계	13.29	75.32	5.27	6.33	10.76	2.11	10.23	9.39	948
잠자리/ 먹을 것 제공	일회성	17.65	62.90	7.24	0.90	3.62	0.00	5.88	8.60	221
	반복	11.11	73.02	4.76	0.00	3.57	0.40	7.54	10.71	252
	장기	7.14	53.57	7.14	0.00	3.57	7.14	28.57	7.14	28
	만성	3.96	61.07	3.96	2.33	17.02	3.96	35.90	8.16	429
	계	9.25	64.52	5.05	1.29	9.78	1.94	20.86	10.00	930
필요한 정보 제공	일회성	14.72	65.48	6.09	4.57	4.57	0.51	2.03	13.71	197
	반복	10.36	70.72	3.15	2.70	5.41	2.70	7.21	13.06	222
	장기	0.00	65.38	3.85	19.23	3.85	3.85	15.38	3.85	26
	만성	4.43	52.22	3.69	4.68	17.00	6.65	34.98	8.62	406
	계	8.23	60.52	4.11	4.58	10.69	4.11	20.68	10.81	851
일자리 소개	일회성	8.33	43.33	5.00	1.67	7.50	0.83	1.67	39.17	120
	반복	5.04	46.76	1.44	0.72	1.44	0.72	3.60	41.73	139
	장기	0.00	55.00	0.00	5.00	10.00	0.00	15.00	25.00	20
	만성	2.30	47.21	1.64	3.61	14.43	1.64	15.41	30.82	305
	계	4.11	46.58	2.23	2.57	9.76	1.20	9.76	34.93	584

는 지원도 다른 가출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청소년들의 보호시설 이용실태

여기서는 앞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가출 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의 가출 청소년들에 비해 보호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 상담센터 및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가출 충동의 정도가 가출의 예측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가출충동의 정도에 따라서도 보호시설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① 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실태

우선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V-22>), 쉼터 인지에 있어서 가출충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261.56, p<.01$ ). 가출 충동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더 많은 이들이 쉼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

<표 IV-22> 가출 충동 및 유형별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명)

충동여부	전혀	가끔	자주	항상	무응답	계	$\chi^2(df)$
안다	1612	1349	327	129	41	3,458	261.56** (4)
모른다	4104	2192	319	83	97	6,795	
인 지 계	5716	3541	646	212	138	10,253	
가출유형	경험없음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안다	2748	150	138	26	379	3,441	604.15** (4)
모른다	6312	191	179	7	77	6,766	
계	9060	341	317	33	456	10,207	
가출유형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이 용 이 용 안 했 다	36	46	19	328	429	414.84** (3)	
용 이 용 안 했 다	305	271	14	128	718		
계	341	317	33	456	1,147		

\*\*  $p < .01$

로 가출 충동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 중 약 60%(5,716명 중 4,104명)가 쉼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항상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약 61%(212명 중 129명)가 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 여부 및 유형에 따라서도 쉼터 인지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604.15, p<.01$ ).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 중 쉼터에 대해 아는 이들은 30.3%(9,060명중 2,748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가출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43~83%가 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만성가출자들의 83.1%(456명 중 379명)가 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이 다른 유형의 가출자보다 보호시설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일회성 및 반복가출자의 과반수 이상이 쉼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쉼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쉼터의 이용여부에 대한 물음에서는 가출 경험 청소년 1,147명 중 429명(37.4%)이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쉼터 이용여부 역시 가출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chi^2(3)=414.84, p<.01$ ), 장기 및 만성가출집단은 일시 및 반복가출집단에 비해 쉼터를 이용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기 및 만성가출자의 경우는 각각 약 58%(19명)와 72%(328명)가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일회성 및 반복 가출자의 경우는 약 11%(36명)와 15%(46명)만

<표 IV-23> 가출 유형별 청소년 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매우 만족	13	9	5	92	119	
만족	16	28	11	197	252	
불만족	5	7	3	27	42	19.49
매우 불만족	0	1	0	11	12	(4)
무응답	2	1	0	1	4	
계	36	46	19	328	429	

$p > .05$

이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429명에게 컴터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표 IV-23>), 가출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이용자들의 컴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재 컴터에 머물고 있고, 응답자 중에 컴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응답자의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컴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물음에 청소년들은 컴터의 ‘존재여부를 몰랐다’는 응답(718명중 454명, 약 63%)이 가장 높았고, 컴터가 ‘있는지 알았지만, 이용방법을 몰랐다(61명, 약 9%)’거나 ‘이용하기 싫었다(43명, 약 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IV-24>). 컴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 ‘컴터의 존재나 이용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가 넘는다는 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컴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컴터의 이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출청소년 컴터이용의 증가는 거리생활에서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도 컴터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컴터가 ‘있는지 알았지만 이용하기 싫었다’는 응답을 한 이들을

<표 IV-24> 가출 유형별 청소년컴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있는지 몰랐다	191	179	7	77	454	
이용방법을 몰랐다	33	14	0	14	61	
필요없었다	67	56	5	20	148	31.80**
이용하기 싫었다	7	21	1	14	43	(12)
무응답	7	1	1	3	12	
계	305	271	14	128	718	

\*\*  $p < .01$

\* 이 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전체 셀의 30%이므로  $\chi^2$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신뢰하기 어려움.

<표 IV-25> 청소년쉼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기 싫은 이유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집이나 학교에 연락이 될까봐	1	4	0	3	8
내 생활을 간섭할까봐	3	2	1	1	7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있어서	0	2	0	0	2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1	9	0	5	15
기타	1	4	0	4	9
무응답	1	0	0	1	2
계	7	21	1	14	43

대상으로 이유를 추적한 결과, 쉼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43명 중 15명, 약 35%),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다른 응답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전체 응답자 43명 중 2명, 약 5%) 쉼터 이외의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서도 쉼터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IV-25>). 따라서 쉼터 홍보에 있어서 쉼터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상담센터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실태

청소년들이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V-26>), 가출충동 여부에 따라 상담센터 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149.10, p<.01$ ). 즉, 가출 충동을 느끼는 빈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상담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이 더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가출 충동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약 49%(5,716명 중 2,818명)였던 반면, 항상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약 66%(212명 중 140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 충동을 항상 느끼는 청소년들 중 약 34%(212명 중 72명)가 상담센터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것은 이들의 경우 그만큼 가출예방을 위한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출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표 IV-27> 가출 유형별 청소년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매우 만족	4	12	3	53	72	10.93(12)
만족	15	19	4	104	142	
불만족	5	2	2	13	22	
매우 불만족	2	1	0	10	13	
무응답	1	0	0	3	4	
계	27	34	9	183	253	

$p > .05$

센터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일회성 및 반복 가출자의 경우는 약 8%(27명)와 11%(34명)만이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담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253명에게 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는 <표 IV-27>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가출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특히 매우 만족하였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약 29%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물음에 상담센터의 ‘존재여부를 몰랐다’는 응답(894명 중 386명, 약 4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응답은 상담센터가 ‘있는지 알았으나 필요

<표 IV-28> 가출 유형별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있는지 몰랐다	120	139	10	117	386	50.36** (12)
이용방법을 몰랐다	44	28	3	49	124	
필요없었다	122	90	8	59	279	
이용하기 싫었다	22	25	2	28	77	
무응답	6	1	1	20	28	
계	314	283	24	273	894	

\*\*  $p < .01$

<표 IV-29>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기 싫은 이유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집이나 학교에 연락이 될까봐	7	7	0	5	19
내 생활을 간섭할까봐	3	3	0	8	14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있어서	1	1	0	0	2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4	10	1	8	23
기타	3	2	1	5	11
무응답	4	2	0	2	8
계	22	25	2	28	77

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279명, 약 31%). 한편 상담센터가 ‘있는지 알았지만, 이용방법을 몰랐다’거나(124명, 약 14%) ‘이용하기 싫었다(77명, 약 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IV-28>).

또한 상담센터가 ‘있는지 알았지만 이용하기 싫었다’는 응답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추적한 결과(<표 IV-29>), 상담센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77명 중 23명, 약 30%), 그 외에 ‘집이나 학교에 연락이 될까봐(77명 중 19명, 약 25%)’, ‘내 생활을 간섭할까 봐(77명 중 14명, 약 18%)’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다른 응답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전체 응답자 77명 중 2명, 약 3%) 상담센터 이외의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서도 상담센터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상담센터의 역할 및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③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실태

청소년들이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IV-30>), 가출충동 여부에 따라 청소년전화 1388 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4)=118.59, p<.01$ ). 가출 충동을 느끼는 정



<표 IV-31> 가출 유형별 청소년전화 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매우 만족	4	6	0	57	67	7.79 (12)
만족	8	16	7	112	143	
불만족	1	4	1	17	23	
매우 불만족	1	0	0	10	11	
무응답	0	0	0	3	3	
계	14	26	8	199	247	

$p > .05$

226.67,  $p < .01$ ), 만성가출집단은 일시 및 반복가출집단에 비해 청소년전화를 이용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성가출자의 경우는 각각 약 44%(199명)가 청소년전화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일회성 및 반복 가출자의 경우는 각각 약 4%(14명)와 8%(26명)만이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여 후자의 이용경험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전화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247명에게 청소년전화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표 IV-31>), 가출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만족하였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 수가 특히 적은 장기가출집단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별로

<표 IV-32> 가출 유형별 청소년전화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chi^2(df)$
있는지 몰랐다	163	169	9	113	454	32.77** (12)
이용방법을 몰랐다	35	16	3	30	84	
필요없었다	106	87	8	75	276	
이용하기 싫었다	18	17	4	28	67	
무응답	5	2	1	11	19	
계	327	291	25	257	900	

\*\*  $p < .01$

약 23~30%사이로 나타나 청소년전화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편 청소년전화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물음에 청소년전화의 '존재여부를 몰랐다'는 응답(900명 중 454명, 약 50%)이 가장 높았고, '있는지 알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900명 중 276명, 약 31%)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전화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용방법을 몰랐다(84명, 약 9%)'거나 '이용하기 싫었다(67명, 약 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IV-32>). 이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전화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이들이 보호시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전화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용하기 싫었다'는 응답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추적한 결과(<표 IV-33>), 청소년전화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67명 중 22명, 약 33%). 그에 비해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다른 응답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전체 응답자 43명 중 3명, 약 5%) 청소년전화 이외의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서도 청소년전화 이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나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전화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청소년전화의 역할 및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표 IV-33> 청소년전화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기 싫은 이유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집이나 학교에 연락이 될까봐	3	3	3	7	16
내 생활을 간섭할까봐	3	3	0	2	8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있어서	1	1	0	1	3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6	5	0	11	22
기타	4	3	1	6	14
무응답	1	2	0	1	4
계	18	17	4	28	67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보호시설 이용실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을 느끼는 정도가 빈번한 집단일수록 보호 시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출 충동을 자주 또는 항상 느끼면서도 보호시설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들이 약 40%에 이르는 것은 이들이 가출할 경우 거리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시설 및 지원체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출을 막고, 불가피하게 가출할 경우 보호체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가출 및 거리생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만성가출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많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회성 및 반복 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이용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성 가출자와 같은 초기 가출자들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거리생활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거리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또한, 거리생활에 적응되면 아무래도 보호체계 내의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따라서 초기 가출자들과 가출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출경험자들 중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들은 그 이유로 보호시설이 있는지 몰랐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게다가 있는지 알았으나 이용방법을 몰랐다는 응답까지 포함한다면,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이들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가출경험자들이나 가출 위험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보호시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보호시설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개인 생활의 간섭, 보호자 등에게 인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실제로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으면서도 시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개인생활에 제약을 가져오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거리생활을 통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이들이 보호체계 안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 및 지원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음을 적극 홍보한다면, 보호체계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 가출유형별 가출 전·후 개인상황의 변화

가출 전과 비교하여 가출 후 상황이 어느 정도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응답을 가출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각각의 상황에서 가출 전·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34>). 우선 건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출 경험자들(약 70%)이 가출 전·후로 건강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일회성가출집단에서는 가출 후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그러나 그 외의 가출집단에서는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만성가출집단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0%(450명 중 136명)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가출 유형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6) = 113.26, p < .01$ ).

마음의 평안한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50%(1,098명 중 548명)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21%(1,098명 중 228명)는 나빠졌다고, 그리고 29%(1,098명 중 322명)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가출 유형별 응답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2$

〈표 IV-34〉 가출 유형별 가출 전·후의 개인 상황

단위: 명

영역	집단유형	나빠짐	달라진 것 없음	좋아짐	계	$\chi^2(df)$
건강	일회성	19	260	34	313	113.26** (6)
	반복	43	243	16	302	
	장기	6	23	4	33	
	만성	136	239	75	450	
	계	204	765	129	1,098	
마음의 편한 정도	일회성	41	190	82	313	42.89** (6)
	반복	64	167	72	303	
	장기	7	14	11	32	
	만성	116	177	157	450	
	계	228	548	322	1,098	
경제적 상황	일회성	41	241	29	311	70.67** (6)
	반복	63	217	23	303	
	장기	8	20	4	32	
	만성	139	228	83	450	
	계	251	706	139	1,096	
전반적 생활	일회성	33	226	54	313	73.38** (6)
	반복	55	205	43	303	
	장기	7	16	9	32	
	만성	133	202	115	450	
	계	228	649	221	1,098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	일회성	30	221	62	313	56.96** (6)
	반복	55	185	63	303	
	장기	9	16	7	32	
	만성	137	218	94	449	
	계	231	640	226	1,097	
나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	일회성	12	265	36	313	59.28** (6)
	반복	25	251	27	303	
	장기	4	22	6	32	
	만성	61	288	101	450	
	계	102	826	170	1,098	
나를 대하는 주변인들 의 태도	일회성	20	256	37	313	56.89** (6)
	반복	36	235	32	303	
	장기	3	24	5	32	
	만성	98	270	82	450	
	계	157	785	156	1,098	

학교 다니기	일회성	36	241	35	312	75.732** (6)
	반복	63	213	27	303	
	장기	8	20	4	32	
	만성	161	221	59	441	
	계	268	695	125	1,088	

\*\*  $p < .01$

(6) = 42.89,  $p < .01$ ), 대부분의 집단에서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일회성가출집단의 경우는 가출 후 편안해졌다는 응답비율(약 26%, 313명 중 82명)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약 18%, 313명 중 41명)보다 높았다. 이는 가출 전 이들의 갈등상태가 최고조였다가 가출 후 갈등상황의 일시적 소거와 그에 따른 해방감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상황에서는 모든 가출유형 집단에서 가출 후 나빠졌다고 인식한 비율이 좋아졌다고 인식한 비율보다 높아 가출 후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가출 후 경제적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빈도는 가출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특히 경제사정이 가출 후 나빠졌다는 응답이 만성가출집단에서 높게 나타나(450명 중 139명, 약 31%) 이들이 다른 가출집단에 비해 생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chi^2(6) = 70.67, p < .01$ ).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출유형에 따라 응답빈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6) = 73.38, p < .01$ ).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 및 만성 가출집단에서는 가출 후 전반적인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빈도(각각 약 18%, 303명 중 55명; 약 30%, 450명 중 133명)가 좋아졌다는 응답빈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일회성 및 장기 가출집단에서는 가출 후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빈도가 나빠졌다는 응답빈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각각 약 17%, 313명 중 54명; 약 28%, 32명 중 9명).

나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가출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응답빈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chi^2(6) = 56.96, p$

<.01). 보다 구체적으로 장기 및 만성 가출집단에서는 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였다(각각 약 28%, 32명 중 9명; 약 31%, 449명 중 137명)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일회성 가출집단에서는 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다(약 20%, 313명 중 62명)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출이 길어질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가출예방 및 가출 후 가정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를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변화는 가출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변화하였다는 응답빈도가 많아졌는데, 그래도 모든 가출집단에서 친구들의 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6) = 59.28, p < .01$ ). 이는 앞서 가출 후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물음에서 친구가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친구는 매우 중요한 지원체계임을 보여준다.

나를 대하는 주변사람들의 태도변화는 가출 유형에 따라 응답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chi^2(6) = 56.89, p < .01$ ). 일회성 및 장기가출집단에서는 가출 후 주변사람들의 태도가 좋아졌다(각각 약 12%, 313명 중 37명; 약 16%, 32명 중 5명)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에 비해 그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가출집단에서는 반대로 나빠졌다(약 22%, 450명 중 98명)는 응답빈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빈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다니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 가출집단을 제외한 모든 가출집단에서 가출 후 학교 다니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hi^2(6) = 75.73, p < .01$ ). 특히 만성가출집단에서는 학교 다니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약 13%(441명 중 59명)인데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은 약 37%(441명 중 161명)로 약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의 학업중단비율이 높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출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가출 전·후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특히 건강, 경제적 상황, 가족들의 태도, 학교 다니기에서 만성 가출자들은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출이 만성화될수록 청소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5) 가출유형별 생활비 해결방법

가출유형에 따라 가출시 생활비 해결 방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IV-35>), 집단에 따라 응답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성 및 반복 가출집단에서 생활비 해결방법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전에 모아둔 돈(각각 약 59%와 약 62%)이었다. 한편 장기가출집단에서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33명 중 14명, 약 42%)으로 생활비를 해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성가출집단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생활비 충당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445명 중 182명, 약 41%)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성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전체 만성가출자의 약 22%는

<표 IV-35>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아르바이트	18(6.38)	23(8.10)	9(27.237)	182(40.92)	232(22.22)
이전에 모아둔	167(59.22)	175(61.62)	11(33.33)	159(35.73)	512(49.04)
구걸	6(2.13)	4(1.41)	4(12.12)	39(8.76)	53(5.08)
성매매	0(0.00)	2(0.70)	1(3.03)	21(4.72)	24(2.30)
훔치거나 빼앗음	4(1.42)	11(3.87)	2(6.06)	96(21.57)	113(10.82)
친구, 선배의 도움	59(20.92)	102(35.92)	14(42.42)	212(47.64)	387(37.07)
기타	64(22.70)	40(14.08)	11(33.33)	66(14.83)	181(17.34)
계	282(100.0)	284(100.0)	33(100.0)	445(100.0)	1044(100.0)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훔쳐서, 약 5%는 성매매로 생활비를 해결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다른 가출집단 청소년의 응답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만성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가출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생활비 해결을 위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뿐 아니라 일탈 행동의 가능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6> 가출 유형별 가출 후 일해 본 경험 및 일한 곳

						단위: 명
		경험여부	있다	없다	무응답	계
		$\chi^2(df)$				
가출 유형	일회성	38	296	7	341	245.44** (6)
	반복	45	269	3	317	
	장기	13	20	0	33	
	만성	256	199	1	456	
	계	352	784	11	1,147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일한 장소 (중복 응답)	주유소	2	7	2	83	94
	슈퍼, 편의점	7	7	3	71	88
	음식점	12	14	6	133	165
	다방, 카페	0	0	0	12	12
	PC방	4	11	3	98	116
	당구장	1	2	0	37	40
	만화방	1	0	0	15	16
	호프집, 소주방	1	1	1	38	41
	비디오방	1	1	0	9	11
	노래방	1	5	1	42	49
	단란주점, 룸싸롱	2	0	1	28	31
	윤락가	0	2	1	13	16
	전화방, 휴게텔	0	2	0	7	9
	티켓다방	0	0	0	11	11
	안마시술소	1	0	0	9	10
	기타 유흥업소	2	3	3	34	42
	무응답	18	13	0	21	52
	계	27	35	13	236	311

\*\*  $p < .01$

\* 이 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전체 셀의 30%이므로  $\chi^2$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신뢰하기 어려움.

#### (6) 가출유형별 가출 후 일해 본 경험 및 일한 곳

가출 후 일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표 IV-36>)에서 만성가출집단에서는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빈도가 없다는 응답빈도에 비해 높았던 반면, 기타 가출집단에서는 반대의 응답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만성가출청소년들이 다른 가출청소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며, 이는 생활비 해결이 이들에게 주요한 당면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만성가출청소년의 경우는 다양한 곳에서 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이 유해환경 및 그에 따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가출 여부 및 유형에 따른 일탈행동 및 가·피해경험

여기서는 가출 여부 및 가출 유형에 따라 가출 전·후의 일탈행동 및 가·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① 가출 여부 및 가출 유형에 따른 일탈행동 및 가해 경험

우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 여부에 따라 가출 전 일탈행동 및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빈도를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가출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출유형별 가출 후 일탈 및 가해 행동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빈도를 살펴보았다(<표 IV-37>). 일탈행동 및 가해 경험에는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성관계, 남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을 심하게 놀리기, 협박하기, 따돌림(왕따)시키기를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응답빈도를 보면, 음주 및 흡연을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90%이상이 일탈 및 가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주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78%, 흡연의 경우는 약 88%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출 여부에 따라 일탈 및 가해 경험의 빈도를 보면,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집

단의 일탈행동 및 가해 경험비율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그것보다 가출 전부터 최소 10%p이상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이전부터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출 후 가출 유형에 따라 일탈행동 및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출 전과 비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빈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음주 및 흡연,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심하게 때리기, 다른 친구 따돌림 시키기 등에서는 가출 후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빈도가 가출 전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빈도보다 다소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 중 일탈 및 가해 행동을 경험하는 이들이 가출 후에 더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출

<표 IV-37> 가출 여부 및 유형별 일탈 및 가해경험

단위: %, 명

	가출여부(가출 전 경험)			가출유형(가출 후 경험)					
	없다	가끔	자주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담배 피우기	없다	51.72	92.76	87.98	88.56	71.92	45.45	29.17	59.11
	가끔	20.20	4.97	5.86	6.16	11.99	18.18	10.31	9.76
	자주	27.41	2.15	5.09	5.28	16.09	36.36	59.65	30.78
	무응답	0.67	0.12	0.19	0.00	0.00	0.00	0.88	0.35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술 마시기	없다	45.18	82.53	78.18	88.56	71.29	48.48	33.33	60.68
	가끔	39.48	16.18	18.89	7.92	21.14	27.27	26.97	19.70
	자주	14.59	1.16	2.72	2.64	7.57	24.24	39.25	19.18
	무응답	0.75	0.13	0.20	0.88	0.00	0.00	0.44	0.44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무단 결석	없다	61.94	96.36	92.35	89.74	75.08	57.58	33.99	62.60
	가끔	24.14	13.10	5.55	7.33	18.30	12.12	15.79	13.86
	자주	13.50	0.40	1.92	2.05	6.31	30.30	49.34	22.84
	무응답	0.42	0.14	0.18	0.88	0.32	0.00	0.88	0.70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성관계	없다	87.85	98.80	97.52	97.07	96.85	81.82	69.30	85.53
	가끔	8.47	0.77	1.67	2.05	1.89	9.09	19.96	9.33
	자주	2.93	0.22	0.54	0.29	0.95	9.09	9.21	4.27
	무응답	0.75	0.21	0.27	0.59	0.32	0.00	1.54	0.87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표 IV-37> 가출 여부 및 유형별 일탈 및 가해경험

단위: %, 명

	가출여부			가출유형				
	있다	없다	계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없다	76.87	95.81	93.60	97.07	90.85	78.79	63.60	81.52
남	18.69	3.73	15.47	2.05	7.26	12.12	22.15	11.77
심하게	3.86	0.32	0.73	0.29	1.58	9.09	13.16	6.02
때리기	0.59	0.14	0.20	0.59	0.32	0.00	1.10	0.70
무응답	0.59	0.14	0.20	0.59	0.32	0.00	1.10	0.70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없다	85.58	97.99	96.55	98.24	93.69	87.88	76.10	87.88
가끔	10.56	1.63	2.67	1.17	4.42	9.09	14.04	7.41
패싸움	3.10	0.18	0.52	0.00	1.58	3.03	8.77	4.01
자주	0.75	0.20	0.26	0.59	0.32	0.00	1.10	0.70
무응답	0.75	0.20	0.26	0.59	0.32	0.00	1.10	0.70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없다	79.82	97.10	95.07	96.19	89.27	87.88	55.92	78.03
남의	15.09	2.49	3.96	3.23	8.20	6.06	26.54	13.95
돈이나	4.36	0.24	0.72	0.00	1.89	6.06	16.89	7.41
물건	0.84	0.17	0.24	0.59	0.63	0.00	0.66	0.61
빼앗기	0.84	0.17	0.24	0.59	0.63	0.00	0.66	0.61
무응답	0.84	0.17	0.24	0.59	0.63	0.00	0.66	0.61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없다	83.74	96.51	95.03	96.77	90.85	84.85	67.11	83.00
남의	12.57	3.10	4.20	2.05	7.26	12.12	19.96	10.90
돈이나	2.93	0.20	0.52	0.59	1.58	3.03	12.06	5.49
물건	0.75	0.19	0.25	0.59	0.32	0.00	0.88	0.61
훔치기	0.75	0.19	0.25	0.59	0.32	0.00	0.88	0.61
무응답	0.75	0.19	0.25	0.59	0.32	0.00	0.88	0.61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없다	79.72	92.09	90.70	95.89	91.48	90.91	74.34	85.96
남을	15.17	7.15	8.09	2.93	6.62	6.06	14.69	8.72
심하게	4.27	0.55	0.99	0.29	1.58	3.03	9.87	4.53
놀리기	0.84	0.15	0.23	0.88	0.32	0.00	1.10	0.78
무응답	0.84	0.15	0.23	0.88	0.32	0.00	1.10	0.78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없다	87.01	97.86	96.60	96.48	94.32	90.91	76.75	87.88
남을	9.30	1.69	2.57	2.35	4.42	6.06	13.60	7.50
협박	2.85	0.28	0.58	0.29	0.95	3.03	8.55	3.84
자주	0.84	0.18	0.25	0.88	0.32	0.00	1.10	0.78
무응답	0.84	0.18	0.25	0.88	0.32	0.00	1.10	0.78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없다	84.07	91.09	90.28	96.77	94.01	90.91	81.80	89.89
다른	12.07	8.34	8.78	2.35	4.42	6.06	9.43	5.84
친구	3.10	0.36	0.68	0.00	1.26	3.03	7.68	3.49
따돌림	0.75	0.20	0.26	0.88	0.32	0.00	1.10	0.78
시키기	0.75	0.20	0.26	0.88	0.32	0.00	1.10	0.78
무응답	0.75	0.20	0.26	0.88	0.32	0.00	1.10	0.78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후 이탈 행동을 하는 이들은 가출 전 이미 그러한 행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가출경험이 있으나 각 일탈행동에 대해 가출 전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가출 후에도 각 행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한 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표 IV-38>). 그 결과, 가출 전 일탈 및 가해행동을 하지 않은 이들은 음주, 흡연, 무단결석,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90%이상이 가출 후에도 일탈 및 가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단, 흡연은 85%, 음주는 83%, 무단결석은 80%,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는 89%가 가출 후에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출 유형별로 가출 후에도 일탈 및 가해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가출집단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헐박하기, 다른 친구 따돌림 시키기를 제외하고는 만성가출집단에

<표 IV-38> 가출 전·후 일탈 및 가해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

단위: 가출 후 무경험자 수/ 가출 전 무경험자 수(%)

	가출 후 경험 없음					
	흡연 (총 583명)	음주 (총 511명)	무단결석 (총 702명)	성관계 (총 1004명)	남 심하게 때리기 (총 875명)	패싸움 (총 976명)
일회성	231/241(96)	173/184(94)	268/242(92)	317/320(99)	297/30(99)	313/315(99)
반복	170/187(91)	147/160(92)	193/224(86)	298/304(98)	253/260(97)	278/286(97)
장기	11/17(65)	7/9(78)	14/20(70)	23/27(85)	22/27(81)	28/31(90)
만성	84/137(61)	96/158(61)	83/166(50)	294/353(83)	239/288(83)	305/344(89)
계	496/583(85)	423/511(83)	558/702(79)	932/1004(93)	811/875(93)	924/976(95)
	가출 후 경험 없음					
	남의 돈이나 물건 빼기 (총 908명)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총 955명)	남 심하게 놀리기 (총 912명)	남 헐박하기 (총 996명)	다른 친구 따돌리기 (총 961명)	
일회성	312/317(98)	311/317(98)	289/293(99)	315/328(96)	290/294(99)	
반복	255/267(96)	269/282(95)	255/263(97)	283/289(98)	268/276(97)	
장기	26/28(93)	25/29(86)	27/28(96)	27/28(96)	25/27(93)	
만성	218/296(74)	265/327(81)	298/328(91)	322/361(89)	338/364(93)	
계	811/908(89)	870/955(91)	869/912(95)	947/996(95)	921/961(96)	

서 그 비율이 특히 감소하여, 무단결석은 약 50%만이, 음주 및 흡연은 약 60%만이, 그리고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는 약 74%만이 가출 후에도 일탈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가출로 인해 다른 일탈행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의 횟수가 많아지고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위비행이나 생활비 마련과 관련될 수 있는 금품 관련 일탈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② 가출 여부 및 가출 유형에 따른 가출 전 피해 경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출 여부에 따라 가출 전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빈도를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가출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출유형별 가출 후 피해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빈도를 살펴보았다(<표 IV-39>). 피해 경험으로는 성폭행(성희롱), 심하게 맞기,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심하게 놀림당하기, 따돌림 당하기,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응답빈도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전체 응답자의 90%이상이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출 여부에 따라 피해 경험의 빈도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피해 경험비율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그것보다 가출 전부터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하게 맞기에서 약 13%가 차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폭이 매우 적어 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출 후 가출 유형에 따라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성폭행 및 성희롱, 심하게 맞기,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 등에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가출 후 피해경험을 당한 이들의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출 전과 비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빈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의 피해 경험이 가출 후에 더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가출경험이 있으나 각 피해행동에 대해 가출 전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가출 후에도 각 행동에 대한 피해경험이 없다고 한 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표 IV-39> 가출 여부 및 유형별 피해경험

단위: %, 명

	가출여부(가출 전 경험)			가출유형(가출 후 경험)					
	있다	없다	계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계	
성폭행 (성희롱)	없다	93.71	98.39	97.84	99.12	97.79	93.94	89.25	94.68
	가끔	4.36	1.29	1.65	0.29	1.26	3.03	7.46	3.49
	자주	1.26	0.18	0.30	0.00	0.63	3.03	2.41	1.22
	무응답	0.67	0.14	0.20	0.59	0.32	0.00	0.88	0.61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심하게 맞기	없다	83.32	96.08	94.60	98.24	94.64	91.91	82.24	90.67
	가끔	12.49	3.37	4.43	0.88	3.79	6.06	14.04	7.06
	자주	3.60	0.38	0.75	0.29	0.63	3.03	3.29	1.66
	무응답	0.59	0.18	0.22	0.59	0.95	0.00	0.44	0.61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 기기	없다	86.17	91.42	90.81	96.19	93.38	90.91	85.53	91.02
	가끔	11.74	8.11	8.53	2.93	4.73	9.09	9.87	6.36
	자주	1.34	0.31	0.43	0.00	0.95	0.00	3.73	1.74
	무응답	0.75	0.15	0.22	0.88	0.95	0.00	0.88	0.87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심하게 놀림 당하기	없다	90.53	93.28	92.96	97.07	94.64	93.94	92.54	94.51
	가끔	6.20	5.67	5.73	1.47	2.52	9.06	4.39	3.05
	자주	2.35	0.86	1.03	0.29	1.58	0.00	2.19	1.39
	무응답	0.92	0.19	0.27	1.17	1.26	0.00	0.88	1.05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협박 당하기	없다	91.79	96.67	96.10	97.07	95.27	90.91	91.01	93.98
	가끔	6.12	2.72	3.11	1.47	2.84	6.06	5.92	3.75
	자주	1.26	0.42	0.52	0.00	0.95	3.03	2.19	1.22
	무응답	0.84	0.20	0.27	1.47	0.95	0.00	0.88	1.05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따돌림 당하기	없다	90.86	93.74	93.41	97.07	94.95	90.91	93.64	94.94
	가끔	5.78	5.23	5.30	1.47	2.84	9.09	3.29	2.79
	자주	2.60	0.81	1.01	0.29	0.95	0.00	2.19	1.22
	무응답	0.75	0.22	0.28	1.17	1.26	0.00	0.88	1.05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아르바 이트 시 부당 대우	없다	93.04	98.49	97.85	97.07	96.53	90.91	85.96	92.33
	가끔	4.78	0.78	1.25	0.88	0.95	6.06	9.65	4.53
	자주	1.17	0.19	0.30	1.17	0.95	3.03	3.95	2.27
	무응답	1.01	0.54	0.59	0.88	1.58	0.00	0.44	0.87
	계(명)	1,193	9,060	10,253	341	317	33	456	1,147

<표 IV-40> 가출 전·후 피해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

단위: 가출 후 경험자 수/ 가출 전 경험자 수(%)

	가출 후 경험 없음						
	성폭행 (성희롱) (총 1072명)	심하게 맞기 (총 949명)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총 987명)	놀림 당하기 (총 1038명)	협박 당하기 (총 1051)	따돌림 당하기 (총 1043명)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 (총 1067명)
일회성	325/327(99)	301/302(99)	287/297(97)	307/312(98)	309/316(98)	305/312(98)	322/328(98)
반복	297/302(98)	264/269(98)	260/265(98)	274/283(97)	283/289(98)	281/288(98)	296/301(98)
장기	26/27(96)	23/25(92)	25/27(93)	28/29(97)	26/28(93)	27/29(93)	29/30(97)
만성	388/416(93)	316/353(90)	362/398(91)	394/414(95)	393/418(94)	403/414(97)	381/408(93)
계	1038/1072(97)	904/949(95)	934/987(95)	1008/1038(97)	1011/1051(96)	1016/1043(97)	1028/1067(96)

(<표 IV-40>). 그 결과, 가출 전 피해경험이 없는 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약 95%이상이 가출 후에도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가출로 인해 피해경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만성가출집단들의 피해경험이 기타 유형의 가출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보고가 되어 만성가출청소년들의 신변이 기타 가출 청소년에 비해 안전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 3) 가출유형과 관련요인

여기서는 청소년의 가출유형과 가출관련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출 유형은 앞 절에서 서술했듯이 가출 기간과 횟수에 따라 무경험자, 일회성가출자, 반복가출자, 장기가출자, 만성가출자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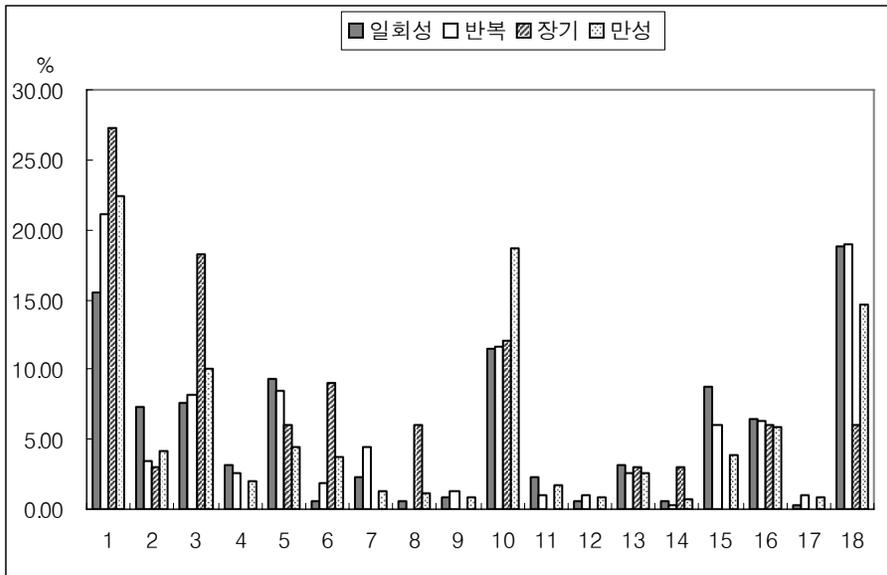
#### (1) 가출유형과 가출의 제 1원인

각 가출유형들이 가출원인으로 제 1순위로 꼽은 내용을 살펴보면(<표 IV-41>), 모든 유형에서 ‘부모님이 싫어서’ 가출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부모님이 싫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고 때려서’,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쳐서’, ‘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

<표 IV-41> 가출의 제 1원인

단위: 명(%)

	일회성	반복	장기	만성
1.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싫어서	53(15.54)	67(21.14)	9(27.27)	102(22.37)
2.부모님들이 서로 자주 싸워서	25(7.33)	11(3.47)	1(3.03)	19(4.17)
3.부모님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서	26(7.62)	26(8.20)	6(18.18)	46(10.09)
4.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11(3.23)	8(2.52)	0(0.00)	9(1.97)
5.부모님이 나에 대한 간섭을 지나치게 해서	32(9.38)	27(8.52)	2(6.06)	20(4.39)
6.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2(0.59)	6(1.89)	3(9.09)	17(3.73)
7.부모님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8(2.35)	14(4.42)	0(0.00)	6(1.32)
8.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2(0.59)	0(0.00)	2(6.06)	5(1.10)
9.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을 당해서	3(0.88)	4(1.26)	0(0.00)	4(0.88)
10.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39(11.44)	37(11.67)	4(12.12)	85(18.64)
11.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8(2.35)	3(0.95)	0(0.00)	8(1.75)
12.학교 친구나 선배들이 괴롭혀서	2(0.59)	3(0.95)	0(0.00)	4(0.88)
13.학교규칙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서	11(3.23)	8(2.52)	1(3.03)	12(2.63)
14.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2(0.59)	1(0.32)	1(3.03)	3(0.66)
15.공부가 부담돼서	30(8.80)	19(5.99)	0(0.00)	18(3.95)
16.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22(6.45)	20(6.31)	2(6.06)	27(5.92)
17.기타	1(0.29)	3(0.95)	0(0.00)	4(0.88)
18.무응답	64(18.77)	60(18.93)	2(6.06)	67(14.69)
계	341(100.00)	317(100.00)	33(100.00)	456(100.00)



아서' 등의 이유는 모두 부모님과 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묶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부모님과 의 갈등을 제 1원인으로 꼽은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회성가출자 34.89%, 반복가출자 42.28%, 장기가출자 51.51%, 만성가출자 38.17%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 갈등을 제외하고 높은 순위를 차지한 또 다른 이유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였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또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좋아서' 가출을 했다는, 즉 유희성 가출로 묶일 수 있는 이들의 비율을 가출 유형별로 보면, 일회성가출자 11.73%, 반복가출자 12.62%, 장기가출자 12.12%, 만성가출자 24.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주된 가출 이유는 부모님과 의 갈등과 유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에 있어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희가 주된 이유인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만성가출자집단에서 다소 높았으며, 부모님과 의 갈등이 가출의 주 원인이 된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장기가출자 집단에서 다소 높았다. 또한 장기가출자는 다른 유형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욕을 하거나 때려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서' 등의 항목에서의 응답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러한 이유들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 가정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장기가출자들 중에는 생존을 위해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경우가 다른 가출 유형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가출자의 경우는 그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적고, 그에 따라 비율이 높아진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다른 집단에 비해 일회성가출자에게서 가출의 제 1원인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부모님이 서로 자주 싸워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부가 부담이 되어서' 가출한 경우는 일회성가출자나 반복가출자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가출했다는 응

답은 다른 유형보다는 반복가출자들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핫김에 또는 일시적인 해방감을 위해 가출하는 경향이 장기나 만성가출자들보다는 일회성이나 반복가출자들 중에 더 많이 있음을 시사한다.

## (2) 가출유형과 가정환경

가출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 부모님의 학대 및 방임의 정도에 대해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지지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42>와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가족지지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214.28, p<.01$ ). 사후검사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가족지지 총점 평균(24.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회성 및 반복가출자(각각의 총점평균 22.46과 22.11)였으며, 장기 및 만성가출자의 가족지지 총점 평균(각각의 총점평균 18.18과 18.2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다 심각한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 내 지지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42> 가출유형과 가족지지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24.94	5.04
일회성	341	22.46	5.89
반복	317	22.11	7.33
장기	33	18.18	5.54
만성	456	18.28	7.40
계	10,207	24.45	5.50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23929.55	4	5982.39	214.28**	장기·만성 <
집단내	284829.00	10202	27.919		반복·일회성 <
계	308758.60	10206			무경험

\*\*  $p < .01$

〈표 IV-43〉 가출유형과 학대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7.02	3.02
일회성	341	8.16	3.33
반복	317	9.45	5.13
장기	33	9.91	4.15
만성	456	11.23	4.80
계	10,207	7.33	3.37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9706.51	4	2426.63	233.84**	만성 >
집단내	105869.40	10202	10.377		장기·반복 >
계	115575.90	10206			일회성·무경험

\*\*  $p < .0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학대 총점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43〉과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학대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233.84, p<.01$ ). 사후검사로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과 일회성 가출 집단의 학대 총점 평균(각각 7.02와 8.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반복 및 장기가출자(각각의 총점 평균 9.45와 9.91)였으며, 만성가출자의 학대 총점 평균(각각의 총점평균 11.2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유형별 가출 제 1원인에서 장기가출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욕을 듣거나 맞아서’가 제 1원인이 경우가 만성가출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그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심각한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가족 내 학대 경험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방임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44〉와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방임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129.13, p<.01$ ). 사후검사로서 Scheffé

〈표 IV-44〉 가출유형과 방임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7.70	3.68
일회성	341	8.48	3.33
반복	317	9.57	5.73
장기	33	10.91	4.03
만성	456	11.55	5.66
계	10,207	7.97	3.96

	SS	df	MS	F	Scheffé
집단간	7703.38	4	1925.85	129.13**	
집단내	152151.10	10202	14.914		만성 > 반복 > 반복 > 무경험
계	159854.50	10206			

\*\*  $p < .01$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의 총점 평균은 7.7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회성가출집단의 방임 총점 평균은 8.48로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반복 및 장기가출자(각각의 총점평균 9.57과 10.9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기와 만성가출자(각각의 총점평균 10.91과 11.55)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만성가출자의 방임경험 총점평균이 반복가출자의 그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심각한 형태의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가족 내 방임 경험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가족 지지 및 학대 정도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측치 62명을 제외한 1,131명의 가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가출유형과 가정의 경제적 상황<sup>18)</sup>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45〉와 같다. 만성가출자 452명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즉 ‘못 산다’ 또는 ‘약간 못 산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44명(54%)로 나타난 반면, 가정 형편이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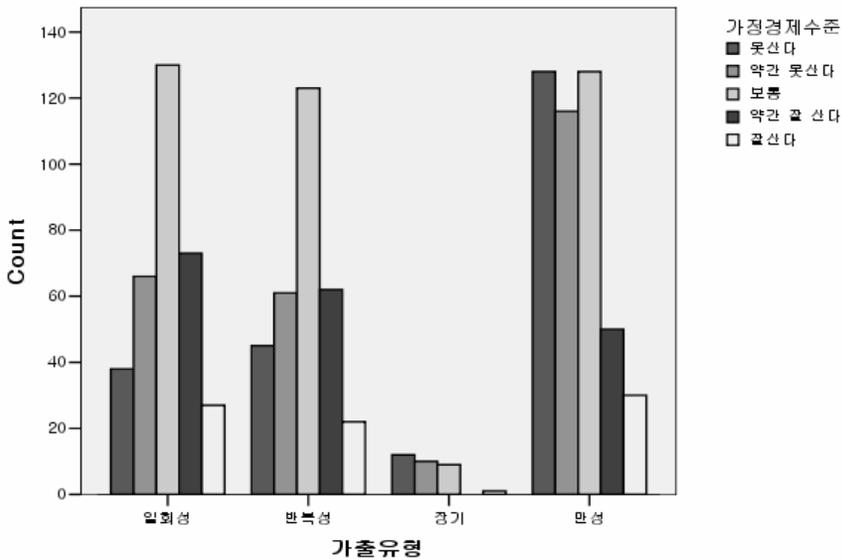
18)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설문지에서 7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나 양 극단의 값이 그리 크지 않은 관계로 ‘매우 못 산다’와 ‘못 산다’를 하나의 범주로, ‘매우 잘 산다’와 ‘잘 산다’를 또 다른 하나의 범주로 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45〉 가출유형과 가정형편

	못 산다	약간	보통	약간	잘산다	계	단위: 명 $\chi^2(df)$
일회성	38	66	130	73	27	334	76.02** (12)
반복	45	61	123	62	22	313	
장기	12	10	9	0	1	32	
만성	128	116	128	50	30	452	
계	223	253	390	185	80	1,131	

\*\*  $p < .01$

Bar Chart



부유한 경우, 즉 ‘약간 잘 산다’ 또는 ‘잘 산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0명 (17.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가출자 32명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즉 ‘못 산다’ 또는 ‘약간 못 산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2명 (68.8%)로 나타난 반면, 가정 형편이 비교적 부유한 경우, 즉 ‘약간 잘 산다’ 또는 ‘잘 산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명 (3.1%)로 나타났다. 반복가출자 313명 중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와 부유한 경우가 각각 106명 (33.9%)과 84명 (26.8%)로 만성가출자나 장기가출자에 비해 그 차가 적었다. 일회성가출자 334명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와 부유한 경우 역시 각각 104명

(31.2%)과 100명((30%)으로 집단 간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장기나 만성가출자들의 가정형편이 다른 유형의 가출자나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썩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chi^2(12)=76.02,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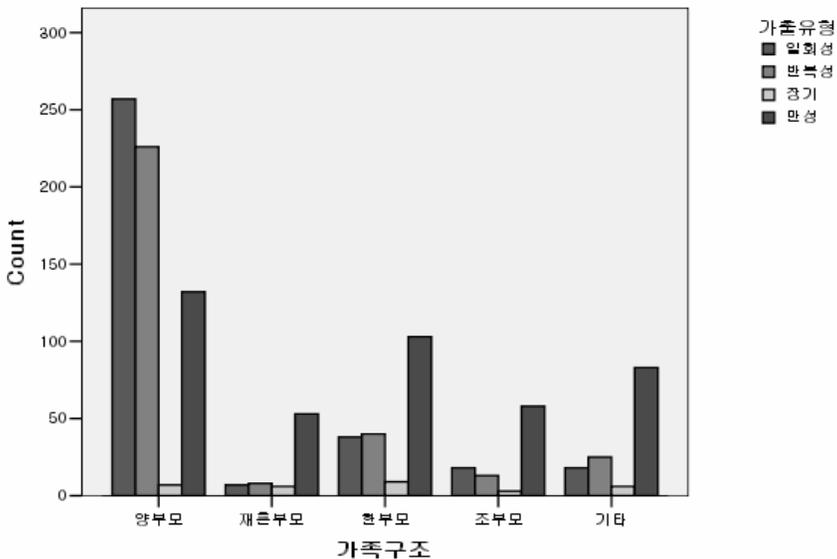
결측치 83명을 제외한 1,110명의 가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가출유형과

<표 IV-46> 가출유형과 가족구조

							단위: 명
	양부모	재혼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계	$\chi^2(df)$
일회성	257	7	38	18	18	338	227.63** (12)
반복	226	8	40	13	25	312	
장기	7	6	9	3	6	31	
만성	132	53	103	58	83	429	
계	622	74	190	92	132	1,110	

\*\*  $p < .01$

Bar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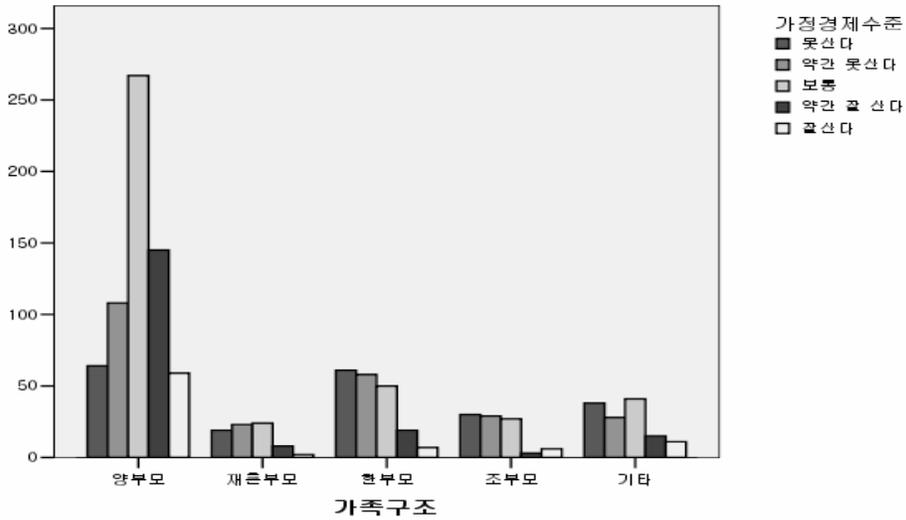


가족구조<sup>19)</sup>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46>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227.63, p<.01$ ). 만성가출자 429명 중에는 양부모가정출신이 30.8%(13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24%, 103명), 기타 가정(19.3%, 83명), 조손가정(13.5%, 92명), 재혼부모 가정(12.4%, 53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가출자 31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경우는 한부모 가정(29%, 9명)으로 나타났으며, 반복가출자 312명 중에는 양부모 가정(72.4%, 226명)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출신(12.8%, 40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일회성가출 역시 전체 338명 중 양부모 가정이 41.3%(2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양부모 가정 출신의 가출자가 가장 많은 것은 양부모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가족구조 유형 안에 어떠한 가출유형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출신인 622명 중에는 일회성가출(41.3%, 257명)과 반복가출(36.3%, 226명) 비율이 다른 가출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가출은 132명으로 21.2%로 나타났다. 한편 재혼가정(74명)과 한부모 가정(190명), 조손가정(92명), 기타 가정(132명)에서는 만성가출이 가장 많은 비율(각각 71.6%(53명), 54.2%(103명), 63%(58명), 62.9%(83명))을 차지하는 가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보다는 그 외의 가족유형에서 만성가출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는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가정이 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의 가정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가족 유형과 가정의 경제수준, 가족의 지지, 부모님의 방임 및 학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가족 유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간에 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chi^2(16)=136.12, p<.01$ ), 양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경제수

19) 가족구조는 친부모와 함께 사는 양부모가정, 친부나 계모, 또는 친모나 계부와 사는 재혼부모가정, 친모 또는 친부와 사는 한부모 가정,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사는 조손 가정, 그 외의 부모 및 조부모 없이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 등은 기타로 유형화 하였다.



[그림 IV-3] 가족유형과 가정의 경제수준

<표 IV-47> 가족유형과 양육환경

구분	가족유형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가족지지	양부모	8,315	24.95	5.02	
	재혼부모	187	20.47	6.64	양부모 >
	한부모	781	22.34	5.90	한부모 · 조손
	조손	444	22.52	6.39	· 기타 >
	기타	472	22.60	8.15	재혼부모
	계	10,199	24.45	5.48	
학대	양부모	8,315	7.03	2.95	
	재혼부모	187	9.83	4.24	양부모 <
	한부모	781	8.19	3.96	한부모 · 조손
	조손	444	8.12	3.68	모 < 기타 <
	기타	472	9.09	5.74	재혼부모
	계	10,199	7.32	3.34	
방임	양부모	8,315	7.67	3.52	
	재혼부모	187	9.26	4.26	양부모 <
	한부모	781	8.86	4.07	한부모 · 조손
	조손	444	9.09	4.70	· 재혼부모 <
	기타	472	9.80	7.13	조부모
	계	10,199	7.95	3.92	· 재혼부모 · 기타

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양극으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그 외의 가정유형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부유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IV-3].

가족 유형에 따라 양육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가족 유형과 가족지지( $F(4, 10194)=102.47, p<.01$ ) 및 가족 유형과 부모의 학대( $F(4, 10199)=98.38, p<.01$ ), 가족 유형과 부모의 방임( $F(4, 10199)=63.27, p<.01$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표 IV-47>), 양부모가정은 가족지지수준이 가장 높고 학대와 방임정도는 가장 낮은 반면, 재혼부모가정은 가족지지수준이 가장 낮고 학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 내 방임은 기타 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육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족지지( $F(4, 10116)=262.02, p<.01$ ) 및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대( $F(4, 10116)=59.24, p<.01$ ),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방임( $F(4, 10116)=29.99, p<.01$ )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를 보면(<표 IV-48>),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가족 지지도가 낮아졌으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보통이나 부유한 가정에 비해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도 가정이 못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아 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심각한 가출 경험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가족 지지도가 낮고 학대나 방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구조와는 독립적으로 가족지거나 부모로부터의 방임 및 학대가 가출 유형과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구조와는 독립적으로 가족지지와 부모로부터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들의 가

〈표 IV-48〉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양육환경

구분	경제수준	N	평균	표준편차	Scheffé
가족지지	1. 못 산다	692	20.44	6.39	
	2. 약간 못 산다	1,500	22.57	5.26	
	3. 보통이다	4,428	24.30	4.91	1 < 2 < 3 <
	4. 약간 잘 산다	2,460	25.61	4.92	4 < 5
	5. 잘 산다	1,041	27.11	5.03	
	계	10,121	24.39	5.35	
학대	1. 못 산다	692	8.76	4.08	
	2. 약간 못 산다	1,500	7.79	3.26	
	3. 보통이다	4,428	7.20	3.06	1 > 2 >
	4. 약간 잘 산다	2,460	6.92	2.87	3 · 4 · 5
	5. 잘 산다	1,041	7.00	3.24	
	계	10,121	7.31	3.18	
방임	1. 못 산다	692	9.14	3.77	
	2. 약간 못 산다	1,500	8.29	3.68	
	3. 보통이다	4,428	7.84	3.62	1 > 2 · 5 >
	4. 약간 잘 산다	2,460	7.53	3.36	3 · 4 · 5
	5. 잘 산다	1,041	7.90	4.61	
	계	10,121	7.93	3.71	

〈표 IV-49〉 가출유형과 가정환경에 대한 공변량 분석

가족 지지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8,929	24.91	24.91	4.93
일회성	331	22.45	22.45	5.85
반복	309	21.70	21.70	5.46
장기	30	18.13	18.13	5.64
만성	426	18.07	18.07	7.01
계	10,025	24.42	24.42	5.32
	SS	df	MS	F
수정모형	43901.60	6	7316.93	305.47**
절편	111651.83	1	111651.83	4661.35**
가족구조(공변량)	1403.07	1	1403.07	58.58**
가정경제수준(공변량)	16317.62	1	16317.62	681.24**
가출유형	13753.59	4	3438.40	143.55**
error	239958.20	10018	23.95	
계	6263280.00	10025		

\*\*  $p < .01$

〈표 IV-50〉 가출유형과 가정환경에 대한 공변량 분석

학대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8929	6.70	2.88
일회성	331	8.18	3.35
반복	309	9.04	3.73
장기	30	9.70	3.99
만성	426	11.14	4.57
계	10025	7.28	3.16

	SS	df	MS	F
수정모형	9522.86	6	1587.14	175.83**
절편	27800.21	1	27800.21	3079.84**
가족구조(공변량)	480.42	1	480.42	53.22**
가정경제수준(공변량)	399.22	1	399.22	44.23**
가출유형	6274.08	4	1568.52	173.77**
error	90427.54	10018	9.03	
계	631172.00	10025		

방임	N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8929	7.66	3.51
일회성	331	8.48	3.35
반복	309	9.11	3.63
장기	30	10.87	3.92
만성	426	11.43	5.36
계	10025	7.90	3.70

	SS	df	MS	F
수정모형	7680.54	6	1280.08	99.20**
절편	28377.30	1	28377.30	2199.07**
가족구조(공변량)	810.82	1	810.82	62.83**
가정경제수준(공변량)	97.22	1	97.22	7.53**
가출유형	4741.80	4	1185.45	91.87**
error	129274.41	10018	12.90	
계	763113.00	10025		

\*\*  $p < .01$

출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9〉). 이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높고,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구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가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가출의 유형도 만성 및 장기와 같이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출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가출유형과 교우 및 교사관계

가출유형에 따른 교우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지지, 친구지지, 또래동조성,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의 정도에 대해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지지와 가출유형 간의 관계에서 교사지지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50>과 같으며, 가출유형에 따라 교사지지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8.90, p<.01$ ). 사후검사로써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만성 및 일회성 가출집단과 장기가출집단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가출집단이 일회성 가출 및 만성가출 집단에 비해 높은 교사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장기가출 집단의 인원이 33명에 불과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성급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추후연구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친구지지와 가출유형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51>과 같으며, 가출유형에 따라 친구지지의 총점 평균은

<표 IV-50> 가출유형과 교사지지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21.03	7.47
일회성	341	19.91	6.17
반복	317	20.37	8.68
장기	33	22.97	9.40
만성	456	19.26	5.95
계	10,207	20.90	7.43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1959.60	4	489.90	8.90**	만성 · 일회성 <장기
집단내	561506.82	10202	55.04		
계	5022935.00	10207			

\*\*  $p < .01$

〈표 IV-51〉 가출유형과 친구지지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23.00	3.91
일회성	341	22.75	3.92
반복	317	22.41	4.61
장기	33	22.67	3.85
만성	456	22.75	4.77
계	10,207	22.96	3.97

	SS	<i>df</i>	MS	<i>F</i>
집단간	144.27	4	36.07	21125.33
집단내	160990.59	10202	15.78	2.286
계	5540325.00	1020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4, 10202)=2.29, p>.05$ ). 즉, 청소년들의 지각하는 친구지지는 가출유형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성과 가출유형 간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52〉와 같으며, 가출유형에 따라 또래동조성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65.94, p<.01$ ). 이와

〈표 IV-52〉 가출유형과 또래동조성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17.76	4.95
일회성	341	19.98	4.83
반복	317	20.28	5.77
장기	33	20.64	5.46
만성	456	20.53	5.84
계	10,207	18.05	5.08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6636.58	4	1659.15	65.94**	무경험 <
집단내	256684.32	10202	25.16		일회성 · 반복 ·
계	3587114.00	10207			만성 · 장기

\*\*  $p < .01$

관련하여 앞서 가출의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친구가 같이 가출하자고 해서 가출했다는 항목의 응답은 가족관련 문항이나 놀고 싶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고, 가출이유의 1순위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동조성 분석결과 가출경험자들의 또래동조성은 가출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또래동조성과 가출 간에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높은 또래동조성은 친구의 지지에 비해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한 친구의 일탈정도와 가출유형 간의 관계에서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53>과 같으며, 가출유형에 따라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305.28, p<.01$ ). 사후검사로써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만성 및 장기 가출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수준에서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나 일회성, 반복성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 경험의 정도보다 높았다. 또한 반복 가출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친한 친구 일탈경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수준에서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이나 일회성 가출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표 IV-53> 가출유형과 친한 친구의 일탈 정도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12.21	3.69
일회성	341	13.68	3.34
반복	317	15.04	7.37
장기	33	18.55	14.15
만성	456	18.42	6.36
계	10,207	12.65	4.30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20205.30	4	5051.33	305.28**	무경험 · 일회성
집단내	168806.33	10202	16.55		< 반복 <
계	1821892.00	10207			만성 · 장기

\*\*  $p < .01$

친한 친구 일탈경험의 정도보다 높았다. 아쉽게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일탈경험이 높은 친구들과 가출 이전부터 어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출 이후에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일탈경험이 많은 청소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이들 역시 일탈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4) 가출유형과 심리적 변인

가출유형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과 우울·불안의 정도에 대해 가출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존감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54>와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자존감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048)=29.93, p<.01$ ). 사후검사로써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은 가출경험이 있는 이들에 비해 자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가출 여부 및 유형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가출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IV-54> 가출유형과 자존감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8919	29.11	4.82
일회성	336	28.03	5.08
반복	314	27.35	4.93
장기	33	26.18	4.43
만성	451	27.28	5.28
계	10,053	28.93	4.88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2822.13	4	705.53	29.93**	장기·만성·반
집단내	236849.73	10048	23.57		복·일회성 <
계	8652305.00	10053			무경험

\*\*  $p < .01$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앞서 가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이유가 가출 및 그 결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출 이전의 상황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울·불안의 총점 평균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55>와 같다. 즉, 가출유형에 따라 우울·불안의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10202)=38.55, p<.01$ ). 사후검사로써 Scheffé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가출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우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이후 사회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측정과 그에 따른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가출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수치의 상승 이유가 가출 및 그 결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출 이전의 상황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55> 가출유형과 우울·불안

	<i>N</i>	총점 평균	표준편차
무경험자	9060	7.01	6.90
일회성	341	9.27	8.64
반복	317	9.45	6.83
장기	33	12.15	7.12
만성	456	10.07	9.80
계	10207	7.32	7.17

	SS	<i>df</i>	MS	<i>F</i>	Scheffé
집단간	7805.38	4	1951.34	38.55**	장기·만성·반복·일회성 > 무경험
집단내	516413.06	10202	50.62		
계	1070706.00	10207			

\*\*  $p < .01$

#### 4) 소결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약 11.6%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47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1회 이상의 가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한 해의 가출 인구는 약 22만여 명, 그 중 일회성 가출은 그 중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 충동의 정도 및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충동을 느껴 본 경우가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급에 따라 21~5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는 약 82%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그 이유에 있어서도 일반 청소년과 쉼터 청소년간에 부분적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쉼터 청소년에 비해 공부가 부담되었다는 응답순위가 높았고, 쉼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셋째, 연령이 어릴수록 가출 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쉼터 청소년들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횟수도 많았다. 또한 쉼터 청소년들 중 가출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적었다. 가출 이유에서 부모님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쉼터 청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가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출 후의 생활도 쉼터 청소년의 경우가 더욱 열악하였는데, 쉼터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이탈 행동이나 유해 환경에서의 일한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이 가출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이는 친구들로, 이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지지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가출자는 다른 가출자에 비해 가족의 도움이 적어, 이들의 경우 가

족과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만성가출자들의 경우는 건강, 경제적 상황, 가족들의 태도, 학교 다니기 등의 상황이 가출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은 다른 가출 유형자에 비해 일탈행동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한 경험도 높고, 가출 후 폭행과 같은 피해경험도 상대적으로 많아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장기 및 만성 가출자들은 다른 가출자들에 비해 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 충동을 자주 또는 항상 느끼는 청소년 중 40%에 가까운 이들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성 가출자와 같은 초기 가출자들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어두워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호시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는 보호시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홍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가출전·후 일탈 행동 및 피·가해 경험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일탈 행동 및 피·가해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비율은 가출 이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가출 후 일탈 및 피·가해 경험이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가출 전 이미 그러한 행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탈 행동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덟째, 가족환경과 청소년 가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가출 경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가출 유형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가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구조는 가족의 지지나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의 정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구조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가출청소년들, 특히 만성가출 청소년들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의 정도는 높고 가족의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출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양육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재혼 가정 출신의 가출자들은 다른 가족구조를 지닌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해 지지의 정도는 낮고, 학대 및 방임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재혼가정 내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재적응과정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재혼가정의 청소년들과 더불어 보호자로의 방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방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자의 연령과 낮은 경제적 수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출청소년의 예방차원에서 방임의 가능성이 높은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동조성이 높고,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높은 또래동조성은 친구의 지지는 높은 반면 이외에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부터의 지원과 건전한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은 낮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측정과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가출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



## V. 가출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가출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출청소년들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출청소년들의 가출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

심층면접 조사대상 가출청소년은 단기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중·고등학교 3학년 기준 연령(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30명(남14명, 여16명)이다. 대상표집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도적, 판단적 표집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쉼터 종사자를 통해, 면접에 거부감이 없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가출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표 V-1>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집단		사례수
성별	남	14
	여	16
연령별(세)	13-15	13
	16-18	17
지역별	서울	10
	경기	16
	대전	4

줄 수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조사대상 가출청소년들은 서울, 경기, 대전지역 단기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들로서, 연령분포는 13세에서 18세까지였다. 심층면접대상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는 <표 V-1> 과 같다.

## 2) 조사방법 및 절차

가출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자와 3명의 면접요원이 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에 쉼터 관계자에게 면접의 취지를 설명하고 입소 청소년들에 대한 면접조사 허가를 받았으며, 면접대상의 선정과 면접방법 및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였다. 심층면접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였고, 가출청소년 한 사람 당 소요된 면접시간은 60분에서 90분이었다. 면접조사는 쉼터 내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조용한 곳에서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사례는 고유번호 C1-C30으로 표기하여 사용하였다. 면접과정은 면접원이 피면접원에게 ① 면접에 대한 취지와 윤리 설명 ② 면접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③ 피면접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가출경험에 대한 질문과 응답 ④ 가출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피면접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으며 모든 녹음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쉼터 입소과정, 가출경험, 쉼터생활, 학업 및 진로 문제, 사회에 대한 기대, 귀가계획 등 가출에 따른 전반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질문을 단위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분석내용은 질문에 따라 피면접자의 반응을 범주화하여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피면접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적인 접근(descriptive approach)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특성과 가출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가출경험에 대한 심층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가출경험 전반에 대한 정보는 구조화된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을 병행하여 수집하였으며, 면접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가출경험에 대한 심층내용을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면접조사하였다.

〈표 V-2〉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질문 및 응답 형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출생년도, 성별, 지역, 학업상태, 성격, 가족구성, 경제수준,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	구조화
전반적인 가출경험	첫 가출시기 재가출빈도	구조화 및 비구조화
가출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현재의 쉼터 입소과정 가출경험, 쉼터생활,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기대, 귀가계획	비구조화

### 3. 조사결과

#### 1)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일반적 특성

심층면접조사를 받은 가출청소년들은 첫 가출 상태인 사례에서부터 60회 이상 가출을 한 사례까지 가출경험이 다양하였다. 처음 가출한 시기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와서 가출을 한 경우 등 그 분포가 다양하였다.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은 대부분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30사례 중,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로 재혼하거나 한부모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모가 함께 있어도 부부간 불화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심층면접에서 대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폭력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가출빈도가 높은 경우, 어릴 때 집을 나간 경험이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조사를 한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과 일반적 특성은 <표 V-3>과 같다<sup>20)</sup>.

<표 V-3>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C)	성별	출생 연도 19-	학업 상태 (중단 시기)	첫 가출 시기	가출 빈도 (회)	성격	가정의 경제력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 <sup>21)</sup>	가족 구성	지역
1	여	96	중1	중1	3	종합적	어려운편	4	부모	경기
2	여	91	중단 (고1)	중2	4	활발	보통	5	부모	경기
3	여	91	고3	고3	1	내성적	어려운편	4	의부, 모가출	경기
4	여	94	고1	고1	4	내성적	어려운편	3	친척	경기

20) 성격, 가정의 경제력,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는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한 것이다.

5	남	94	중단 (중1)	초	8	활발	아주 어려움	3	조모, 부	경기
6	남	91	중단 (고1)	중3	6	내성적	어려운편	4	조부, 부모	경기
7	여	93	고1	고1	1	내성적	어려운편	4	부, 계모	서울
8	여	92	중단 (고1)	현재 (17세)	1	원만	괜찮은편	3	부모	서울
9	여	93	중단 (중2)	초	10 이상	활발	괜찮은편	5	부, 계모	서울
10	여	92	고2	고2	2	활발	보통	3	조부모	경기
11	여	95	중2	초	10 이상	무반응	보통	3	부	서울
12	여	94	중단 (중2)	중2	5	활발	어려운편	4	조모, 부	경기
13	남	95	중3	초2	5	활발	어려운편	5	고모, 조모 (부모 이혼)	경기
14	남	94	중단 (중2)	중1	5	종합적	아주 어려움	2	부 (부모 이혼)	경기
15	여	93	고1	고1	1	활발· 공격적	어려운편	5	모	서울
16	여	91	중단 (고2)	고2	5	원만	괜찮은편	5	부모 (부모 불화)	서울
17	여	96	중1	초5	4	활발	매우 여유로움	2	부모	서울
18	여	92	고2	중2	2	활발	보통	3	부모	서울
19	여	95	중단 (중1)	초6	3	활발	보통	2	부모	경기
20	남	94	중3	중2	2	원만	보통	3	부 (부모 이혼)	경기

21	남	95	중2	중1	10	충동적	보통	3	부 (부가출 жат음)	경기
22	남	93	중단 (중3)	초	5	원만	어려운편	4	부, 계모 (모사별)	경기
23	남	94	중3	중3	1	내성적	아주 어려움	4	부	경기
24	남	95	중2	중2	1	활발	어려운편	2	부	경기
25	남	92	중단 (중3)	초	10 이상	활발	보통	3	부모별거	경기
26	남	91	중단 (자퇴 고2)	고2	1	활발	어려운편	5	부, 계모가출 (부모 이혼)	경기
27	여	93	중단 (중2)	중2	20 이상	원만	어려운편	3	부모	대전
28	남	91	중단 (고1)	초6	60 이상	활발	어려운편	3	부	대전
29	남	92	중졸	중2	4	충동적	보통	5	모, 의부	대전
30	남	93	고1	중3	4	활발· 내성	어려운편	5	부 (부모 이혼)	대전

<표 V-3>을 보면,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거의 절반은 학업중단이나 상급학교 미진학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가출빈도가 높을수록 대개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학업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가출로 인해 학업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첫 가출 상태에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엔 첫 가출인 경우보다 재가출 이상의 가출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재가출 이상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10회 이

21) 1. 매우 화목하다 2. 화목할 때가 더 많다 3. 그저 그렇다 4. 화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5. 매우 갈등이 심하다

상 가출을 한 경우도 5명이나 되었다. 이들 가운데엔 본인이 가출횟수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출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격을 대부분 활발(17명)하거나 원만(5명)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중엔 활발하면서도 공격적(1명)이라든가, 활발하면서도 내성적(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 모든 성격이 다 섞여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신의 성격을 내성적으로 표현한 경우(8명)와 성격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sup>22)</sup>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태는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17명),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괜찮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가 그저 그렇거나(11명), 화목하지 않으며(7명), 매우 갈등이 심하다(8명)고 응답하였고, 가정이 비교적 화목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하였다. 이들 청소년들의 가족은 대부분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부모가 이혼하여 한부모이거나,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거나, 조손가정인 경우가 많았고, 잦은 가출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 중엔 가족과 연락을 끊고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2) 현재의 쉼터 입소 과정

### (1) 입소경위

면접 대상 가출청소년들이 현재의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게 된 경위는 다양하였다. 현재의 쉼터에 오게 된 경위는 학교선생님이나, 경찰이나, 일시보호소 종사자나 상담원이나 교회, 부모나 친척이 의뢰한 경우가 많았고, 주변의 친구나 가출시 만난 선배들을 통해 입소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

22) 종합적, 활발·내성적, 활발·공격적 등 중복된 경우가 있음.

가출청소년 스스로 1388 헬프콜에 도움을 청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쉼터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현재의 쉼터를 찾아온 경위는 첫가출 상태에 있는 사례나 재가출 상태에 있는 사례 모두 비슷하였다. 또한 면접 대상 가출청소년들은 현재의 청소년 쉼터를 가출 후 바로 찾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여러 곳의 의뢰기관을 거쳐서 오거나, 혹은 가출 후 보호시설 외의 장소(친구집, 친척집, 일터, 가출청소년집단 기거 공간 등)를 전전하다가 생활이 여의치 않아 쉼터를 찾은 경우가 많았다. 장기가출을 하거나 재가출빈도가 높은 경우, 여러 곳의 단기쉼터를 입소하고 퇴소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

C4: (이곳에 오게 된 것은).. OO에 일시보호소 있어요. 거기 가서 인계 받아서 왔어요... 집을 나왔을 때... 원래 알고... 거기로 바로 간 거예요... 예전에 중1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다 흩어지게 돼서, 고모네 있다가 고모가 잘 키우기 힘들어 하셔서 고모가 쉼터로 보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OO에 있는 쉼터로 오게 됐는데요, 뭐더라... 거기서 내가 갈 데가 없어져 가지구... △△이라고 일시보호소 알려줘서 갔어요. 가서 거기 도움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또 가서 도움 받았어요...

C5: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친구 집에서... 그 때 이런 게 있는 건 몰랐어요... 나중에 친구 부모님이 가르쳐 줘서... 쉼터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여기 왔어요)

C6: (세 번째 가출 후) 나와서... 고모님 댁이 인천에 있는데... 그 땐 아무래도 가진 돈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자전거 있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여기서 인천까지 15시간 페달 밟고 가서... 고모님 댁 식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계속 그 곳에 있을 수가 없죠... 피를 나눈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후에 한국청소년상담원 있죠? 신당동에... 거기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곳에서 여기 알선해 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처음 들어온 거고... 쉼터는 여기가... 그러니까 처음인거죠.

C7: 아니 집에서 쫓겨났는데요... 제 친구들이 그걸 알구요, 막 그냥 나오라고 해서 일단은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돈 다 내주면서 버스비 이런 거 내주고 여기 데려다 줬어요.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C9: 초등학교 때요. 새엄마랑 너무 싸운 거예요. 오빠랑 저랑 새엄마랑. 그래서 오빠는 친엄마가 키우고요, 저는 아빠가 키워요. 그래가지고요, 오빠한테 말했어요. 새엄마가 자꾸 괴롭히고... 왜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게 자꾸 간섭만 하고, 거짓으로 아빠한테 일러서 혼나게 한다... 그러니까 오빠가 지낼 곳을 알아봐 준대요. 그래서 쉼터? 쉼터라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거기서 공부 배우고...

C12: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연계해 줘서 왔구요, 그 뒤에 몇 번은 자진해서 온 것도 있구요...

C30: 여기 온 거는요, 그 1388 거길로 해서 온 거예요.

한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 중에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쉼터에 입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폭력행위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기위해 강제로 쉼터에 오거나,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쉼터에 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

C19: ...가출했다가, 친구를 때렸다가... 경찰서를 갔는데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있었는데요. 재판에서... 안 좋게 나와 가지구요. 분류심사원 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요. 보호 관찰을 받았어요... 근데요, 저는요, 어디 한 곳에 막 있어야 된대요. 집에 못 간대요. 그래서 쉼터에 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번 년도까지 있고요. 12월 달에 집에 가요.

C24: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서 가지고요... 아빠는 그때 병원에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계셨고... 그래서 용인 쉼터에 가서, 9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게 돼서... 아빠가 퇴원하셔서 그 수급비로 고시원에서 살고 계셔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아빠한테 가봤는데...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아빠가 수급비로 행동하다 보니까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수급비는 아빠 혼자(받으)니까... 이게 빠르게 닳고 그래 갖고... 아침저녁 밥을 먹

는데, 수급비 하루치가 만원이면은 제가 거기 끼면 2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쉼터가 이렇게 보호도 해 주고... 학교도 다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랑 잘 대화를 해서 이렇게 쉼터를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 (2) 가출에 대한 정보원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주로 주변 친구나 가출에서 만난 가출선후배들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이들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나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오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장기가출이나 재가출빈도가 높은 경우, 가출 청소년 집단을 통해 단기쉼터를 옮겨 다니는 방법을 서로 교환하여 활용하고 있었다.<sup>23)</sup>

C12: ...쉼터나 가출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나요, 같이 가출한 애들한테...

## 3) 가출경험

### (1) 가출동기 및 배경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첫 가출 상태인 경우가 8사례이고, 22사례는 2회 이상 가출을 경험한 경우였으며, 이 중 5회이상 가출을 한 경우가 14사례였다. 그러나 가출빈도와 상관없이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가정불화나 가정폭력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외 요인으로 가출을 한 경우는 3사례였는데, 이 중 2사례는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집을 나온 경우였다.

#### ① 가출원인

23) 심층면접과정 중 타지역 쉼터에서 면접을 한 청소년과 동일한 청소년을 다른 지역 쉼터에서 다른 면접원이 면접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연구엔 첫 번째 사례만 사용하였다.

가출상태에 있는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이나 가족의 무관심 등 가정의 심리적인 문제가 가출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동시에 발생되고 있었는데,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주로 부모였으며, 형제나 동거 친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다. 부모의 경우는 친부모나 계부모 모두 해당되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경우,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아내가 가출하거나, 아내가 똑같이 대항하자 폭력대상이 자식에게 옮겨진 경우도 있었으며, 아버지의 폭력대상이 특정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양쪽 부모 모두와 살고 있더라도 어머니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도 있고, 누나의 폭력을 못 견뎌서 가출을 한 경우도 있으며, 원가족이 흩어지면서 친척집에서 동거하게 된 경우, 동거친척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이나 부부간의 싸움, 부모-자녀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3: 음,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엄마가... (새)아빠가 술 드시고, 우리 엄마를 가끔씩 때린대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집을 지금 가출한 상태고요, 저도...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이 저한테 다시 오니까 그게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서 나왔어요.

C4: 근데... 지금은 집에 숙모랑 삼촌이랑 살았거든요. 근데 폭력이 너무 심하고... 욕설도 너무 심하고 막말도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고 또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집안일만 시키고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니깐 그게 힘들어서 나왔어요.

C5: ...누나가 때렸는데요. 누나만 때려요. 다른 사람은 안 때리고. 누나만 때려요... 누나 나이 차이 다섯 살... 어... 이모랑 살다가 아빠랑 살았어요. 이모랑 있을 때 가출했어요. 많이... 그 때 한 일곱 번인가? 하고 아빠랑 살 때 한 번 하고. 이모랑... 이모랑 살 때가 되게 싫었었어요. 이유도 없이 때려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로 없어요.

C7: (새엄마한테)집에서 쫓겨났는데요... 계속 들어가도 쫓아내고, 때리고... 계속 그러니까 친구들이 니네 새 엄마 왜 이러냐면서 헛터가라 해서... 음... 아빠는요 좀 우유부단 한 성격이라서 새 엄마 말 들으면 막 이랬다가, 또 제 말 들으면 저랬다가... 그래요. 새 엄마는 저랑 사이 되게 안 좋구...

C15: 아빠한테 폭력 당해서... 아빠가 맨날 네까짓 게 뭘데 공부하냐고,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네까짓 게 커서 뭐가 되려고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고, 맨날 네까짓 게 네까짓 게 그러고, 꿈이 뭐냐고, 그래서 꿈 말했어요,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다고, 네까짓 게 뭘데 유치원 선생님이냐 그러고, 맨날 가시나, 가시나 그러고, 제가 남녀 차별 같은 거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시나란 소리 진짜 듣기 싫어해요, 근데 아빠가 맨날 뭐 좀 하면은 가시나 하고, 때리고, 발로 밟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 한번도 때린 적 없어요... 아빠는 저를 이유 없이 때려요, 그냥 저만 보면 싫대요... 그냥 제가 보기 싫대요, 저보고 눈에 띄지 말래요, 자기 눈에...

중학교 때부터 발로 밟고 머리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술 드시지 않아도, 맨 정신으로... 그 전에는 엄마를 때렸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같이 때리니까, 엄마도, 아빠가 칼 들고 죽인다고 그러면, 엄마가 칼 빼어 들고 아빠 죽인다고 그러니까, 엄마랑은 점점...

C26: 대체적으로 저는 부모님 때문에 싸움과 갈등 그런 것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욕설도 당해보고 맞기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적도 있고 맞아 본 적도 있고 뺨겨 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허튼 짓만 하면 때리고 술 마시면 때리고...

C30: 집에 있기가 싫고요 그냥...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고... 아빠 무섭고... 그래서..... 음... 아빠가 (매일) 술 마시고 때렸어요...

한편,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부와 모 사이에 갈등이 많아 이러한 가정분위기가 싫어서 집을 나온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처음엔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게 싫어서 나왔지만 가출생활에서 쉽게 돈을 벌면서 마음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가출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C2: ...처음엔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요, 한

번 나오다 보니까요 밖에서 그거...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맛을 알아 가지구요 돈맛을 못 잊어서 나왔었어요... 또... 그러구 또 아빠랑 엄마랑 또 벽이 더 심해지구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들어가겠어요, 집에.

C8: 집이요? 밥도 잘 안 주구... 좀... 엄마가 좀 짜증났어요. 말하는 게. 부모님이랑... 안 좋았어요. 엄마 아빠도 그냥... 안 좋은데... 그냥 참고 사는 거... 그제... 보기에... 더 막 불편했던 거... 부모님이 그러시는 걸 보고... 뭐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뭔가... 나에게도 짜증을 낸다든지... 집에 있기가 너무 짜증나서 (나왔어요).

한편 집이 심심하고 답답하여 밖에서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본인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다른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청소년도 있었다.

C11: 그냥 답답해서... 그냥 짜증나서...아빠가... 뭘 하려고 하면 못 하게해서... 외박... 친구들이랑 밖에서 자고 이런 거... 그래서 짜증나서 나왔어요...

C14: 솔직히 가출 한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 말하는 거 보면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학교 선생님들 때문이라고, 친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 구라예요 그거, 솔직히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냥 가출하고 나가서 놀고 싶어서, 자기가 놀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나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왜 가출했냐고 하면 그냥 또 자기가 놀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한심하게 보일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부모님 핑계 대고, 친구 핑계 대고, 선생님 핑계 대는 거지, 솔직히 다 자기가 놀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고를 쳐서 부모한테 혼이 나고, 집에서 계속 의심을 받는 것이 화가 나서 가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C29: 중학교 2학년 때...사고 좀 쳐가지고... 그 때가 한국 나온 지... 한 달 정도 안됐는데요... 한국 나오자마자 게임 한다고... 어렸으니까... 부모님 명의로 게임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적어 좋고... 그러니까 다

음 달인가? 다다음 달 요금 청구가 막 몇 백만 원 나와 가지구… 혼나고… 한… 한 달 정도 버티다가요, 한 달 동안 계속… 그… 한 달 반쯤 계속 그러니까 열 받아서 나왔어요.

## ② 가족배경

### ○ 구조적 환경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은 구조적으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약 3분의 2는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거나 혹은 새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결혼과 이혼을 반복적으로 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 경우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몇 번째 부모인지 잘 기억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혼의 경우는 혼합가족의 형태로 구성된 사례가 많았으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았고, 친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별거상태에 있거나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형제들이 가출을 하는 등 가족구성원 모두 제각기 다 가출한 형태인 사례들도 있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한 부모 가정인 경우도 많았는데(8 사례),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사는 경우가 더 많았고, 조손가정이거나 친척집에 머무르거나 동거가족이 없이 가출청소년 혼자서 살고 있는 사례들(3사례)도 있었다. 가출청소년이 혼자서 사는 경우는 부모가 이혼을 하여 부모 모두 자녀를 떠났거나, 부모가 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계부모가 가출을 하고 가족이 제각기 흩어진 경우였다.

C5: 형이랑 누나랑도 연락 안 해요… (우리가족은 각자 살아서) 사는 데가 좀 많았었어요… 어… 이모랑 살다가 아빠랑 살았어요. 이모랑 있을 때 가출했어요. 많이… 그 때 한 일곱 번인가? 하고 아빠랑 살 때 한 번 하고.

C11: 지금 집이랑은 연락 안 해요… 새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번호 바꿨고요, 이사 갔다는 소문도 들리구…

C12: 그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혼 한 뒤에요,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새 아빠가 좀 와가지구, 엄마를 자꾸, 엄마를 때려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아빠랑 살다가, 엄마가 좀 정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피해를 일으켜

서, 아빠가 고모네로 보내서, 고모랑 일 년 정도 살다가, 그냥 고모랑 사는 게 좀...

C22: 아... 엄마랑도 별로 안 좋아요. 제 친엄마가 아닌데요... 지금 엄마가 2번째... 아니 3번째 엄마인가?...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번째 (새)어머니가 아빠한테 왔다가 도망갔어요...

C25: 아빠는 그냥 일 가서... 안 올 때도 있고, 엄마는 술 땀에... 알콜 땀에... 누나는, 다른 데 가서 자립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가출할 때)... 아버지랑 따로 계셨어요... 술을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술 많이 안 드시는데... 엄마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병원에서 지냈는데, 몇 년 동안... 술 드시고... 뭔가 힘하게 하신다거나 그런 건 좀 있었어요.

한편, C24와 같은 경우는 가정불화가 아닌 어쩔 수 없는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 상태로 지내는 사례였다.

C24: 아버지는 수급비를 받아 고시원에서 겨우 생활하시고... 저는 이렇게 쉼터 돌아다니고... (어머니께서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인테리어 하시다가요. 6층에서 떨어지셨어요... 지금도 다리는 좀 짙둑둑 거리고 기억력도... 어, 처음엔 저도 못 알아보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상태긴 해요. 완전한 기억은 찾진 못 했지만)...

### ○ 가정의 심리적 환경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구성원 간에 갈등이 심하고 사이가 나쁘며 싸움과 폭력이 잦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가정불화가 가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정불화는 재혼가족이나 혼합가족이나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 가족의 구조적 형태에 상관없이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대부분 가정불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정은 대부분 가족구성원 간에 지지기능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많은 경우, 지나친 개입을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방관함으로써 자녀의 고민이나 힘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폭행을 가할 때에도 나머지 가족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례도 있었다.

C2: ...근데요... (가출하는) 애들도 잘못은 했어요. 일단, 틀을 벗어났으니깐. 근데요, 애들이요, 진짜 집안이 화목하고 그랬다면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집이 재미없어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요, 부모님들 책임(가정불화)이에요.

C15: 근데 엄마도 이제 나중에는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저 이유 없이 때리면, 처음에는 말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칼 들고 싸우고, 부부싸움으로 심하게 이어지니까 엄마도 이제 상관 안 했어요. 제 동생은 저 맞을 때 컴퓨터 하고 있고, 엄마는 저 맞을 때 TV보면서 웃고 있고...

## (2) 가출이 반복되는 이유

면접대상 청소년들 중 2회 이상의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첫 가출 시 대부분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귀가를 하였다.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첫 가출기간은 대부분 재가출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귀가를 했을 때 대부분 가출의 원인이 되었던 가정내 문제-가정불화, 가정폭력, 가족관계의 부재 등-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청소년들은 첫 가출에 비해 재가출을 보다 쉽게 결정하며, 가출빈도가 증가할수록 귀가하여 가정에 머무는 기간은 짧아지고 가출지속기간은 늘어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가출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출생활에서 경험한 무한한 자유로움이나 오락의 재미도 재가출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가출기간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

가 집에 돌아와 누구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게 되면 가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다.

C2: …처음엔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요, 한번 나오다 보니까요, 밖에서 그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맛을 알아 가지구요, 돈 맛을 못 잊어서 나왔었어요… 또… 그리구 또 아빠랑 엄마랑 또 벽이 더 심해지구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들어가겠어요, 집에… 처음엔 2, 3개월? 근데 한번 나갈 때마다 점점 더 오래있다 들어가게 된 거죠.

C5: 처음 가출은 (초등)… 처음엔 답답해서… 집에 있는 게 좀 힘든데… 때리고… 폭력… 폭력하고 답답해서 나왔어요… 친구 집에 있다가… 처음에 한 2, 3일 후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답답해서 계속 뭔가 습관적으로 가출… 누나 때문에 나왔다니깐요. 누나가 자꾸 때린다구 아빠한테 말하면 누나한테… 더 맞죠… 한 번 걸렸어요, 누나가. 그래서 누나가 맞았어요, 아빠한테. 그리고… 똑같아요… 누나 때문에 가출하려고 맘 먹고요, 아빠 돈 훔쳤는데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컴퓨터 보냈어요.

C6: 처음엔 제가 집을 나갔던 게 아니고 집에서 쫓겨났던 거 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이제 4년… 됐는데…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약주를 해서 가지고…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달랑 속옷 차림으로 쫓겨났던 게… 그때가 처음…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가 성균관대학교 나오셨는데 지성인이라고는 조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 처자식들을 많이 학대하시는 편이셨어요. 집에 할아버님도 계신데… 그 때는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래서 어머니 그 때 중환자실 계실 때였어요… 어머니 중환자실로 가게 만들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좋게 보였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만 더 커져갔을 뿐이지. 그래서 그 때 약주를 해서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너 나가라. 추운 겨울에… 속옷 바람으로…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은… 화가 나고… 4년이나 지났으면서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게 가출에 포함이 된다면은… 그게… 그 때가 2005년이었으니까, 그 때가 처음이었겠죠… 그 때는 중학생 때였으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나왔다… 하면은 찜질방에서 이제 2, 3일 정도 자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갔고… 돌아갔을 때도… 아버지 똑같았어요…… 저도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 된 입장에서… 참고 지냈다가 두 번째까지는 제가

쫓겨났던 거 같아요. 세 번째 들어서부터 이제 제 발로 나간 거죠. 열여섯 (만) 살 때...

C14: 전... 그냥... 처음에 아빠랑 싸워 가지구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가출 했다가, 계속 그렇게 가출 한 게요, 그냥, 차라리 집보다는 밖에서 사는 게 더 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계속 술 먹고 그러는 거 (간섭), 그런 거 진짜 보기 싫었어요.

한편 가출 후 다시 집에 돌아오니 가족이 이사를 가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 후 겨우 연락이 되어 집에 들어갔는데, (혼합가족) 동생들이 동네 형들한테 돈 뺏긴 것을 부모가 자신을 의심하여 다시 가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C29: 제가 처음에 가출해서 일주일 있다가요, 집에 전화 하니깐요, 핸드폰이 (연락이 안되요)... 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안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이사를...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나온 지 일주일인가? 열흘이 되니까... 후회 되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사 갔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1년 반인가? 1년쯤... 반 정도 넘고... 엄마한테 겨우 연락이 돼서... 좀...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그 때 마침 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셨나 봐요. 그 때 전화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몇 달 또... 잘 하다가... 가출 좀 오래 했다고 의심받고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그 외에 나쁜 친구를 만나서 어울려 놀다가 자꾸 가출을 하게 되거나 가출생활을 하다보니까 집에 있는 게 힘들어져서 습관적으로 다시 가출을 하기도 하였다.

C11: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음... 그냥... 다시 나가고 싶어요. 아빠랑 갈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놀고 싶어서... 아빠가... 늦게까지 못 놀게 하니까...

C19: 가출은... 친구들이요, 하자고도 했구요. 놀고 싶어서 했다가 그랬어요.

딱 노래방 가구요, 그러고 놀아요... 처음엔 언니랑 싸워서... 컴퓨터 때

문에 싸웠을 걸요... 한 3시간... 일단 가출이죠... 집 나간다고 나왔으니깐요... 그 다음엔... 하루였어요. 그 다음부터 한 달이에요... 중학교 올라가서요, 놀다 보니까요... 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서, 좀 질 나쁜 애들이랑 놀았었어요... 밖에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C28: (왜 자꾸 집을 나오는지) 습관인데...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잔소리가 들려요... 꼭... 아... 아빠가... 잔소리... 그거 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욕하시면서... 뭐... 차라리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바엔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서 가지고...

### (3) 가출생활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경우 집밖에 있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로워서 좋다고 진술하였다.

#### ① 전반적인 가출생활의 장단점

##### ○ 장점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 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정불화로 스트레스가 쌓인 경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출하니까 마음대로 놀 수 있어서 좋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C7: 일단 마음이 편안하구... 맨 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구요... 맞아... 맞지 않아도 되구... 욕먹을 일도 없고...

C12: 자유롭고 억압된 게 없다는 게 좋아요... 그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뒤에요,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새 아빠가 좀 와가지구, 엄마를 자꾸, 엄마를 때려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아빠랑 살다가, 엄마가 좀 정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피해를 일으켜서, 아빠가 고모네로 보내서, 고모랑 일 년 정도 살다가... 고모가 자꾸 때려서...

C19: 가출하니까... 마음대로 노는 건 좋아요. 그 것밖에 없어요, 좋은 거...

C26: 가출하기 전 보다는요, 가출하기 전에는 그냥 답답하고, 안에 있기만 하고, 맨날 집에서 반복되는 생활에다가 무관심에다 그런 거, 갈등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가출 후에는,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체험도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 애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고, 숙식도 해주니까, 쉼터에서 해주니까,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 ○ 단점

그러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을 했을 때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는데, 특히 잠자리 마련과 생활비를 버는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나빠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C7: 그냥 보통 애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 한다는 거…

C 12: …뭐 여러 가지 거의 다 불편하죠, 이제 돈 같은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우선 제일 안 좋은 거는 지낼 데… 그리고, 위험한 길로 빠져든 애들도 많으니까…

C19: 단점이 있다면은… 공부 못 하는 거랑요… 사람을 망쳐요, 계속 그러면요.

C26: 단점은 뭐, 아무리 가출을 해 봐야, 또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못 하는 애들은,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중간에 뭐 쉼터 나갈 때 돈을 잃을 때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출하다가 어떻게 또 잡히면, 다른 일행이랑 다니다가 강제로 잡히면, 맞을 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여자애, 여자 같은 경우는 가출하다가 안 좋은 남자애들한테 걸리면은… 팔려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간 당할 수도 있고… 성폭행이나 그런 거 당할 수도 있잖아요…

### ② 생활비 마련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가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일들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에서의 서빙, 미용실 보조, 패스트푸드점 점원에서부터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종업원, 삐끼, 보도 등과 같은 부적절한 노동행위도 하였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앵벌이나 절도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자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나 윤락 행위 등으로 쉽게 돈을 벌어,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던 사례도 있었다.

C2: 3년 동안 1억? 1억 정도 벌었는데, 근데 거의 다 썼어요. 하루하루 버니까... 하루에 한 2,30씩 벌었거든요. 노래방 도우미해서... 전... 다 겪어 봤어요. 일 같은 건요. 경리도 해보구요, 미용도 해보구요, 패스트푸드도 해보구요, 제가 공장에서도 일 해보구요,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C12: 돈은... .애들이 주거나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일은 아니고, 그런 건 자주 하진 않았는데요, 가끔가다 그냥 뺏겨거나... 거의 애들이 그냥 줘서...

### ③ 잠자리 해결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처음엔 대개 친구집이나 PC방에서 지낸다. 또한 거리를 배회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출청소년집단과 어울리게 되어 가출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함께 지내게 된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잠자리는 찜질방이나, PC 방,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 계단, 공사장 건물 등이며 가출청소년집단 거처지로 몰리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오면서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인터넷이나 친구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처음부터 청소년 쉼터를 찾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C1: 노숙했는데요... 아파트 계단 같은데서...

C21: ...의정부 쪽에 병원에 여덟, 밤, 벼, 병원에서 잤는데 거기는 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조용히, 아무도 없어 가지고...

#### ④ 비행경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 중 많은 경우는 가출기간 동안 비행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대부분은 가출기간 동안 비행을 저질렀는데, 오토바이 폭주나, 폭행, 앵벌이, 절도, 호빠<sup>24)</sup>, 보도<sup>25)</sup>, 노래방 도우미, 술집 종업원 등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C2: 나쁜 짓 할 땐요 진짜 하루에 막 백만 원 이백만 원도 만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벌었던 적도 있어요.

제 나이 때 남자애들 호빠하고 막 보도실장도 해요. 남자애들 운전면허 따가지구 보도 돌려요... 전화하고서. 그거 하면 지들도 그냥 하루 차만 몰고 다니면 몇 십만 원 들어오고, 호빠하는 애들은 하루에 기본 십만 원 이상 버니까. 제... 저랑 같이 살던 남자친구도 호빠에 있었거든요. 개도 운전해요. 맨날 서로 그랬어요. 너 손님이랑 2차 나가면 뒤진다. 막 이리고... 서로.

C12: 돈은... 애들이 주거나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일은 아니고, 그런 건 자주 하진 않았는데요, 가끔가다 그냥 뺑 뜯거나, 거의 애들이 그냥...

C19: 친구한테 뺑뜯거나...

C22: 폭행을 좀 했어요...

C23: 돈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애들 돈 뺏고... 또 그걸로 배 채우고... 또 그렇게 계속 돈 뺏고 또 찹질방 가거나 야님 이렇게 해서.

#### ⑤ 가출기간동안 가장 무섭거나 힘들었던 일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 중 가출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거나 힘들었던 것은 추위나 밤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으며 주변의 불량 가출청소년집단이나 성매매집단 등도 가출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든 요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 당시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동료 가출청소년에게 사기

---

24)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것

25) 술집에서 아가씨 넣어주는 일

를 당하는 일들을 한 번씩은 겪고 있었다.

C1: 추워요... 추위가 가장 무서웠어요. 잠자리...

C4 : 밤길... 저는 밤엔 혼자 안돌아 다녀요, 절대. 아예 밤에 잘 나가지도 않구요, 밤을 싫어해요. 그냥... 무섭죠... 밤엔 절대 안 다녀요. 애들 말 들어보면 밤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 가꾸요... 막 잡아 가거나 아니면 인신매매 하거나 막 이런 거 많데요. 그래서 밤에 안 다녀요.

C6: 밤중에 이제 제일 무섭지요... 이상한 사람... 청량리에 그 이상한 아주머니도... 많이도 봤고 그리고 또 밤중에 술꾼들이... 싸움도 보면은 웬지 모르게 제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제가 어디서 자냐면 밖에서 인제... 인적이 많은데... 왜냐면은 인적이 없는데서 자면 괜히 변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인적이 많은데... 일부러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잠도 잤어요. 노숙을 한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무서웠고 힘도 많이 들었어요.

C8: 막... 같이 가출하자고 해갔고 같이 가출했는데 막 한 명이 자는 사이에 막... 보통 나오기 전에요 몇 십 만원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다 뿌리고 튀는 거...

그러나 가출한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었다고 말한 청소년들도 있었고, 가출할 때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C2: 여기 오기 전에 뭔가 무섭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요, 하도 막 별일을 다 당해왔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 ⑥ 가출시 가장 필요한 것

아울러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잠자리와 돈이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올 여유가 없었거나 가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 ⑦ 현재 가장 원하는 것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에게 면접을 받는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대부분은 돈을 벌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례는 당장 돈을 쓰고 싶어하였고, 또 다른 사례는 미래에 필요한 돈을 지금부터 벌어서 모아두기 위해서였다. 한편, 쉼터규칙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 지쳐서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화를 나눌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사례도 있었다.

C4: 남자친구 보러 가는 거... 쉼터에 있는 동안 보지 못해서...

C2: 일단은 지금 현재 저로써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쉬고 싶은 거랑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을... 싫은 단계예요.

C6: 저는...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지금은... 없어요... 딱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어요. 지금은...

### ⑧ 가출에서의 하루일과

가출청소년들이 가출기간 동안 지낸 하루일과는 대개 거리를 배회하거나 PC방에 가거나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이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소일하는 내용이나 시간이 달라졌다.

C21: 나와선 그냥 길바닥, 길에서 돌아다녔어요. 피씨방 가 가지고 놀고... 학교 안 다니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동네하고... 놀이터하고 그런 데 다니면서 있었어요... 잠은 안자고 그냥 잤어요.

C26: 처음에 있을 때는 알바 구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놀다가 뭐 컴퓨터도 하고... 뭐 할 것도 하고... 프로그램 하고 뭐 그랬는데요... 알바 할 때면, 그냥 하루 종일 알바하니까.. 아홉 시부터 나가서 막 아홉시, 열시 그렇게 돌아오니까... 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일상생활, 돌아다니거나... 자거나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놀러가거나, 피씨방 가거나...

#### 4) 쉼터에서의 생활

##### (1) 쉼터 이용회수

쉼터 이용회수는 면접대상자마다 달랐다. 이들은 사례에 따라 가출 후 바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 거처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져 할 수 없이 쉼터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장기가출청소년이나 재가출빈도가 높을수록 쉼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이들은 지역을 옮기면서, 필요에 따라 쉼터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C4: 쉼터는 네 군데 갔었는데요... 2년도 있어봤고... 2년 좀 넘게 있어봤고... 1년 좀 넘게 있어봤구요... 그리고 몇 개월씩... 있어보구 그랬어요.

##### (2) 쉼터를 옮긴 이유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기간이나 가출빈도에 따라 쉼터 이용 횟수나 이용기간이 달랐는데, 모두 단기쉼터에 입소한 경우였으므로, 장기간 가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쉼터를 여기저기 이동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쉼터를 옮긴 이유는 쉼터이용기간이 제한(3개월)되어 있고, 각 쉼터마다 물리적 시설이나 인적자원에 차이가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규칙 및 쉼터의 분위기에도 차이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보다 유익하고 적절한 쉼터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청소년집단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쉼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C2: 다른 쉼터에 있다가요, 거기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게 정도껏 간섭하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저를 좋은 쪽으로 해주는 길이니깐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규칙은 솔직히 지킬 마음은 있는데요, 하나하나 예를 들면 남자친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솔직히 저 혼자서도 알아서 끊으려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아예 못 피게 한다든지, 담배를 숨겨 놓는다든지... 그런 건 진짜 싫어요.

C4: 그 컴퓨터에서요, 그러니까 가출한 애나 언니들한테 꼬임을 당해서 무단퇴소 했다가, 이렇게 인계받아서 다시 다른 컴퓨터에 인계 해주구 막 이런 거였어요. 다른 데로 옮겨주고… 언니들이요… 한살 더 많았어요. 언니들이 나가서 며칠만 있다가 다시 오자…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답답했거든요. 나가고 싶어도… 같이 놀… 나가 놀고 싶어도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단 퇴소 해가지고… 거기 다시 전화 했더니 딴 데로 인계해줬어요.

C5: 시간이 지나서

C23: 시간이 다 되거나 아니면 거기 생활이 불편하거나… 뭐 컴퓨터가면 한명씩 사람 갈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짜증나서 나올 때도 있고, 선생님들한테 말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 뺏어오라고 하거나 돈 못 구해오면 또 맞고.

C26: 침에 OO에 있을 때는요. 만기를 채우게 돼서 나오게 됐었구요. 다음에 △△을 잤었는데 △△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냥 거기 있기 싫어져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에 \*\*에 있어요. 거기에 또 갔다가 거기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OO으로 가도 되니까… 갔다가 왔다가 갔다왔다 하다가? 이제 또 ◇◇에 □□ 컴퓨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갔다가 거기서 어떤 애가 자꾸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계속 참았는데, 참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맨날맨날 그러니까 까불고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근데 더 심하게 될까봐… 퇴소시키고… 퇴소하고 나서 이제 의정부로 왔다가 다시,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지내다가 이번 주 일요일에 ☆☆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일도 있고 그래서…

### (3) 쉼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 청소년들은 쉼터에서의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만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생활하고 선생님들의 지지가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쉼터생활에 대해 만족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가출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속식이 해결되고 용돈을 받으며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면접대상 청소년들 중엔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중단한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뉴스타트 프로그램<sup>26)</sup>에 참여하는 등 원하

는 경우 진로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 받고 있었다. 한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생활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쉼터 내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엄격한 규칙으로 인한 불편함이었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시설과 위생측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C1: 좋은 점ियो? 키워... 아, 키워준덴다... 그냥 며칠인가? 며칠 동안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보다 낫잖아요, 하하...

C3: 편안해요... 규칙 있는데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의식주 그런 거 다 해결이 잘 되니까 있을만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학교도 다니니까 그런 것도 편안하고... 아 일단 좋은 점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안 보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여기 집에서 좀 다닐 때는 집에 들어가기도 곱... 좀 조심스럽고... 그렇게 집에서 별루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또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고 또 여기 오면 또 애들이 반겨주니까 학교 잘 다녀왔냐고 반겨주니까... 그런 게 좀 좋았던 거 같아요.

C4: ...숙모랑 살 때는... 좋은 점 없었구요... 쉼터에 살면요, 내 또래들도 있구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선생님도 있구요, 그리고 또 분위기도... 어쨌든 편해요. 뭔가... 집보단 편해요.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때리는 사람 없구, 나 욕하는 사람 없으니까. 뒷담화 해도 솔직히 내가 안 들으면 편하잖아요. 어쨌든 집보다는 좋아요. 편해요, 여기가. 오히려 쉼터가. 근데 만약에 엄마(돌아가심) 아빠랑 살게 된다면 다시 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친)부모님이랑 살 땐 행복했어요.

---

26) 노동부에서 청년실업 해결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대학졸업 후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NEET족 등 취업애로 청년층(만 15세~29세)에게 취업을 목표로 3단계(1단계(4주) 개별상담·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2단계(1~8개월)직장체험·직업훈련 등 참여→3단계(3개월)동행면접, 만남의 날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심층상담을 마치고 3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2단계 직장체험 참여시 50만원수당).

C6: 여기서... 좋아진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걸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KBS에서 하는 우리말겨루기라는 예심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

C7: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데... 애들이요, 손버릇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물건도 많고 그런데... 여기 컴퓨터 자체에서 불만 있는 건 없구 그냥 애들 행동이나... 여기서요 이렇게... 그냥 맨날 있으면 진짜 막 무기력해지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 할 마음 있는 애들만 이렇게 김정고시 학원 보내주거나, 대안학교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대안학교 가고...

C12: 여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애들도 착하고, 선생님들도 여기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갔던 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요,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이라면... 다른 데 보다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외출 같은 거...

### ① 컴퓨터 시설에 대한 만족도

컴퓨터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식당 등의 시설에 불만이 많았고, 컴퓨터의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컴퓨터의 청소년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추어지기를 원했고, 고장난 시설 등은 즉각 수리가 되어 사용에 불편이 없기를 희망하였다.

C4 : 위생이 불결... 속옷이 있잖아요... 컴퓨터 오면 처음 새 거 주잖아요, 딴 컴퓨터는요. 여기는요, 누가 입던 거... 주인이 없다고... 사무실에 놓구 그거 입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요. 설거지두요, 미끌미끌해요, 애들이 하고 나면. 나는 그런 거 진짜 찝찝해서 밥을 어떻게 먹나 싫어요... 그리고 식판을 잡잖아요? 미끌미끌해서 식판을 놓칠 것 같아요, 그러구요, 청소도(보이는 데만 하고...) 손걸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것두... 근데 대걸레가 깨끗하면 몰라요. 시꺼매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두 칫솔 같은 거나 뭐... 애들 나가면 제각제각 없애

버리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부엌두 좀 지저분하고... 막 처음 딱 왔는데 냄새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 층이... 위생상태가 너무... 불결해요... 위에 가면요... 상이 있어요, 식탁이... 저런 거 말구 있어요... 애들이 코딱지 존나 많이 대박 많이 붙여 놓 거예요... 그리고요, 이불시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끼워서 쓰는 거, 근데 그게 안 썩어져 있어요. 근데 배게는 다 냄새가 나구요... 누우면요, 막 짹짹해요. 요즘 여름이라 살도 달라 붙잖아요, 비닐이면.. 비닐 매트라 다 달라붙어요. 그래 가지구... 몸이 간지러워요, 여기 와서요.

그러니깐요, 선생님들이 몇 개를 정해줬어요. 여기 OO랑 △△랑 그리고 ◇◇동에 있는... 정해줬어요. 근데 신청지에서 봤죠. 근데 여기가 그나마 난 거예요, 시설은... 그래서 일로 왔는데... 여기 컴퓨터(인터넷)에는 깨끗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화장실 세면기도 깨끗었나 봐요. 그래가꼬 뭘 이렇게 감아놔요. 벌레 나올 거 같애... 샤워할 때요, 무서워요. 막 세면대 깨져있고...

## ② 쉼터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쉼터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일부는 쉼터운영 측면에서 교사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4: 제가요,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들) 건의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옷두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옷두요, 다 안 맞는 옷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름옷은 별루 없구요, 다 겨울옷이에요. 그냥 그거 싫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막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C12: 그냥 저는 어른이 싫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여기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요.

## ③ 쉼터 규칙에 대한 만족도

면접대상 청소년들이 쉼터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것은 바로 규칙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이전의 쉼터생활이나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현재의 쉼터규칙에 대해서 불만 혹은 만족을 나타냈는데, 가출생활에서 만끽했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써 대부분 불평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이 불평을 가장 많이 호소했던 부분은 시간에 대한 제한이었다.

C1: 외출? 9시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9시까지 꼭 들어와야 되고... 다른 불편한 점? 단체생활이 불편하죠.

또한 운영단체에 따라 종교적인 활동이나 의식에 참여하는 일과 취침시간과 여가시간 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청소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C4: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좀 빡빡했어요. 규칙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한 달 동안 외출 금지구요,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가구요, 정원에서만 놀아야 하구요, 일주일 뒤부터 컴퓨터가 되구요. 뭐... 자는 시간도 다른 쉼터는 다 열한 시, 열한 시 반 이렇게 자는데 우리 쉼터만 열 시에 자구요, 장난 아니었어요. 거기만 열 시에 자구. 그리고 미사는 꼭 드려야 되구요. 그래서 싫었어요.

C21: 그냥 벌점 스티커 없고, 컴퓨터나 좀 많이 할 수 있고, 외출 금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쉼터 선생님들은 좋은데, 좀 그래도... 규칙은 좀 싫어요.

한편, 쉼터 내에서 서로 욕을 안하는 거라든지, 폭력을 못 쓰게 하는 규칙은 입소 청소년들도 필요한 규칙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음주, 흡연에 대한 것,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 학원생활에 대한 것 등 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규칙들을 대부분 불편해 하고 있었다.

C19: 불편한 규칙은 없고, 서로 욕 안 하는 거... 서로 욕을 안 하는 규칙이 맘에 들어요.

C26: 너무 아이들한테 자유롭지 못 한 것도 있고, 일부러 외, 외출금지 시킬 때도 있고, 쉼터 규칙 중에 폭력 못 쓰게 하는 이런 거나... 그거 빼곤 좋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그거 빼곤 없는 것 같아요.

한편 일부 쉼터 입소 청소년들은 이러한 쉼터의 규칙을 피해 본인들의 욕구를 채우는 행동들도 하고 있었는데, 취침점화가 끝난 후 늦은 밤, 시설 종사자 몰래 쉼터를 이탈하여, 바깥에서 놀거나 혹은 부적절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었다.

C29: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진짜 딱 데로 말 안하죠? 지금 원래 여기서 오후6시까지 외출인데... 이제... 새벽에 일하는 거는요, 불가능하잖아요... 자랑 아는 위에 선배 있어요... 좀 이따가 나가서 밤에 일 좀... 해 보려고요.

#### ④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한편, 대부분의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쉼터 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쉼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거의 없어서 쉼터의 일과가 매우 단조롭고 심심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모두 쉼터 내에서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나 물품들이 구비되기를 희망하였다.

C5: 일어나서... 밥먹구, 씻구, 컴퓨터하고, 티비 보고,, 밥 먹고, 티비 보고, 밥 먹고. 할 게 없잖아요, 여기 쉼터. 거지예요, 여기 쉼터... 할 게 없어요. 할 게...

C6: 그러니까 뭐 금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성교육이라든지... 또 뭐지... 미술 치료라든지... 그리고 해결 중심 상담이라 해가지고 향후 학생들의 진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다 OO에서.. OO 내부의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여기 사무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 분이 오셔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식사는 여덟시에... 점심은 열두시에... 저녁은 다섯시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외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나왔으면 오후 다섯 시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오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밤 아홉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아홉 시에 간식 먹다가 열한 시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시간이 아홉 시간이 되는 거죠. 밤 열한시부터 다음날 아침 여덟시까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C12: 저는 여기서 그때 예전에 있을 때는 여기 2층에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검정고시... 거기도 잠깐 다니다가 제가 퇴소 했었고,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들 말하면 개인 과외도 시켜주시고...

### ⑤ 단기쉼터에 대한 요구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현재 입소 중인 단기쉼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단기쉼터의 입소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원했는데, 현재 중장기쉼터의 입소조건이 까다롭고 정원에 제한이 있어, 단기쉼터 이수 후 중장기쉼터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단기쉼터에 입소 중인 가출청소년들 대부분 여러 지역의 단기쉼터를 이동하면서 가출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퇴소 후 재입소까지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재입소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쉼터에서의 연장생활이 요구되는 청소년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C5: 청소년 쉼터 기간을 없애야 되요. 기간을... 나갔다가요, 퇴소를 하잖아요, 기간이 다 되서 퇴소를 당하면... 다시 못 들어가요. 기간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갈 데 없으면... 그렇잖아요... 다시 재입소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쉼터는 입소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서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C6: 여기 쉼터는... 제가 봤을 때 규칙적으로 돌아가니까 일단은, 그게 가장 좋은 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직업학교 다니다가 종강했어요, 얼마 전에. 애들 보면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 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먹고, 게임하고... 이게 돼지가 생활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 한 분하고 같이 쉼터의... 말하자면 위상 제고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여기 OO라는 단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제 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도 입소생의 한 사람으로써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한편, 아래와 같은 쉼터 운영상의 세부적인 측면도 요구되고 있었다.

C7: 뭐가 이렇게 고장 나면요... 빨리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구요, 용돈이 너무 적어요. 일주일에 3천 원인데요... 교회 차비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려고 하면 너는 아직 공부 할 나이라고 하고... 용돈을 올려 달라 그러면... 뭐 계속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하고 올려주지도 않구 그래서...

그 외, 쉽터가 보다 가출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가출청소년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C26: 거리 상담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위기 청소년들도 있고, 가출 청소년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힘든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 오히려 도움 받을 수 있게... 좀 더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왔다갔다 할 차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갔다 외출하거나 그런, 그런 차비 같은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용돈 없는 쉽터는 좀, 용돈을 좀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 좀 더 힘들어 할 것 같고... 웬만하면 다 외출 시간일요, 너무 늦지도 않게 9시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쉽터들 다... 보통 막 5시 반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쉽터에 하루 들어왔다고 외출 금지시키고 막, 못 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 5)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

### (1) 학업에 대한 관심

면접대상 가출청소년 사례 중 약 절반은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업을 다시 시작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몇몇 사례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과 대입응시자격을 갖 고자 하였으며, 정규교육과정은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직업 교육과정을 받고자 원했다. 그러나 중학교 연령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이나 아직 학적을 정리하지 않은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학업을 유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C2: 학교는… 돈 벌라구 하다보니까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자퇴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면은 집에서 분명히 부모님이 잡으러 올텐데 어떤 정신 나간 애가 학교를 다니겠어요, 가출한 애가. 맞잖아요, 꼬리 밟힐 짓이잖아요, 그게.

C1: 학교요? 전학가면 같건데… 지금 학교는 싫구요, 안 좋은 일 있어서… 친구랑 싸워 가지구…

C2: 학교는… 귀찮아요. 이젠… 어차피 애들도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공부도 밖에서 혼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에서만 공부하라는 법 있어요? 집에서 자기 혼자서 공부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다 검정고시 따면 되는 거지 뭐… 학교는 틀이 있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공부 는요 자기 마…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오히려 더 공부 못하는 애들 있어요. 애들한테 휘말려서. 내가 집에… 안 나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웃기다니까요. 콜라… 콜라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C7: 일단 공부해서 검정고시 합격 하구요. 음… 자격증 같은 것도 따구…

## (2) 진로에 대한 계획

면접 대상 가출청소년들 중엔 장래 진로에 대해 아무 계획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매우 적었는데, 대부분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으나,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것을 힘들어 하였으며, 쉽고 빨리 돈을 벌고자 하였다. 일부 가출청소년들만이 학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미련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C2: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냥 다 똑같더라구요, 해보니까. 그냥 일반 잘하면 돈 더 줄 꺼 아니에요. 그냥 돈만 더 준다는 데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C3: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일단 돈 벌기 위해서… 네…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취업같은 것도. 근데 학교가 지금 그 취업 하는 쪽이 생산적

이러서 막 부품들 고장난거나 그런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버티 불러구요.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C4: 자퇴를 하게 되거나 자퇴를 하게 되면요, 검정고시랑요, 이거… 피부미용 배우고 싶구요, 자퇴를 안 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닌다면요, 대학교에 가서요,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요, 유치원 선생님 하거나 아니면 간호과를 가서 간호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피부 미용사나 미용사를 하고 싶어요.

C7: 처음에는 계속 그냥 소설가로 꿈 가지고 오다가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소설가 보다는 막… 피부 막 이런 쪽으로 해주고 싶은거 예요…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막 서로 팩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서… 뷰티샵 차리는 쪽으로… 하고 싶어요.

C12: 검정고시 봐서 졸업도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면…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모은 뒤에요, 자격증 같은 거도 좀 따고 그 뒤에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고… 꿈이 선교산데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러면, 선교사라는 명목으로는 갈 수가 없데요… 다른 거로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가는 거여서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성경쓰기나, 그냥 기도나 그런 거 하고…

C26: 사회 복지인테요. 그러니까 쉽터 선생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선생님 같은 거… 사무직 같은 거 종류로… 그 위주로 하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있잖아요. 2단계에서 이제, 직업훈련 말고… 직장 체험 일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면서 월 50만 원씩이나 아니면 70몇 만 원, 백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일 해가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함 해 불러구, 그걸 해가지고 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고 있고… 그쪽을 하고 나서 인제 돈 어느 정도 벌면 인제 검정고시도 보고… 할 셈이에요.

한편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폭력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신청에서 누락되어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C2: 뉴스타트요? 그거 저요, 못해요. 한번 떨어졌어요. 두 번째 안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때 경찰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구요, 거길 못

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속상해요.

C26: 뉴 스타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됐고요. 이제 좀 있으면 1단  
계 끝나고 이제 2단계 되요. 수당 30만원 받고 이제, 2단계 할 차례가 거의  
다 왔어요.

## 6) 사회에 대한 기대

### (1) 가출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사회적 요소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사회의 위  
험요소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가출청소년집단의 집단행위, 성매매집단의  
성매매, 불온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우범지대의 밤길 등이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하고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위험요소들로 인식되었다. 면접대상 가출  
청소년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위험요소에 빠진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C2: 아 일행털이... 그러니까 다른 가출한 애들 돈 털잖아요. 돈 몰래 가  
져가잖아요. 그거 위험 한데요.

C3: 그러니까 좀 요새 또 이렇게... 성매매? 뭐 그런 게 좀 위험하잖아  
요. 나쁜 사람도 만나고... 채팅해서... 그런 것도 좀 위험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이나 뭐 그런 거 좀... 부모님들은 좀 자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  
데 그런 것들 뺏기고... 좀... 생각나고... 그러니까 집에서 못했던 것들이 좀  
생각나요. 좀 나쁜 쪽으로...

C4: 밤길... 저는 밤엔 혼자 안돌아 다녀요, 절대. 아예 밤에 잘 나가지  
도 않구요, 밤을 싫어해요, 그냥... 무섭죠...

C7: 인터넷에서요... 뭐 만나자 해서 만나는데... 그제 좋은 애들끼리 만  
나면 괜찮은데 가출... 나온 아이들끼리 서로 만나잖아요... 둘이 만나서 막  
이상한 알바하고 이상한 남자들 만나서 막 그런 게... 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되게 걱정 많이 하고...

C10: 나쁜 애들 만나고 잘 데 없는 것...

C19: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왜 피씨방 같은 데 가잖아요. 채팅을 해요. 철없는 짓을 해요, 애들이. 진짜 죽여 버리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때리고 그냥... 그래 갖고,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거에 중독되는 거? 계속... 그게 가장... 성매매. 막 성매매 알선 같은 것 많잖아요. 그런 것들...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C22: 그냥...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요. 애들끼리 모여서.

C26: 그러니까 폭력도 있고 양아치 같은 것들도 그렇고.

## (2) 가출청소년을 위해 일을 한다면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에게 만일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고 물은 결과, 대부분은 가출청소년들에게 지지기능과 가출생활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C7: ...그냥..미래에요, 저처럼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구요, 있다고 하면 제가 좀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고민을 이렇게... 말 하자면 경험을 못해 본 애들은 그냥... 힘내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대화도 좀 많이 해주구... 그리고 싶어요...

C12: 만약에 내가 쉼터 선생님이라면, 가출한 친구들한테 나쁜 길로만 빠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선은 어떤 정책 같은 것 보다는 우선, 개네를 이해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 하게 된다면요, 알바 자리 같은 거 소개해 주고 싶고, 아픈 애들 치료해 주고 싶고, 우선은 이제... 애들한테 의식주를 정확히 해주고 싶어요, 그냥 건강 챙기고 치료해 주고...

C19: 전 제가 말한 거 다 할 거예요. 저는 쉼터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맨날 검사할 거예요. 집에 가 가지고 개네 집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학교에도 다 전화해 볼거야.

C22: 쉼터 선생님이 돼서... 규칙을 좀 느슨하게 해줘야죠.

### (3)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기거할 장소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업적인 측면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환경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C1 : 잠자리...

C6 : 일단은 경제적인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학업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학업적인 지원은 우선시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쉼터들은요, 자원 봉사자들을 많이 초빙해가지고 학생들 가르친다든지, 공부방을 연다든지, 아침 시간 마다 여기는 기독교 단체니까 큐티라고 하지요, 큐티 시간을 많이 가지든가... 아니면 이제 독서...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독후감 쓰기 대회를 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까지 제가 1년 한 달 동안 있으면서도...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C26: 일단은 쉼터 같은 도움이나, 가족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웬만해서는 좋은 가족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폭력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나 뺨 뜯거나 뭐 그런 거, 그런 거 없었었다면 저도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을까.

### (4)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 - 치료와 예방적인 측면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우리사회가 가출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손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들의 인격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2: (내가 오죽하면) 오랜 시간을 그렇게(가출) 있었겠어요? 그만큼 집이 괴롭고 힘겨우니까... 그리고 지금 정서가 불안한 상태라서요... 쉼터 선생님들이 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뎌서 지금 쉼터를 옮긴 거뿐이고... 근데 쉼터에 있는 애들이라고 막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요, 개네들도 자존심이 뭉개져요. 솔직히

어른들도 어렸을 때 한번쯤 가출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때 마음 생각 하면서 애들... 가출한 애들을 그렇게 안보고 자기 어렸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C3: ...좀 쉼터에서 좀 생활하고 좀 집으로 잘 돌아가고 자기가 계획한 미래가 있는 애들한테는 좀... 계속 뒤에서 좀 밀어 줬으면 좋겠어요.

C6: ...저도 예전에... 옛날에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지만 내면은 누구 못지않게 정말 따스하고 착한 애들이니까. 사회에서 좀 차가운 선입견을 가지기 보다는... 좀 따뜻한... 넓은 가슴으로 안아 줄 수 있는... 말하자면은... 정말 사랑...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C19: 사회복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요, 막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몇 번씩 막 집에 오고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편, 가족해체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도 큰 가출청소년들은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의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개탄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C7: 음... 이혼을 못하게 하면 안돼요? 아니면 결혼할 때 되게 신중하게...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혼을 못 하게... 했으면...

C3: 뭐지... 음... 일단은요, 그때부터...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 온 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집으로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서, 자기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솔직히 선생님들은 집에 잘 갔으니까 신경은 그래도 좀 쓰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집에 잘 갔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가출 청소년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도 또 다시 나오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집에 간 애들을 이렇게... 몇 주에 한 번씩 둘러보든가 아니면 애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있으면은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C5: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가출하지 않았어요.) 폭력이 없었어야 되요... 아니면 폭력 쓰면 사형 이런 법이 있든... 그래야 안 때리지...

C19: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요, 집에 못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가기 싫은 애들이 많잖아요. 여긴 단기잖아요. 오래 못 있잖아요. 오래,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분명 줄어들 거예요.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여기 막 못 가는 애들 많아요. 막 전화번호 바뀌서 아예 부모님 못 찾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안 받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 7) 귀가에 대한 계획

### (1) 귀가계획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에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중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경우 모두 가출생활이 힘들지만 집에서 지내는 것 보다는 낫고, 따라서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 중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경우는 모두 3사례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의 가출원인은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이 아닌 친구의 유혹이나 밖에서 마음대로 놀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가출한 경우였다. 또한 전체 사례 중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3사례만이 화목한 편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세 사람이었다.

C3: 집에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어요… 아버지랑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뭔가 아무리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 때 잠깐 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래도 그 때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도 아빠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엄마랑 이제 이런 것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빠한테. 근데 그게 저… 제 생각에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그게 아니고 더 길게 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1주일, 2주일… 밖에 안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더… 지금 만약에 고쳐줬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 같으니까… 차라리 집에 안가고 지금도 가끔씩 2주마다 한번씩… 가고 있는데,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C6: 집에 지금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가면 또 나갈 거 같고... 제가 나간다고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내쫓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같은 일상이 반복이 될 텐데... 전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지낼만한 용기도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변하신다면)... 아버지가 변하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남북통일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어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예 변하신다... 이걸 가정이지만... 달라지신다면)... 그러면 제가 집으로 가지요. 제가 여기 1년 한 달 동안 있었을 이유도 없는 거니까.

C9: 새엄마가 나가면...

C22: 지금은 돌아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싸우면요, 꼭 저희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 (2)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을 한 경우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응어리가 많이 남아 있었으며, 분노에 찬 상태로 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

C3: 그냥 지금 이렇게 한 행동들이 너무 자신... 자기... 자기들이 그런 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거 들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또 예전처럼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좀만 더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딸 자식들이 뭘 말하면 좀 이렇게 호응 같은 거도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관심... 어느 정도는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출한 후 새아빠가) 달라진 거는... 술 드시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생일날에도 아빠가 좀 그래 가지고... 마음 속상했거든요, 특히 생일날에 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좀 가기 좀 꺼끄럽고... 전화 하는 것도... 할 말이 딱히 없었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아빠랑 그렇게 대화 하는 것도 많이 아닌 거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그래요.

C4: (모 사망, 부 교도소 수감 중, 속모 학대 심함)...아 근데 속모는 저한테... 한 주먹거리거든요. 하...근데 어른이니까 참아요, 제가... 진짜요. 때

릴 수만 있었으면 때렸어요... 삼촌 아니었으면... 그냥 모르는 아줌마가 그 짓거리 했으면 진짜 때리고 나왔을 거예요. 집안 물건 다 부서버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방망이라도 들어서 했을 걸요 진짜. 무기라도 들어가지구... 그 사람들이요... 청소년 때가 제일 무서운 걸 모르나 봐요. 청소년 때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범죄 저질러도 청소년 때만 빨간 줄 쳐 있고, 스무살 되면 싹 없어져요. 그런 걸 모르나 봐요. 무서운 짓거리는 청소년이 더 많이 하는데... 진짜요...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짜증나요. 진짜 내가 죽일 수만 있었다면 그런 자신감만 있었다면 진짜 죽이고 나왔을 거 같아요. 그리고 감옥가고... (뭔가 하고 싶은 말, 숙모님에게)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 닥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내가 어떻게 변하기 전에 가만히...

C6: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있는 거지.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워낙에 저한테 많이 잘 해주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더 염치가 없는 거고, 아버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어하는 사람끼리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존재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기분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많은... 사건을 겪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집에서 갈피를 못 잡겠고, 학교에서도 갈피를 못 잡았고... 저도 굉장히 아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C7: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빠는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해서 사람 마음 왔다갔다하지 않게 했음 좋겠어요. 새엄마는 좀 이렇게 자기 자식처럼...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 해도 공평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C8: 짜증난다고 말하고 싶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게...

C12: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C21: 이제부터 잘 하겠다고 집, 어, 집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거 밖에 없어요.

C26: 적어도 자기 자식만큼은 아무리 못된 놈이라고 해도 잘 챙겨주실 수 있고 이해라도 해 주실 수 있는 아빠가... 사랑받을 수 있게 더 관심을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한테는 적어도 폭력을 쓰진 않을 거예요. 욕설도 쓰지 않고, 아들과 더 친할 수 있는... 친해지는데, 그런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아빠가 될 거예요.

## 8) 소결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대상(30사례)은 첫 가출 상태인 사례에서부터 60회 이상 가출을 한 사례까지 가출빈도에 따른 사례들이 고루 포함되었고, 첫 가출시기도 초등학교 저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시기까지 골고루 포함되었다. 이것은 사례수가 제한된 질적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도적 판단적 표집방법을 취한 결과이다.

둘째,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구조적으로 해체상태에 있었으며 기능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가정환경이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면접대상의 절반은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자퇴나 상급학교 미진학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대부분 학업을 다시 시작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가출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며 따라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마련에서는 발달단계에 맞는 학업과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셋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학교선생님이나, 경찰이나, 일시보호소 종사자나 상담원이나 교회나 부모나 친척 등의 다양한 경로에 의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였고, 주변의 친구나 가출시 만난 선배들을 통해 입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 스스로 1388 헬프콜에 도움을 청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쉼터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현재의 쉼터를 가출 후 바로 찾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여러 곳의 의뢰기관을 거쳐서 오거나, 혹은 가출 후 보호시설 외의 장소(친구집, 친척집,

일터, 가출청소년집단 기거 공간 등)를 전전하다가 생활이 여의치 않아 쉼터를 찾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기가출을 하거나 재가출빈도가 높은 경우, 여러 곳의 단기쉼터를 돌아다니며 입소하고 퇴소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기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결코 단기간 가출을 하는 경우가 아니며, 역으로 청소년 가출은 결코 단기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청소년쉼터의 기능이 일시적인 단순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주로 주변 친구나 가출에서 만난 가출선후배들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출에 대한 유익하고 신뢰로운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면접대상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귀가 시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첫 가출에 비해 재가출을 보다 쉽게 결정하며, 가출빈도가 증가할수록 귀가하여 가정에 머무는 기간은 짧아지고 가출 지속기간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출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가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졌기 때문이며, 가출생활에서 경험한 무한한 자유로움이나 오락의 재미도 재가출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섯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의 폭력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가출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출생활이 가족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고 진술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의 가족 환경이 얼마나 역기능적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일곱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비와 잠자리이며, 가출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

나 가출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가출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함으로써 부적절한 경제활동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은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경험하면서 부적절한 경제활동에 몰입되기도 하며 앵벌이나 절도, 빠끼 등의 비행도 저지르게 된다.

여덟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회적으로 요소가 우범지대의 밤길이나 불량한 가출청소년집단이나 성매매집단이라고 판단하였다. 면접대상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출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아홉째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쉼터에서의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만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생활하고 선생님들의 지지가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쉼터생활에 대해 만족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가출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숙식이 해결되고 용돈을 받으며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면접대상 청소년들 중엔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중단한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원하는 경우 진로와 학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

열 번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로 엄격한 쉼터 규칙과 비위생적인 쉼터시설과 열악한 쉼터내 프로그램 등이었다. 특히 쉼터의 일과가 매우 단조롭고 심심하여 쉼터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이 구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열한 번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현재 입소중인 단기쉼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단기쉼터의 입소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원했는데, 현재 중장기 쉼터의 입소조건이 까다롭고 정원에 제한이 있어, 단기쉼터 이수 후 중장

기컴퓨터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기컴퓨터에 입소중인 가출청소년들대부분 여러 지역의 단기컴퓨터를 이동하면서 가출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퇴소 후 재입소까지 일정의 시간이 흘러야 재입소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에서의 연장생활이 요구되는 청소년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열두 번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좋은 대안의 하나로서 보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열세 번째,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은 장차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출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가출생활에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가출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손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가출청소년들의 인격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열네 번째,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현재 가정에 복귀할 계획이 없으며, 비록 가출생활이 힘들지만 집에서 지내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주며, 또한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가출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심리치료와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면접대상 가출청소년들 중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경우는 모두 3사례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의 가출원인은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이 아닌 가정 밖의 문제였으며, 전체사례 중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가 화목한 편이라고 말한 세 사람과 동일한 경우였다.

##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VI.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국내외 가출 예방 및 지원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 가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출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들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11.6%)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전체 청소년 인구에 대입한 결과, 약 47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1회 이상의 가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된 48만 명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지난 한 해 가출한 청소년의 비율인 6.6%를 바탕으로 추정한 한 해 가출 청소년은 약 22만 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 청소년이 가출한 경우 일회성 가출로 그치는 경우가 약 46%라는 결과에 따라 한 해의 일회성 가출 청소년을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후속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출청소년’이란 용어가 모든 집 밖 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 밖의 청소년에 대해 ‘가출’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 ‘홈리스’ 청소년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상담기관과 쉼터를 중심으로 ‘노숙 청소년’ 혹은 ‘가출노숙청소년’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가출’이라는 개념 하에서 다루어지고, 가출의 원인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출’이라는 단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버려졌거나, 쫓겨난 경우나 가정 내 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청소년들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을 나왔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은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고전적인 시각과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가출에 대한 대응책도 원인에 상관없이 가정 복귀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집 밖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지만, ‘가출’이라는 청소년의 행위보다 이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환경과 그에 따른 문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 밖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제도권 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9~2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청소년 쉼터의 주된 서비스 대상은 만 9~19세의 청소년이다. 이에 20세를 전후한 가출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도 현장의 수용능력이나 보호와 지도체계가 현실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립이 불가능하여 사회적으로 보호와 지원책이 필요한 대상이다. 외국의 경우 만 21~25세까지(미국 21세, 영국 25세, 호주 21세: 호주의 민간기관 25세)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 쉼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장한 연령대상자들이 청소년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쉼터의 여건을 보완하고, 특히 자립이 필요한 초기 성년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들도 지원 및 보호 정책과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

황에서도 지원 및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끊긴 상태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의 선정 대상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이 정부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외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출청소년, 특히 가출 초기이거나 가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일부 만성적인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위한 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출 초기이거나 가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디서 어떠한 지원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출 충동을 자주 또는 항상 느끼는 청소년 중 40%에 가까운 이들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성 가출청소년들과 같은 초기 가출자들 역시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어두웠다. 또한 보호시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에는 보호시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들은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만성가출자들은 일부 영역에서 다른 가출자나 가출 경험이 없는 이들과 또 다른 특성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성가출자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가정 내 방임이나 학대의 수준이 높았고, 지지의 정도는 낮았다. 또한 가출 후에도 다른 가출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의 도움이 적어, 가족과의 괴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출 후의 상태도 다른 유형의 가출자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가출자들의 경우는 건강, 경제적 상황, 가족들의 태도, 학교 다니기 등의 상황이 가출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들은 다른 가출 유형자에 비해 일탈행동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한 경험도 많았고, 가출 후 폭행과 같은 피해경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듯 만성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을 전후로 심각한 가정문제나 일탈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따라서 부정적 경험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의 정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은 낮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출빈도가 높은 만성가출청소년들은 가출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정에 복귀할 계획이 없으며 집에서 받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가출생활이 더 낫다고 표현함으로써,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장기 및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다른 가출자들에 비해 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 또한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잠시 쉼터를 활용할 뿐, 쉼터 밖에서의 가출생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기능이 만성가출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만성 가출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보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가출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양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 가출경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가출 유형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가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구조와는 독립적으로 가출청소년들, 특히 만성가출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나 방임의 정도는 높고 가족의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이유에서 부모님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가출과 관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

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는 청소년의 가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만성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상황이 보다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재혼가정 출신의 만성가출자들은 다른 가족구조를 지닌 청소년들이나 다른 가출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는 낮고, 학대 및 방임 정도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조손가정 출신의 가출청소년들은 재혼가정의 청소년들과 더불어 보호자로의 방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방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연령은 높은 반면 경제적 수준은 낮은 상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가정환경은 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인 만큼 열악한 환경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출청소년들은 건전한 지지원이 부족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고 또래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높은 또래동조성은 친구의 지지는 높은 반면 그 외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족이나 친구, 교사, 기타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가출기간 및 횟수가 감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청소년 가출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이 부족할 경우 자신들을 지지해 줄만한 또 다른 체계를 찾아 자신의 공간 밖으로 나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출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부터의 지지와 건전한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이 가출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친구를 꼽은 사실은 친구들이 가출청소년들에게 지지원의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지지체계

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건전한 지원이 충분히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원 체계간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여덟째, 가출청소년 및 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가출예방교육, 또래상담자 훈련, 가족 중재, 아웃리치 등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사후개입 보다는 조기개입 및 예방 사업에 보다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출 예방 및 조기개입 관련 정책은 아웃리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006년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전개해 온 아웃리치 사업을 일시 청소년 쉼터의 역할로 규정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일시쉼터는 총 5개에 불과하여 가출 예방 및 조기개입을 실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가출 관련 전문가들이 예방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개입에 관련한 정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출 예방 및 조기 개입은 가출 위험군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출전·후 일탈 행동 및 피·가해 경험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의 일탈 및 피·가해 경험은 가출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일탈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심층면접 조사결과, 가출을 하면 일단 가출 청소년집단에 쉽게 노출되고 이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여 가출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탈행동 및 피·가해 경험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출 예방 교육은 물론 조기개입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가출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전문인력의 유출이 우려된다. 현장 실무자들의 경우 노동강도는 높는데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보니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평균 임금이 4인 기준 가족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더욱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들을 상대하는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를 곳곳에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실무자들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이들이 가진 오랜 경험이 전문 지식과 기술로 변화되고 쌓이는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또는 위험군 청소년들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감안할 때, 현장 전문가들, 특히 최일선에서 가출청소년을 만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영국은 보다 종합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건과 교육의 지원 뿐 아니라 주택의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미국의 경우도 정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이나 자립의 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개발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택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재정리와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으로 CYS-net을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CYS-net과 CYS-net 수행의 허브(HUB)기관을 맡고 있는 상담지원 센터의 경우, 가출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이다 보니 가출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가출청소년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쉼터와 상담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 않아 업무가 중복될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확한 업무영역에 따라 가출청소년 및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2. 정책제언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가출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재정립, “가정 밖 청소년”

‘가출’이란 용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 있는 상태의 의미가 훨씬 강하여 생존을 위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며,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고전적인 시각과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이에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가정으로의 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홈리스’ 청소년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홈리스’ 청소년들의 자립이나 전환생활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보다는 ‘가정 밖 청소년’ 또는 ‘무가정 청소년’ 등과 같은 용어의 전환을 통해 ‘가출’이라는 청소년의 행위보다 이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이에 따라 집 밖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대상의 확대

### ○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의 상향조정

현재 가출청소년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만 18세까지이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24세까지이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자립을 하지 못한 청소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 21~25세까지(미국 21세, 영국 25세, 호주 21세, 호주의 민간기관 25세)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쉼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는 24세의 청소년까지 쉼터나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쉼터가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도 자신이 보호시설의 서비스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연령 폭을 넓히고, 특히 자립이 필요한 초기 성년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현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의 선정대상 확대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고 가정으로부터의 지원은 끊긴 상태가 많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의 선정 대상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가출청소년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가출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정책의 확대

청소년들의 가출‘예방’과 ‘조기개입’을 강조하는 서비스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국외의 사례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사후개입 보다는 조기개입 및 예방사업에 보다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로써, 국외의 정책들은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가출예방교육, 또래상담자 훈련, 가족 중재, 아웃리치 등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개입에 관련한 정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출 예방 및 조기개입 관련 정책은 소수의 아웃리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개입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 가정 및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 실시

- 일탈 경험이 높거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출 전 일탈 행동 및 가해 경험의 정도가 높거나, 부모나 양육자로부터의 방임이나 학대의 경험이 많고, 가족의 지지가 낮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높은 가정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 및 신체적 치료가 실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할 것이다.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조치의 예로는 부모역할 재훈련, 부모(양육자)대상 심리치료, 일정 기간 동안의 친권 및 양육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족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일

삼는 부모나 양육자들은 양육방법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 이전에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심리상태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방임 및 학대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가족에 대한 초기 중재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복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재혼과 혼합가정 및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 실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혼과 혼합가정의 청소년은 방임과 학대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조손가정의 청소년은 방임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정도는 가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이나 혼합가정 내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은 가족 구성원들이 새롭게 구성되어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혼가정과 혼합가정 및 그 가정 내 자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재적응을 돕는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는 가정 내 갈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손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방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손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양육 상황은 지역사회 체계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가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 및 성인 지지망 형성 지원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고 또래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높은 또래동조성은 친구의 지지는 높은 반면 이외에 부모나 교사 등과 같은 성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부터의 지원과 건전한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이 가출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으로 친구를 꼽은 사실은 친구들이 가출청소년들에게 지지망의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또래상담 등을 통한 건전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지지체계로서 가출 예방과 조기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지지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담당할 수 있는 성인 지지망을 형성·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이웃사촌 맺기 등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성숙한 성인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는 성인 지지망 확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 가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각 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각 교급별 가출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가출 청소년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의 실시는 각 시도별 청소년 수련관이나 상담지원센터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방교육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연계 하에 재량 및 특별활동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강화

- 대대적이고 정기적인 홍보 계획 수립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보완·강화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 일부 만성 가출청소년들이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가출 초기이거나 가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디서 어떠한 지원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회성 가출자와 같은 초기 가출자들이나 가출 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출청소년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거리생활을 하게 되는 등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많은 경우의 가출청소년들은 처음 가출시 거리나 공원을 배회하거나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가출청소년집단에 노출되고 이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여 가출생활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보호체계로부터 점점 더 이탈하게 되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건전한 방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추후 노숙자나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의 손실은 값으로 따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초기 가출자나 가출 위험군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보호체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를 통한 안내문 배포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상점, 예를 들면 24시간 운영 패스트푸드점이나 PC방, 찜질방과 같은 곳에서의 홍보,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 등과 같이 청소년 보호기관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

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홍보는 홍보를 담당하는 쉼터(아웃리치 포함) 및 보호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한 곳에 여러 기관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일정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출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호시설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각인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의 설립 및 담당인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홍보 내용의 보완

보호시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들 중 일부는 보호시설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이 심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실제로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으면서도 시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개인생활에 제약을 가져오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거리생활을 통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 시킴으로써 이들이 보호체계 안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 내의 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 및 지원시설을 이용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할 때에도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인 청소년과 상의가 선행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홍보한다면, 가출청소년들이 보호체계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만성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

만성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 가족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가출청소년들에 비해 가정 내 방임이나 학대의 수준이 높았고, 가족의 지지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며 가출 후에도 다른 가출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의 도움을 적게 받고 가족들의 태도가 안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가족들과의 괴리 및 갈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는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문제 등과 같이 가족적인 요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과 가족 간의 중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출 후 가정복귀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성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의 원인이 되는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 집단이 한 팀이 되어 가족 지원 및 중재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 가출청소년 초기사정 및 사례관리의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 - 가출청소년 초기 사정 및 서비스 판별에 대한 의무와 전문성 강화

가출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출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빈도가 높은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그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가출생활에서 생활비 마련이나 오락을 위해 부적절한 경제

활동이나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가출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가출원인 및 환경요인은 사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CYS-net 지역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의 상태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수준 및 가정복귀 과정에 대한 계획을 달리 세워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초기사정이 요구되며, 초기사정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청소년 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초기사정은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쉼터 종사자들이 임의로 간편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사정은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와 발달수준을 파악하고 가정의 특성 및 다양한 배경요인을 측정하여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가정 복귀 여부 및 중장기보호시설로의 연계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단기 청소년쉼터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초기사정과 서비스 판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사정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과 동시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의무화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추후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재가출을 시도하고 한번 재가출을 시도한 경우엔 습관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퇴소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가출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입소와 퇴소과정 및 퇴소 후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을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빨리 손상된 가출효과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례관리는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CYS-net을 통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모니터 구축 및 실행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초기사정과 배치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모니터 구축 및 실행을 통하여 쉼터 및 보호시설의 특성 및 결원 정보와 장기 및 만성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들이 각 쉼터 및 보호시설들의 정보와 가출청소년들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가출 청소년들의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보호체계 안으로의 진입을 통한 자립 기반의 확대

- 유해정화 시스템 강화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가출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업소는 정서·사회·신체적 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저해가 되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들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환경 정화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이 아닌, 보호체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해환경 정화시스템의 예로는 유해업소 단속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단속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신고 보상제 및 고용주 처벌 강화, 불법 유해업소 이용자 처벌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 심리치료의 지원 확대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가출청소년들에 비해 일탈행동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한 경험도 많고, 가출 후 폭행과 같은 피해경험도 상

대적으로 많았다. 이렇듯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을 전후로 심각한 가정 문제나 일탈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외상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은 낮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체계 내에 들어온다 하여도 사회에 재적응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측정과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립을 원하는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자립지원을 제공받는 첫 단계로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심리치료를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직업훈련이나 기타 지원방안이 병행 또는 후속 단계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자립지원 기반 및 시설의 확대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가출청소년들에 비해 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단기 청소년쉼터와 이후 중장기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가지고 가출청소년에게 자립에 대한 요구를 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너무 짧고 그 내용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복귀가 어렵고 자립 및 생활전환의 의지가 있는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들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정으로 주거욕구와 자립욕구를 명확히 측정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립을 계획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는 2~3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 시간표를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유지, 직업능력 개발, 소비 및 경제관 재검토 등

을 포함하는 서비스 요소들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의 하나로서 보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 학업 지속기회의 확대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학교 다니기가 가출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실제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중 과반 수 이상은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에게 있어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보여준다.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이후 성인기의 실업 및 빈곤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및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이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상급학교나 직업 훈련 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상에서 뛰어난 수행결과를 보인 청소년들에게는 향후 지원 및 혜택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장학금을 주는 등 일종의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성공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취동기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청소년들에게는 성공사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기반 지원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 ○ 청소년쉼터 내 시설, 설비 보완 및 프로그램 개선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쉼터의 기능에는 만족스러워 하였으나, 쉼터의 시설이나 자체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쉼터 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물품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에 비치된 학습이나 오락 자료들도 충분하지 않고 오래된 것이어서 현재의 청소년들 취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품이나 자료들도 주로 저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어 고연령층의 가출청소년이나 만성 가출청소년들은 쉼터에서의 하루일과가 매우 따분하고 무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쉼터의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하는 일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청소년 쉼터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기능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호기간 동안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의 손상된 발달기능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인적·물질적 자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보호시설의 24시간 보호체계로서의 기능강화

가출청소년의 발생은 하루 24시간 진행되며, 입소 후의 생활도 24시간 진행된다. 각 쉼터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만성 가출청소년들이 보호체계의 눈을 피해 취침점호 후 야간에 외출하여 부적절한 경제활동을 하고 새벽에 돌아오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쉼터가 24시간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업무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24시간 보호체계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현재의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24시간 보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

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현장에서 24시간 보호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사자 배치기준이나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는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규정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시설의 가출청소년 수용규모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청소년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무리 수용인원이 적더라도 24시간 보호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쉼터의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있으므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쉼터나 보호시설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4시간 보호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 보호 및 지원 시설의 확충을 통한 고연령 장기  
가출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확대

고연령 장기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추정된 가출청소년은 약 47만 명이었으며, 한 해 가출 인구는 약 22만 명, 그 중 일회성 가출청소년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의 정원은 이를 훨씬 밑돌고 있다. 단기 쉼터의 경우는 입소기간이 비교적 짧아 상당수의 가출청소년들을 입소시킬 여력이 있다. 현재 단기 쉼터는 전국에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쉼터의 인원은 25명 내외로 하고 입소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4,500명 이상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쉼터의 경우는 25개소로 단기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작고, 정원도 7~10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 년을 입소기간으로 잡을 경우 일 년에 250명 내외 밖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기 쉼터에 머무르던 청소년이 중장기 쉼터에 입소하려고 할 때에 입소 정원이 초과되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장기 가출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시

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장기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립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자립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중장기 보호·지원 시설은 자립기반의 형성 및 강화에 보다 주안점을 둔 단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퇴소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단계적 프로그램이란 심리치료→진로 및 생활→취업훈련 및 지원→자립거주 안내 및 지원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 또는 병행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실시대상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연령이 낮은 장기 가출청소년의 경우, 중장기 쉼터에서 최장 2년의 기간을 생활한다 하더라도 아직 자립할 연령이나 조건이 미처 갖추어지지 못해 또 다른 쉼터를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가출청소년은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쉼터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립이 가능한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립의 의지가 강하고, 그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인 청소년에게는 자립과 거주지 마련에 있어 지원금이나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일종의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자립의지를 보다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연령이 낮은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보다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보호제도나 그룹홈과의 연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행동이나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특별 치료팀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문제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특별 치료팀이 운영되는 치료형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현장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

### ○ 현장실무자들의 처우 개선

현장실무자들의 경우 노동강도는 높는데 반해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들을 상대하는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를 곳곳에 배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실무자들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이들이 가진 오랜 경험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변화되고 쌓이는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장전문가들에게 사명감에 따른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의 노동강도를 조정하고 임금수준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특별전문가팀의 별도 운영

심각한 수준에서 정신적·행동적 문제가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별도로 보호·지원하는 치료형 보호시설이 운영되며, 그곳에 주로 근무하는 특별전문가팀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도 정부의 노숙자 우선 프로그램에서 CATs(Contact and Assessment Teams)이라 불리는 전문가를 포함한 아웃리치 팀을 개설, 사정기능을 보다 강화하였고, 알콜·약물·정신장애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 50인을 채용한 특별팀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특별전문가팀을 설치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훈련과정 및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출청소년 또는 위험군 청소년들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감안할 때 최일선에서 가출청소년을 만나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에 특히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현 정책 재검토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지역사회 역량 강화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 교사, 기타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열악할 경우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가출기간 및 횟수가 감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출과 그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발굴·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웃리치 활동과 상담, 멘토링을 위한 숙련된 자원봉사자의 모집, 가족중재를 위한 다양한 자원 제공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기업이나 기부자들의 발굴을 통해 자립의지를 가진 가출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및 저렴하고 안전한 거주지의 확보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지역의 기업이나 기부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감세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표창 등을 통한 명예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현 정책 재검토

### - 가출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방안 마련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에 반해, 영국은 보다 종합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건과 교육의 지원 뿐 아니라 주택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미국의 경우도 정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전환생활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가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가족지원,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등 보다 다양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립의 의지가 강한 가출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개발하여 이들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각 기관 업무 재검토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현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각 기관 업무를 재검토함으로써 기관 간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재정리와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으로 CYS-net을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CYS-net과 CYS-net 수행의 허브(HUB)기관을 맡고 있는 상담지원 센터의 경우 가출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이다 보니 가출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조직 내지는 하부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쉼터와 상담지원센터 간의 업무

가 중복되고 연계도 원활히 이루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 간 갈등 해소 및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연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2000). 심리척도핸드북 I, II. 학지사.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2008.
-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4년 업무계획.
- 국가청소년위원회(2002)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 국민일보(2008. 10. 26). ‘청소년동반자’ 10명 중 8명 시간제로 근무… 책임 상담 ‘한계’ .
- 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정익중(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희, 김지수, 김미진, 정승교(2007).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극추구특성 및 가출 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6(4), 348-356.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 박정선(1993). 청소년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혜, 안치민(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 김향초(2002). 미국 가출청소년 프로그램 이해.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남미애(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 연구, 5(3), 63-90.
- 남미애, 홍봉선(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남영옥(2001).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8(2), 143-172.
- 매일신문(2009. 4. 1) 가출 청소년 감금·협박해 성매매시킨 10대 女 영장.
- 방은령(2003). 가정복지 가출청소년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방안 모색.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문조,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변혜정, 민가영(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5-37.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 안은정(2008). 영국의 커백션즈 사업과 한국의 청소년 정책의 비교분석 : CYS-net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성진, 민수홍(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정수, 류진석(2009).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윤현영, 권선중, 황동아(2007).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건강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애령(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용교, 홍봉선, 윤현영(2005).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은정(2000).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상습가출과 단순가출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성, 박영숙(2001). 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평가와 분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192-217.
- 이현지(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정경은(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 연구: 근거이론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경은, 문성호(2008).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19-241.
- 정혜경, 안옥희(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채봉균(2002). 청소년 가출의식에 관한 연구 : 경북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태은(2007).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 통계.
- 통계청(2008). 2008 청소년 통계.
- 파이낸셜 뉴스(2009. 3. 23).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서울특별시 중구 노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청소년 문제론.
- 현은민(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41-55.
- 홈리스주거지원과 사회적 포섭 연구모임(2004). 영국의 홈리스 문제와 정책. *도시와 빈곤*, 69, 161-185.
- 홍봉선, 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3). *"I'm looking at the future" Evaluation Report of Reconnect*.
- Baker, R. L.(2003). *The Social Work Dictionary(4th ed.)*. New

- York: NASW Press.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London(2007). *Tackling Youth Homelessness Policy Briefing 18*.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ublications.
- Homer, L. E.(1973). Community-based resource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473-479.
- Jones, A., Quilgars, D. & Wallace, A. (2001). *Life Skill Training for Homeless People: A Review of the Evidence*. Edinburgh: Scottish Homes.
- Miller, D., Miller, O., Hoffman, F., & Duggan, R.(1980). *Runaways illegal aliens in their own land*. NY: Praeger publishers.
-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2007).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nual Report 2007*.
- ODPM(2003). *Preventing Youth Homelessness: Housing Research Summary, 134*. London: ODPM
- ODPM(2005). *Survey of Local Authorities about Homelessness: Policy Briefing 13*. London: ODPM
- Pleace, N. & Quilgars, D.(2003). *Delivering Health Care to Homeless People: An Effectiveness Review*. Edinburgh: NHS Health Scotland.
- Pope, L. P. (2009). *Housing for Homeless Youth*.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 Quilgars, D., Johnsen, S. & Pleace, N.(2008). *Youth Homelessness in the U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Raleigh-Duroff, C.(2004). Factors that influence homeless adolescents to leave or stay living on the stree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6)*, 561-572.

- SCSH(Scottish Council for Single Homeless) (2005). *Youth Homelessness Information Pack*. Edinburgh: SCSH.
- Sharlin, S. A. & Mor-Barak, M.(1992). Runaway girls in distress: Motiv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Adolescence*, 27(106), 387-406.
- van Wormer, R.(2003). Homeless youth seeking assistance: a research-based study from Duluth, Minnesota. *Child & Youth Forum*, 32(2), 89-103.
- Welsh, L. A.(1995). *Running for their lives*. New York: Gerland Publishing.
- Wingert, S., Higgitt, N, & Ristock, J. (2005). Voices from the margins: Understanding street youth in Winnipeg.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4(1), 54-80.
- Youth Affairs Council of Western Australia(2004). *Fianl report-Roofs for youth*.
- “The Runaway and Homeless Act ”-USA



<부록 1>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결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53조3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청소년 생활 태도 및 가솔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태도 및 가솔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생활향상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연구자: 백혜정 박사

실사진행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사 문의처) (02-6244-07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1. 외롭다고 느낀다.	①	①	②
12. 잘 운다.	①	①	②
13.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①	①	②
14.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①	①	②
15.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①	②
16.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①	②
17.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①	①	②
18.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①	①	②
19.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①	①	②
20.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①	①	②
21.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①	②
22.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①	①	②
23. 나는 의심이 많다.	①	①	②
24.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①	②
25.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①	②
26.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①	②

\* 다음은 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른 지방의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포함. 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는 제외.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기타 친척  
 ⑨ 기타( )      ⑩ 없음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및 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2) 어머니	①	②	③	④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4.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평소 우리 집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화목하다                      ② 화목한 편                      ③ 보통  
 ④ 갈등이 있는 편                      ⑤ 매우 갈등이 있다

\* 계속되는 가족에 대한 결론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은 것을 나누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가족 안에서 중요한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거나 심하게 욕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가끔 나를 너무 무섭게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별로 확인을 안 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내가 술을 마셔도 내버려 두신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무어라 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9. 부모님은 내 기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꾸중 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나의 친구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구들이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친구들 중에 나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속마음으로는 원치 않을 때에도 친구들이 시켜서 또는 친구들과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가까운 친구가 어디에 가지거나 무엇을 하자고 할 때 별로 내키지 않아도 따른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문제에 관하여 부모보다도 오히려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의논을 한다.	①	②	③	④
12. 장래 계획에 대해서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친한 친구의 의견을 중요시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15. 친구들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16.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나쁜 행동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나와 선생님 간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을 떠올리며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친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이 나를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8. 선생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행동 및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출하지 않았을 때	가출했을 당시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① 성폭행(성희롱) 강제로 당하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② 심하게 맞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③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④ 심하게 놀림당하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⑤ 협박당하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⑥ 따돌림(왕따)당하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⑦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2. 다음과 같은 행동들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출하지 않았을 때	가출했을 당시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① 담배 피우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② 술 마시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③ 무단결석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④ 성관계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⑤ 남을 심하게 때리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⑥ 패싸움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⑦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행복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⑧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⑨ 남을 심하게 놀리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⑩ 남을 협박하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⑪ 다른 친구 따돌림(왕따)시키기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①없다 -- ②가끔 -- ③자주

3. 나의 친한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까?

① 담배 피우기	①안 한다 -- ②몇 번 -- ③습관적으로
② 술 마시기	①안 한다 -- ②몇 번 -- ③주기적으로
③ 무단결석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④ 성관계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⑤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⑥ 패싸움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⑦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행복기)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⑧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⑨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⑩ 남을 협박하기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⑪ 다른 친구 따돌림(왕따)시키기	①안 한다 -- ②가끔 -- ③자주











## <부록 2>

### 심층면접 절차 및 내용

#### <심층면접조사 절차>

1. 피면접자가 들어오면, 밝고 온화한 태도로 인사를 하고, 자리로 안내한다.
2. 피면접자에게 면접원 소개와 면접조사의 취지를 설명한다.
3. 피면접자에게 면접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구한다.
4. 피면접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
5.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구조화된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가출경험에 대한 면접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응답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가출청소년들을 도와주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혜정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방은령 드림

♠ 출생년도: 19\_\_\_\_\_년 \_\_\_\_\_ 월

♠ 성별: ①남 ②여

♠ 현재 사는 곳: \_\_\_\_\_도 \_\_\_\_\_시(군) \_\_\_\_\_구(읍/면)

♠ 현재 몇 학년입니까? \_\_\_\_\_

♠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몇 학년 때 그만두었습니까?  
\_\_\_\_\_

♠ 내 성격은 ?

①활발하다 ②내성적이다 ③공격적이다

④원만하다 ⑤충동적이다

♠ 현재 나와 함께 사는 어른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외)할아버지 ②(외)할머니 ③아버지 ④어머니

⑤새아버지 ⑥새어머니 ⑦친척 ⑧기타어른 ⑨없음

♠ 우리 집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은?

① 아주 어렵다 ②어려운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괜찮은 편이다 ⑤매우 여유롭다

♠ 우리집 가정분위기는?

① 매우 화목하다 ② 화목할 때가 더 많다 ③ 그저 그렇다

④화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⑤매우 갈등이 심하다

♠ 처음 가출을 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①초등학교( 학년)   ②중학교( 학년)  
③고등학교( 학년)   ④고등학교 졸업 후  
-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귀하는 몇 번째 가출을 한 것입니까? (                      번째 )

- 재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 1. 쉼터 입소과정

- 1) 쉼터에 오게 된 이유, 의뢰 과정, 현재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 2) 가출에 필요한 정보 구하는 곳

#### 2. 가출경험

- 1) 처음에 가출을 한 시기, 이유, 지낸 곳,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 2) 처음 귀가시, 귀가이유에 대하여
- 3) 재가출시, 재가출을 한 이유, 지낸곳,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 4) 가족의 구성, 가족관계, 가정의 심리적 기능에 대하여
- 5) 가출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
- 6) 가출의 장 단점
- 7) 가출하는 동안 가장 무섭거나 힘들었던 점
- 8) 가출시 가장 필요한 것
- 9) 현재 피면접자가 가장 원하는 것

#### 3. 쉼터생활

- 1) 쉼터 이용회수
- 2) (2회이상일 경우) 쉼터를 옮긴 이유

3) 컴퓨터생활에 대한 만족도  
( 컴퓨터생활전반, 시설, 종사자, 프로그램, 규칙 )

4) 컴퓨터에 대한 요구사항

4.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

1) 학업에 대한 관심- 학업상태, 복합여부, 학업에 대한 관심

2) 진로에 대한 계획-진로에 대한 관심, 계획여부, 뉴스타트프로그램  
참여

5. 사회에 대한 기대

1) 가출청소년에게 위험한 사회적 요소

2) (만일)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일을 한다면 무슨일을 하고 싶은지?

3)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4) 우리사회에 대한 기대 -사회가 해주길 바라는 것

6. 귀가에 대한 계획

1) 귀가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와 이유, 안한다면 그 이유는 ?

2) 부모 ( 혹은 양육자) 에게 하고 싶은 말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필진 ◆

정경은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박사

### ◆ 자문진(가나다 순) ◆

김기남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활동인증팀 · 인증심사원

전(前) 서울시립이동청소년쉼터 · 팀장

나미화 서울시립 금천 청소년쉼터 · 팀장

박윤희 서울시립 신림 청소년쉼터 · 팀장

박점옥 서울시립 금천 청소년쉼터 · 팀장

박현동 의정부시 청소년쉼터 십대지기 · 소장

변경애 의정부시 여자청소년쉼터 · 소장

송미경 서울여대 교육대학원 ·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 회장

장석경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 실장

천창암 서울시립 금천 청소년쉼터 · 소장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낭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증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8

**청소년 가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808-3 (93330)